

교회의 전통 신학의 미래

말씀과교회

2019 가을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과
공동체 윤리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τὸ ὑμῶν περισσευμα εἰς τὸ ἐκείνων ὑστέρημα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고린도후서 8:14a)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http://www.theology.or.kr>

53

새로운 공동의 삶을 위한 제언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부쳐

최영

목회와신학연구소 소장

1.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지만, 우리 개혁(장로)교회로서는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츠빙글리(1484-1531)는 1519년 1월 1일 취리히 그로스뮌스터 강단에서 마태복음 연속설교를 시작함으로써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결을 달리하는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츠빙글리는, 자신의 신앙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에 접근했던 루터와 달리, 고통당하는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며 종교개혁을 사회개혁과 연관시킨 개혁자였다. 바로 이 점에서 츠빙글리는 단지 교리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개혁을 목표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전환”, 곧 “종교개혁의 윤리적 전환”(칼 바르트)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지난 10년 사이 칼빈 탄생 500주년(2009)과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2017)이라는 교회개혁을 위한 천금 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저기서 교회 개혁에 대한 다짐과 결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교회개혁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 같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그들은 개신교인들이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¹

삶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개혁자들의 뜻과 삶과 자세를 따르기로 다짐했다면, 그들이 내렸던 결단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단호하고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는 운동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다. 단지 교리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개혁을 지향했던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면, 이것을 한갓 마음속으로, 한갓 영적으로, 한갓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롬 12:1) 바치며 해내야 한다.

2. 불평등한 사회와 그 사회를 빼앗은 교회

오늘의 한국은 GDP 순위로 지난 몇 년간 세계 11-13위를 오가는 경제 대국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 명을 뜻하는 30-50클럽에 진

1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URD, 2018), 206. 비개신교인에게 비친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이기적이다”(68.8%), “물질중심적이다”(68.5%), “권위주의적이다”(58.9%).

입했다.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 이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적어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말은 ‘사회양극화’ 또는 ‘격차사회’이다. 2010년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8년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3%를 점했다. 이러한 소득집중도는 칠레(54.9%), 터키(53.9%), 미국(47%)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이 같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는 ‘헬조선’이라는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오고,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 여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 나아가 ‘N포세대’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 암울한 사회 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존재한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은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준다.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한다. 또한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사실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그것은 교회로 번역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그때까지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지닌 인종과 성과 계급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곳에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는 그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담과 경계가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에 의하여 무너졌음을 뜻한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장엄하게 숙고하며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의 대헌장을 구성한다(2:13-22).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화해가 세상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선언한다. 이 화목, 즉 화해의 교역은 교회 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이며 정치적인 영역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세상을 위한 화해의 교역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빛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교역은 세상의 불의한 사고방식과 구조들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바르게 재구성함으로써 실제적인 화해와 평화수립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러한 가능성들을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서 발전시키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며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세상 한가운데 존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교역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전적으로 그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맘몬을 택할 자유는 없다.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다. 여기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낡은 질서와 상태를 보존하고 강화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고 거슬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질서를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의한 사회와 구조적인 악습을 타파하고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 저 불의한 사회의 온갖 악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맘몬숭배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2017년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는 불의한 세상을 변혁하고 갱신해야 하는 교회가 그와 반대로 세상을 빼앗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목회자들의 평균사례비는 176만 원이며, 월 사례비가 150만 원 이하라고 답한 목회자가 46.5%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성도 5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중 12.1%가 ‘투잡’을 갖고 있지만,

3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 목회자의 투잡 수행비율은 2.6%에 불과하다고 전한다. 지난 2012년의 보고서가 목회자 평균사례비는 213만 원이며, 월 사례비 150만 원 이하의 목회자는 33.8%였다고 보고했던 것에 비하면, 2017년의 보고서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갱신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맞서 세상이 지금껏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화해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 동시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특별히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과 너무나 닮은 모습을 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교회가 모든 사람을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담과 장벽을 무너트리는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3.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교회가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정부와 협력하여 전통적으로 교회가 담당하던 사회적 역할을 맡게 했다. 학교와 교육,

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588-89. 본 연구소가 2007년에 조사한 목회자 의식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면, 월 사례비 150만 원 이하를 받는 목회자는 전체 53.2%에 달한다. 목회와신학 연구소, “목회자 의식조사 보고서”(2007).

의료 활동, 그리고 사회복지 등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다. 수도원을 폐지하고, 정부가 그 재산을 관리하여 농민계층의 경제난을 해결하게 했다. 교회가 주관하던 빈민에 대한 자선을 제도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빈민을 구제하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운동은 “가난한 자의 미래를 열어주고, 기득권 계층의 붕괴를 막아 주어, 마침내 건강한 연방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³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의한 사회와 구조악을 타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칼 바르트의 제자로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한스 루(Hans Ruh)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제안⁴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개혁을 고민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매우 시의적절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토머스 모어(1478-1535)의 ‘유토피아’(1516)에서 유래했지만, 20세기 후반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기본소득 논의를 체계화한 학자는 벨기에 루뱅대 교수 필립 판 파레이스이다. 그는 빈곤 문제의 해법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 현대사회에서 성장하지 않고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설

3 정권모, “참을 수 없는 신학의 가벼움,” 『말씀과교회』 26 (2000), 2-4.

4 한스 루,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정미현 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8).

명한다.

한스 루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를 우선 몇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기술도입에 의한 실업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을 말한다. 향후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소득의 불균형이다. 소득분배와 그에 따른 삶의 불균형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이란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분명하게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한 나라의 중위 균등화 소득 50-60%보다 적은 액수를 버는 것을 말한다. 셋째, 삶의 형태의 위기이다. 오늘날 인간의 실존적 삶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날마다 세계의 위기상황들이 보도되고 있다. 전쟁과 삶의 터전의 파괴, 경제와 재정의 위기는 항상 예기치 못한 난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지배 질서와 관계가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최소한의 부분적인 안정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여기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본소득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재정상태의 검증이나 대가없이 정치 공동체에 의하여 모든 개개인에게 지불되는 수입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 일련의 조건과 기준들이 고려된다. 즉 기본소득은 국민경제의 재정상태와 연관하여 정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 사는 모든 국민과 체류 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들이 그 수혜자들이다. 스위스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에 대한 안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그들이 생각한 기본소득은 월 2,500 스위스 프랑(약 280만 원)이었다. 이 안전은 2016년 6월 5일의 국민투표에서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최근 핀란드 정부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고, 그 예비적 결과를 지난 3월 초에 발표했다.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웰빙 효과’는 크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매우 고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예비적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51%, 반대 21%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ی 나왔다. 만약 최종 결과에서 긍정적인 고용 효과가 확인되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같은 사회에서 절대다수가 기본소득 제도를 거부한 것을 보면 이 제안이 보편적으로 관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는 기본소득 제도를 불평등한 현 상태에 대한 대안으로 여전히 심사숙고하게 한다. 첫째, 태양, 바람, 땅, 물, 천연자원 등,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은 우리 주변의 환경의 기본적 가치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든 주민을 위해 오일에 대한 배당금을 배분하는 알래스카와 금에 대한 배당금을 배분하는 몽골의 경우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모델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삶의 형태의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우익화 현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빈곤을 막

지 못하면, 상황은 부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교역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거대한 물물교환 체계 안에서 움직이며 공존한다. 여기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정확하게 동일화하거나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것을 직업의 세계에서조차 찾아볼 수 있다. 직업의 성과는 임금을 통해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는 정의되거나 측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최소한 총체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에 종속되지 않는 기본소득제야말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여 우리 사회를 심한 불평등에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 사상이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4.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원형

기본소득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미 구체적인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생산품에 대한 소비세를 증대하고, 사치품과 금융이동에 대한 세금을 증대하는

5 한스 루,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31-42.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⁶

그러나, 스위스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화해의 교역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공동체에서 그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고전 13:1) 같은 뿐이다. 이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회칠한 무덤”(마 23:27-28) 같은 위선적인 행태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나라 비전(사 11:1-9)은 새롭게 정리되고 정돈된 창조세계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여기서는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른바 ‘갑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로 품격과 존엄을 지니고도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과 공존한다.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몽상이나 잠꼬대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를 비롯한 성서의 예언자들은 그러한 위대한 왕, 의로운 왕의 통치를 오랫동안 고대하며 그 왕이 가져올 놀라운 세계를 꿈꿔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왕이시라고 믿는다.

출애굽 공동체와 초대 사도교회 공동체는 이사야가 그린 조화롭

6 한스 루,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언』, 51-55.

고 아름다운 공동체적 비전이 단순한 소망적 사고나 감상적인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 삶 속에서 입증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약 2리터)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출 16:16-18).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후 8:14-15).

이들의 공동체적 비전과 삶은 많은 사람에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게 했다. 공산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자기의 능력에 따른 사람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른 사람으로!”라고 외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획책했다. 레닌은 이 구호가 현실화될 때, 공산주의의 최종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레닌도 마르크스도 약 300년 전에 스위스의 개혁자들이 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결코 깨닫지 못했다.

복음서를 윤리사상의 토대로 삼고, 산상설교를 그 핵심 내용으로 보았던 츠빙글리는 ‘복음적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득권층과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냈다.⁷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은 고린도후서 8장 13-14절을 주석하며 그 성서의 정

7 이재천, “츠빙글리의 복음적 사회윤리,” 『말씀과교회』 26 (2000), 151-97 참고.

신을 따라 제네바 교회를 개혁했다. 칼빈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평과 균형이 있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아무도 너무 많이 갖거나, 필요한 것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재산의 정도에 따라 궁핍한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제네바 교회는 출애굽 공동체와 사도적 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재정을 4분할하여, 각각 교회당 보수 관리비, 목회자 생활비,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 긴급을 요하는 이방인 난민 구제금으로 사용했다. 교회재정의 50%를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구제 기금으로 지출했던 것이다. 제네바 교회의 사례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과 밖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로 귀중한 지침과 안내가 될 수 있다. 실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재정의 대부분을 교회 내적인 일들, 곧 교회당 관리비와 건축비, 사례비 등 인건비와 각 부서활동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평과 균형이 있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넉넉함으로 이웃 형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자 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들도 서로 유무상통해야 한다(참고, 행 2:44-45).

기본소득제에 대한 현대의 논의는 놀라운 예언자적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이러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⁸ 또한 거꾸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규

8 이미 우리 가운데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다. 전주 화평교회는 교회 안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헌금’ 항목을 책정하였

정대로, 제네바 교회의 모범을 따라 교회재정의 절반을 이웃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 고된 투쟁을 수행해야 하는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것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다. 노회와 총회는 교회법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롭게 개정하여 이 일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교회재정의 절반을, 아니 형편에 따라 최대한의 재정을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게 된다면, 한국교회와 사회를 양극화의 위기로 내몰아가는 mammon의 위세는 절로 꺾이게 될 것이다. 교회는 우선 이와 같은 일을 기꺼이 행해야 한다. 아울러 양극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이슈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도록 추구하고 필요한 세제 개혁, 또는 경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세상을 향해 외칠 때,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의 삶’을 이끌며 하나님나라의 전위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5. 프로페자이

마지막으로,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개혁자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은 ‘프로페자이’, 곧 성서연구, 설교준비 모임이

다. 매월 등록 교인의 수대로 균등하게 N분의 1로 전교인에게 현금으로 배분하고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바깥 사회에서 사용하게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02회 총회 주제해설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17), 156.

다. 종교개혁에 대한 츠빙글리의 가장 중요한 공헌들 가운데 하나는 성서원어와 성서본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학교’(렉토리움)을 1525년에 설립한 일이다. 후에 이곳은 고린도전서 14장 26-33절에 근거하여 ‘프로페자이’(Prophezei)라고 불렸다. 설교자는 ‘예언자적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이는 미래를 예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학교는 그로스핀스터 교회와 강 건너편에 위치한 프라우핀스터에서 공동으로 열렸다. 이 두 교회로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 가운데는 취리히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라틴어 학교 상급반 학생들, 또한 함께 모여 성서주석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강의는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시작 기도 후에, 그로스핀스터에서는 히브리어 교사가 구약성서를 주석하고, 그 다음 츠빙글리가 같은 본문을 헬라어 70인역(Septuaginta)에서 주석했다. 그 뒤에는 라틴어로 주석된 의미를 독일어로 요약하여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전달하기 쉽게 해주었다. 같은 시간에 프라우핀스터에서는 신약성서 본문들이 주석되었다. 종교개혁은 성서의 핵심적 의미를 따르는 근본적으로 성서운동이지만, 세 개의 고전어 곧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익숙하게 되는 교양운동이기도 했다. 이것은 특별히 취리히 종교개혁에 해당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 ‘프로페자이’를 따라 매주 일정한 날 함께 모여 성서정과에 따르는 본문을 읽고 주석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들이 있다. 필자는 지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칼빈의 ‘제네바 목회자회’를 글이나 강연을 통해 여기저기서 소개한 바 있

다. 이 제네바 목회자회는 프로페자이와 달리 매주 금요일에만 모여서, 오전에는 제네바 교회에서 문제되는 신학 교리를 논하고, 오후에는 주일에 설교할 성서본문을 주석하고 함께 설교를 준비했다. 매주 다섯 번씩 모인 프로페자이와 달리 주 1회 모인 제네바 목회자회가 그래도 우리 형편에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이러한 목회자 모임을 활성화시켜보자고 외쳤던 것이다. 갈수록 교회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세상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럴 때, 지역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학을 논하고 성서를 주석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모임이 많아진다면, 개혁자들이 원하고 걸었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문고리를 움직이시면 문기둥도 흔들린다”

- 츠빙글리

괴로움과 게으름 사이

마가복음 14:32-42

육순종

성북교회 목사

1.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목회자에게 털어놓기 때문에, 좋은 싫든 그런 이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접하게 마련입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최일선에서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이다 보니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갑자기 누군가가 암 같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 연락하고 찾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한

변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나는 어려움,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겪는 괴로움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이런 일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이 겪는 괴로움을 내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분명 이기적인 태도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단지 사람의 개인적인 체질이나 습성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게으름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의 방어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숙제를 자꾸 뒤로 미루고, 방 청소를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엄습하는 숙제의 괴로움, 방 청소의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도전이나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머무르려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게으름의 공통점은 ‘괴로움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서든 괴로움을 뒤로 미루려 하고, 교묘하게 고통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보다 훨씬 많습니다. 셋째는 괴로움과 게으름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괴로움과 게으름 사이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영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2.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제자 셋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듭 일관되게 소개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막 14:33),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34),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35),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36).

예수께서 괴로워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결국 십자가를 지실 텐데 성경은 왜 굳이 이렇게 예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도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어떤 인생도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별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괴로움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가 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감추지 않고 드러낸 의도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것은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었던,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인생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런 일,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말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괴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괴롭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포커스는 제자들의 나태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는 장면에서 집중하기에는 제자들의 나태함에 대한 묘사가 오히려 방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의 흐름이 단절됩니다. 제자들의 나태와 게으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37),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38),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38).

전혀 은혜롭지 않은 장면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신 예수에게 몰입할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나태한 모습이 여러 번 소개 된 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겪어내고 계신 예수의 모습과 괴로움을 외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렷이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움과 대면하고 있는 예수 곁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도망하려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하고 안타깝지만, 왠지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 민망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TV나 인터넷에 장시간 붙들려 있다든지, 서로 깽뚫하지만 결코 깊이 다가가지는 않는다든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습성이 그런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습관, 작은 통증에도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습관, 현실에서 벗어나 오락에 빠지는 습관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마약은 고통이나 괴로움의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해결책입니다. 마약, 섹스, 환각, 폭력, 집착과 같은 모든 종류의 중독은 리얼리티(reality), 곧 현실로부터 도망가려는 시도들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버겁고,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지 삶의 얼굴 전체는 아닙니다. 만일 현실이 어렵다고 도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락이 아닌 기쁨, 일시적 만족이 아닌 깊은 감사, 탐욕스런 복이 아닌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삶이 어려워도 도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거의 본능에 가깝고, 누구나 괴로우면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을까요?

4.

그 대답은 ‘괴로움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게으름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거듭 당부하신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24),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37),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38).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없을 때’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에겐 ‘아무도 없을 때’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나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

갔습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로부터 깨어 있음의 진수를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해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딜(deal)을 하거나, 내 욕심과 바람만을 즐기치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최선인지 최악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욕심과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 자신을 활짝 열어 놓는 자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 사는 삶의 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 사는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대처하다가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고 실패하면 좌절에 빠집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고난에 짓눌리거나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 붙어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데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는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큰 고통이나 괴로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물론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닥칠 것입니다. 더 괴로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땐 어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피할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재빨리 도망가서 적당히 편안한 게으른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날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꼭 순교적 상황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바로 그 순간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내 지혜와 능력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과 게으름 사이에서 깨어 사는 신앙인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그치지 않은 인생길 위에서 신실하

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주님

마가복음 10:17-22

이훈삼

주민교회 목사

1. 우리를 움직이는 것

20년 전인 1999년에 1편이 개봉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매트릭스》를 최근 TV로 3편까지 다 보았다. 너무 유명하기에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전편을 보고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지식정보화 사회 특히 로봇과 AI의 시대로 이미 접어든 인류가 반드시 곱씹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우리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매트릭스 시리즈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 《애니매트릭스》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공지능이 더 이상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인공지능 기계의 에너지로 사용하며, 애벌레처럼 배양되는 수많은 인간들이 현재의 일상과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지내도록 인간의 뇌 속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심어놓는데 그 가상의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한다. 영화 전편을

통해 종교, 철학, 역사적 여러 명대사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1편 초반부에 시끄러운 클럽에서 남자 주인공 네오를 여자 주인공 트리니티가 처음 만나서 귀속 말로 속삭이는 대사가 무겁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질문이지.”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알고 싶은지가 내 삶을 결정한다. 질문이 없는 세상은 죽은 사회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체제는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든지 독재다. 묻지 않는 관계는 겉으로는 돈독해 보이지만 유리잔처럼 허약한 관계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믿음이란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에 따라 일어나는 물음을 정직하게 질문하고 그 답을 내 삶을 다해 찾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10분 만에 끝낸다고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다. 교회 회의에 무슨 질문이 필요하나? 그냥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식간에 마치면 그것이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라고 한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이런 교회는 작은 바람에도 교회가 휘청거린다. 작은 흔들림에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교회도 질문과 토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고뇌와 치열한 탐구를 통해 내공을 키워야 한다. 질문이 허용되는 교회, 질문을 장려하는 교회가 마침내는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 공격에 대적할 수 있다.

질문의 뿌리는 욕망이다.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고 욕망이 내 삶을 결정한다. 욕망을 따라 묻고 욕망에 따라 답을 구한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질문(욕망)이 현대인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가 슬픈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 욕망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잘 벌 수 있을까?

아파트는 어디가 오를까? 연예인 사생활은 어떨까? 이번 성폭행 피해자는 누굴까?(이런 질문과 욕망이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킨다.) 일류 대학 가는 법,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 등. 또 요즘에는 맛집에 대한 질문도 많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질문과 대답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반면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줄어들고 있다. 궁금증도 없고 알고 싶은 욕망도 없다. 그래서 대학마다 철학과 등 인문학이 줄어들고 대신 실용학과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대학을 평가하는 데 진리와 학문이 아니라 취업률이 우선이다. 이게 우리 자화상이다. 이런 질문과 욕망이 대세를 이룬 사회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정말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2. 청년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

우리는 오늘 성서 본문에서 정말 소중한 청년을 만났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청년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한 모델을 보여준다. 그가 주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 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막 10:17) 그의 질문이 가십거리가 아님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달려 나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물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해 마음으로 고민하며 치열하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소중하다. 우리 시대에 이 청년처럼 구원에 대해서 뜨겁게 고민하며 묻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모두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한숨 쉬고 기뻐하는 삶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초원을 누비며 평생

사냥에만 몰두하는 사자나 표범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스페인에서 태어나 남미에서 신부로 활동하며 해방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세레조 바레도(Maximino Cerezo Barredo, 1932~)가 이 본문을 판화로 새겼다.



<세레조 바레도, '부자 청년의 질문' >

전체적인 분위기는 따뜻하다. 비난이나 격렬한 논쟁보다는 애뜻한 마음들이 흐른다. 뒤편에서 이 뜻밖의 장면을 지켜보는 열두 제자들은 과연 주님은 이 청년에게 무어라 말씀하실까 촉각을 모으고 있다. 청년에 대해 청년의 질문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반응에 대해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이들도 있다. 청년의 고민은 심각하다. 눈에

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하다. 눈을 밑으로 향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질문하는 청년은 이 문제로 씨름하느라 꽤나 지쳐있는 표정이다. 그의 질문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가벼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화가는 그의 손을 가슴에 대는 자세로 표현했다. 청년의 이 질문은 진심이었다. 정말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청년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는 애정과 다정함이 묻어난다. 주님은 눈을 크게 떠서 청년의 얼굴을 정면으로 들여다본다. 비록 청년은 주님에게 눈조차 마주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를 정상적으로 대하고 있다. 청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비난조가 아닌 것은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격려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2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다음 문제다.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질문이 곧 우리의 욕망이며,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3. 주님의 슬픈 대답 앞에서

어렵게 묻는 청년을 향해 주님은 힘겨운 대답을 주셨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21) 율법을 다 지켰다해도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소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전 재산이 1,000만 원 정도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 나누고 주님 따르기가 쉬우나 한 100억 쯤 된다고 하면 훨씬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할 것이 적어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 청년은 부자였다. 손가락에 반지를 두 개씩이나 끼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감사하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어내셨다. 청년의 현재를 가능하게 해주고 미래를 담보해 줄 재산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라는 말씀이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걸려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지난 2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졌겠는가? 이 말씀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슬프게 한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제의다. 초대교회에서는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수준의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모임이었지만 그럼에도 사회를 변혁할 힘을 지닐 수 있었다. 지금 주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통과제의는 사장되었다. 목회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인들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나도 못한다. 그랬다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말도 못 꺼낸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용인되고 구원은 우리에게 아주 손쉽게, 값싸게 허락된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고 행동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 목사와 교인 모두가 부담

없고 편하다. 주님만 빼놓고! 목회자나 교인이나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참회해야 한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포기할 것이 별로 없는 청년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청년이었고 가진 것만큼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기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사실은 이 청년의 모습이 일반적이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더 특별한 일이다. 주님이 날 따라 오너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배와 가족과 미래의 희망까지 모두 벗어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나섰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즉시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는 말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구원은 이렇게 일반적인 자세와 결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은 내 목숨과 같은, 지금의 나를 이루는 요소인 재산, 인간관계, 명예, 직책 등을 모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화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에 이르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 그 뒤로 이 청년이 어찌 되었는지는 전해오는 바가 없다. 내 생각에 그는 분명 나중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는 다시 주님께로 왔을 것 같다. 단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질문했던 그 물음의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가 품은 구원의 갈증은 돈이나 건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고 그 물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린 어찌해야 하나? 시대가 갈수록 구원에 대한 관심과 질문(욕망)은 줄어들고 있다. 이 시대의 공기가 구원을 갈망하면 나도 덩달아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상이 점점 비인간화되고 있다. 인간의 영성은 메마르고 오히려 물질화, 기계화, 짐승화 되고 있다. 우리가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고 우리 자신과 시대를 구원하려면 이 청년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고, 우리도 청년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을 직시해야 한다.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에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고뇌하기 바란다. 성경에는 으레 그런 말들이 있고 그것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슬프게 하나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곰곰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란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의 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묻다

강선남

서강대학교 강사

1.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의 공생활은 다음과 같은 선포와 함께 시작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이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이고, 이 선언이 예수의 말씀과 활동의 중심을 형성한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약 120번 나타나는데, 그 중 약 100번이 공관복음서에서 나오고, 이 가운데 90여 개 본문이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의 일부로 나온다. 따라서 부활 이전 예수의 설교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다.¹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활동에서 중심역할을 차지

1 신약성경에는 ‘하나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혹은 단순히 ‘나라’(ἡ βασιλεία)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라’라는 표현까지 더하

하지만, 예수가 그 말로 무엇을 의미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말씀들

공관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여러 언급 가운데 몇 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나라는 씨가 뿌려진 세상이라는 땅이나 밭의 형태로 비교된다. 길에 떨어진 씨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여물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마 13:1-23).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는 뿌려진 땅에 따라서 그 열매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마 25:1-13). 이 말씀을 통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성찰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면 신약에 약 200번 정도 등장한다. 한편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한다. 참조.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1 : 예수의 세례부터 거룩한 변모까지』, 박상래 역 (서울: 바오로딸, 2012), 91-92; F. D. Farnell, “The Kingdom of God in The New Testament,”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23/2 (2012), 202.

또 이 나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겨자씨, 곧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과 같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막 4:30-32. 참조. 마 13:31-32, 눅 13:18-19) 그것은 또 누룩과 같아서 반죽 전체의 양에 비해 얼마 안 되지만 반죽이 부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이다(마 13:33, 눅 13:20-21). 앞에서 ‘씨앗’을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이번에는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우리 일상 삶에서 익숙한 것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면서 설명한다. 그분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시작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놀라운 성장을 통해 가시화되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다. 또한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암시하기도 한다.²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되기도 한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땅에 묻는다. 그리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다음 그 보물을 차지하고 나서 좋아한다(마 13:44).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 처분하여 빼어나게 좋은 진주를 손에 넣는다(마 13:45-46).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알려주며, 제자

2 참조.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NTC;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351-53.

직에 수반되는 헌신과 투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편, 하나님 나라는 다음 구절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 구절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가 요한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이 구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침노하다’(βιάζομαι)의 쓰임새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다. 그러나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고 예수 의 가르침과 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요한과 예수에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침략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

3.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말씀들 가운데 몇 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해석들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는 이상주의적 또는 신비적 해석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나라의 자리는 인간 내면으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부터 행동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나왔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러한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이렇게 이해할

3 참조.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429-31.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으로, 예수 자신이 그 나라라고 본다. 곧 하나님이 그분 안에 현존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수용되는 이해는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이다.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앞의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 즉 그리스도론적 해석과 병행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마지막 때, 곧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왔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종말론적 차원을 강조한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해로 나뉜다.

1) 실현된 종말론

예수 자신의 활동과 함께 ‘이미’(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으로 가르치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 11:20)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눅 16:16) 누가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약속과 예수 안에서 약속의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요한은 두 시대를 연

4 참조.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1』, 107.

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 누가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라는 말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은 율법과 선지서의 요약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요한이 복음의 시대에 살았으나, 그의 설교는 구약성경의 이해를 대표한다.⁵ 이 구절들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다고 선언한다. 곧 ‘그것은 가까이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구체적인 말들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실체로 보셨음을 드러내 주는 다른 말과 행위들이 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하고 묻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⁶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4-5. 참조. 눅 7:21-22).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이 고통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는 당신의 공생활 이

5 참조.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PNTC;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461-63.

6 예수의 가르침과 활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오실 분’, 곧 메시아의 이미지(다윗 임금 때의 통일왕국을 회복시켜 줄 왕적인 메시아)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의 질문을 이해해 볼 수 있다.

후 첫 번째 설교에서 이사야 61:1-2을 인용하며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과 역할을 설명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눅 4:18-22)

예수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그분이 행한 질병 치유와 구마 행위들은(눅 4:31-41) 하나님 나라 도래 선언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대표적 표징들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눅 4:42-44)

2) 철저한 종말론

한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미래에 성취될 일을 암시하기도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니.”(마 7:21-23)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미래의 사실로 서술된다.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아직 아니(not yet)’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마태오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마 25:31-46) 구절을 보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받으라.”(34) 이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역사는 끝나고 그 나라가 절정에 도달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종말론’과 ‘철저한(미래적) 종말론’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 요소가 공존)⁷ 예수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수반되는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면,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 또는 왕국이라는 말의 바탕이 되는 히브리어 ‘말쿠트’(מַלְכוּת)는 본래 동명사로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와 마찬가지로 통치기능을 의미하는 말이다.⁸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이며 그 결과는 역사 안에서 사건이 되어 실행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옮길 수 있다.⁹

7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은 다른 말로 ‘시작’과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오심과 활동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에 그 나라는 완성, 성취될 것이다.

8 히브리어 ‘말쿠트’(מַלְכוּת)의 동사형 ‘말락’(מָלַךְ)이나 그리스어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의 동사형 ‘바실레우오’(βασιλεύω)는 모두 ‘통치하다, 다스리다, 또는 왕이 되다’를 뜻한다.

9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 나라』, 이정희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7), 232.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예수의 활동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도래한다. 약속된 성령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예수의 세례 때와 예수의 활동에서), 예수 부활 뒤 오순절부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아직 미래의 일이다. 메시아의 잔치(막 14:25,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미래의 일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길”(마 6:10)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한편으로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또는 통치’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올’것이라고 예고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말씀들과 함께 그 의미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읽을 수도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때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¹⁰ 이러한 어려움은 우선, 그 나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많다는 점과 말씀의 다양성에 의해 제기된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야기된다.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과 편집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료를 통해 예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

10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주권’이라고 부르시는 실재는 매우 복잡해서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분의 메시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메시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요제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나자렛 예수 1』, 106.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특성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특성이 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눅 18,9-14)를 통해 그 특성에 접근해 보기로 하자.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 비유가 자리한 문맥

누가복음 17:20a에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그 나라에 동반되는 종말론적 표징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대답에서 암시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20b).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는 그것을 알리는 우주적인 표징을 드러내며 분명하고 힘차게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의 가르침과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영광스러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¹¹ 이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가시적인 표징을 지니고) 오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대답한다(21). 이 구절은 여러 해석을 낳았으나, 예수의 활동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다수의 해석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에 의해 지금 ‘너희 가운데’(among you) 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뜻한다.¹²

그런 다음 예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관심을 돌리며(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도래에 관한 문제는 예수 자신의 현재(21절)와 미래의 오심(22-37절)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완

11 이야기 흐름상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논쟁적인 어조를 감지할 수 있다. 참조.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x-xxiv) (AB 28a;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5), 1160; D. L. Bock, *Luke 9:51-24:55* (BEC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1996), 1411-12.

12 참조.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488-89; D. L. Bock, *Luke*, 1414-19.

전한 계시(현재성과 미래성)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¹³ 그분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롯 때를 들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아들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26-37절).

이어서 예수는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비유 곧,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신다. 먼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18:1-8)를 통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8절). 그 때에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7:20a에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이 그곳을 떠났다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할 때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8:9-14에서의 기도에 관한 또 다른 비유(바리새인과와 세리의 비유)의 청중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볼 수 있다.¹⁴

2)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이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소였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¹⁵ 첫 번째 사람은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자

13 참조. J.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490.

14 물론 누가가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청중은 그들 가운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9)이다.

15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두 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러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시간 이외에도 개인 기도를 바치기 위

연스러운 사람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성전의 두 번째 방문자는 첫 번째 방문자, 곧 바리새인의 혼잣말 기도에서도 소개된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11)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성전 방문객인 반면에, 세리는 경건한 바리새인과 짝을 이루는 방문객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성전 경내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에 서서 기도한다.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11).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의 언급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9)과¹⁶ AD 70년 이후 그리스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의 본디 청중들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곧,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으로는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의로운 삶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적절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¹⁷

한 성전 방문이 가능하였다.참조. T. A. Friedrichsen, "The Temple, a Pharisee, a Tax collector, and the Kingdom of God: Rereading a Jesus Parable(Luke 18:10-14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4/1 (2005), 105.

16 18장 9절은 비유의 배경을 제공하는 누가의 도입문으로서, 그는 종종 예수의 비유의 대상을 명시한다. 참조. D. L. Bock, *Luke*, 1461.

17 T. A. Friedrichsen, "The Temple, a Pharisee, a Tax collector," 110;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504.

그 다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감사한다(12). 일반적으로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대 속 죄일’에 금식 할 것을 요청 받았다.¹⁸ 따라서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실천한,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은 바리새인들 집단의 경건심 실천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비유의 바리새인은 자신의 소득의 십일조, 곧 그가 ‘자기 집에 가져오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바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약의 규정과 비교된다.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레 27:30-32. 참조. 마 23:23, 눅 11:42). 결과적으로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금식과 십일조는 당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던 것 이상을 실천한 것이다.

이어서 성전의 두 번째 방문객인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한다. 그는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간주되던 인물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다. 당시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두 눈과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것이었으나, 세리는 눈을 들지조차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친다(13). 가슴을 치는 행위는 극심한 고통이나 괴로움의 상징으로, 세리의 자세와 태도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다.¹⁹

18 D. L. Bock, *Luke*, 1463;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504.

19 당시 유대사회에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거나 불명예스러운 직업(예를 들어, 세리나 목자, 행상인, 무두질 하는 사람 등)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으로 간

이러한 세리의 기도에 이어 곧바로 비유의 결론으로 이동한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14) 여기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신적 수동태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음을,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당시 유대교에서는 세리의 기도만으로 그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우리 본문에서 세리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언급은 없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선언은 당시 청중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솜이었을 것이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 사람은 종교적 규범을 철저히 지켰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예수의 비유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에게 예상되는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는다. 비유가 자리한 문맥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예수는 이 비유를 당신의 활동에 의문을 품고 있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우리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며, 당신을 변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²⁰ 하나님 나라와 같이 예수는 나

주되었다. 참조. J. Jeremias, *Parables of Jesus*, trans. S.H. Hooke (New York: Scribner, 1954; re. ed. London: SCM, 1963), 132.

20 T. A. Friedrichsen, "The Temple, a Pharisee, a Tax collector," 118-19.

병환자와 여자들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고, 안식일을 둘러싼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고,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결정하는 식탁규정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속죄일의 참회나 희생제물을 넘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용서를 이루어낸다.

이처럼 예수는 당시 수용되던 인간의 잣대, 사회경제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판단에 대한 급진적이고 완전한 ‘전복’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비유의 마지막은 이 선언과 함께 끝맺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14b) 이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 18:16) 역시 앞의 비유와 함께 읽을 수 있다.

3) ‘위대한 전복’(the great reversal)

복음사가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위대한 전복’이다.²¹ 이 주제는 누가의 두 권의 책 전체에 걸쳐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누가 작품 이외에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는 주제이다.

누가복음서 앞부분에서 마리아는 위대한 전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21 참조. J. L. Gonzalez, *The Story Luke Tells: Luke's Unique Witness to the Gospel* (Grand Rapids, Michigan/Cambrid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29.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눅 1:51-54) 누가복음 20:17에서는 예수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편 위대한 전복은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고 이 삶이 앞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야 한다.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였을 때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눅 22:25-26)

복음서 시작 부분에서 누가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준다(눅 2:1-7).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행 7:54-56)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예수의 ‘여관 밖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으로’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의 모든 전복의 토대가 되는 가장 위대한 전복이다.²²

5. 예수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된다. 그분은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

22 J. L. Gonzalez, *The Story Luke Tells*, 44.

여주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삶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²³ 그분께 가서 그분과 함께 묵으며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요 1:39)

믿음과 사랑의 변주곡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갈 5:6b)

우진성

성경과설교연구원 원장, 신약학

하나님의 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사건을 한 편의 드라마로 이해해 보자.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출연자는 하나님이다. 어떤 모습으로 출연하셨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피조물 인간이 다시 그분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출연하셨다. 인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그려보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간절히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았을 때,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달려 나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였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성경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의”(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라고 표현한다. “의”라는 표현은 근대적 의미의 정의(justice) 개념과 연결 지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 “의”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한결같은 사랑, 친절, 인애를 담은 개념인 “헤세드”(חֶסֶד)에 가깝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만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라. 떠난 아들을 잊지 못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집 나간 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이다. 이 비유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구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 부른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언어로 사용된 빈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언어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지으신 하나님과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이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드라마를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로 한정지어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해해야 한다.

믿음의 첫 사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호응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부응한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을 기대하셨다. 그 징표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켜 그들의 신실함을 표현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하였다. 모두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현실을 로마서 3장은 시편 여러 곳을 인용하여 이렇게 묘사한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롬 3:10-12)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난관에 부딪혔다.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 인간은 늘 더 악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다. 그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 그 백성이 겪던 모든 고생과 고난을 일찍이 경험한 팔레스타인의 청년이었다. 예수님은 지구별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영적 감수성이 있었다. 일찍부터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예수님은 가장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하였나? 십자가에 달려 당하는 죽음을 감당할 정도로 신실하였다. 죽기 직전 그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을 잘 보여준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마 26:39)

예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가 “믿음”과 “신실함”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는가? 믿음이라고 흔히 번역된 피스티스(πίστις)라는 단어의 뜻은 신실함이다. 영어로 옮기면 faith보다는 faithfulness에 가깝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피스티스도 신실함(faithfulness) 혹은 신의(fidelity)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천한 모습을 말한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가 보인 믿음을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

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지정되신, 지명되신] 확정되신 분이십니다.(롬 1:3-4)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전 인류를 대표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한 사람의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대접해 주기로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믿음이 인류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18)

해외의 도시 중에 로스엔젤레스만큼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이 많이 찾는 도시도 없을 것이다. 다운타운의 큰 공연장에서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이 열리는 날에는 여러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입이 딱 벌어지는 시범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 공연장을 나서는 각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 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태권도를 잘할 것이라는 존경이 눈빛

에 담겨 있다. 대표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대표가 잘하면 모두 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비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대표로 여겨주셨다는 다소 생경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맡은 역할에 대한 신약의 비유들

“하나님의 의”가 인류 속에 이루어져 가는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역할에 관해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대부분은 구약의 제사 관습에 비유하여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한다. 제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물과 제사장과 제단이다. 신약에는 이 제사에 필요한 이 세 요소들을 활용하여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께서 맡으셨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설명한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요 1:29)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히 9:11-12)

그리고 로마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단이 되셨다고 설명한다. 로마서의 이 이야기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3:25은 아래와 같이 증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롬 3:25)

이 구절에서 “속죄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이다. 힐라스테리온을 이처럼 “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시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로 같은 어근의 명사 힐라스모스(ἱλασμός)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자.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면 왜 힐라스모스를 사용하지 않고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했을까? 힐라스테리온이 가지고 있는 여러 뜻 중에 이 구절에서는 혹시 “제물” 말고 다른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넣어둔 금 향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히 9:4). 이 셋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들이다. 민수기 16-17장, 출애굽기 16, 32장을 참고하라.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위 뚜껑을 “속죄판”(히 9:5)이라고 불렀는데, 이 뚜껑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다. 히브리서 설명대로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차례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위 뚜껑인 속죄판에 피를 바르는 예식을 행하였다(히 9:7).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들을 보고 진노하실 것인데, 힐라스테리온으로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바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대신 제물을 바친 정성을 보시고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논리이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같은 단어에 대해 로마서는 “속죄제물”로, 히브리서는 “속죄판”으로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서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면 이런 말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으로 내놓으셨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대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설명한다(히 10:10). 히브리서의 설명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단(속죄판) 위에 스스로 바쳐진 제물이다. 그러나 로마서 3장의 설명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히브리서와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금박 입힌 나무판에 불과한 기존의 “속죄판”을 치우고, 당신의 아들 예수의 찢긴 몸을 우리의 허물을 덮는 힐라스테리온(속죄판)으로 내놓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판이 되어 인간의 죄악을 덮고 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찢긴 몸이 속죄판이 되어 언약궤를 덮고 있다. 피 흘리는 그의 몸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의 죄악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신실하였던 예수의 찢긴 몸을 보셔서, 인간의 죄를 너그럽게 여기심으로 하나님

의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신실을 보시고, 인류 전체를 긍휼히 대하셨다.

제법 긴 설명을 하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로마서 3장은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제단(힐라스테리온=속죄판)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제사 비유 |

- 제물로 비유 :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0장
- 제사장으로 비유 : 히브리서 9장
- 제단으로 비유 : 로마서 3장

비유는 세 종류이지만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펼치신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한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모든 설명이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에는, ‘비유하는 데 사용된 언어’(비유의 언어)와 ‘비유를 받는 대상’(비유의 대상)이 있다. ‘비유의 언어’는 독자에게 친숙한 언어이다. 이 친숙한 언어를 통하여 낯설고 어려운 ‘비유의 대상’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는 ‘비유의 언어’이고 하나님 나라는 ‘비유의 대상’이다. 겨자씨라는 쉬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다.

문제가 있다.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늘 비유로만 설명하다보니, ‘비유의 언어’에는 친숙하여졌는데 막상 그 언어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 ‘비유의 대상’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세기 독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비유의 언어’가 가리키는 ‘비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비유의 언어’가 워낙 그들에게 친숙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독자들의 형편은 다르다. ‘비유의 언어’ 자체가 친숙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비유의 언어’부터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양이 되셔서 죽음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설명에 익숙하다. 문제는 이 설명을 이해하는 동안 이 설명이 비유라는 것을 잊는다는 것이다.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인가? 아니, 그것은 비유의 언어이다. 그 비유의 언어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의외로 이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없다. 심지어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조차 의아해 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죽기까지 신실하였던 예수를 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

서 인정하셨다고 앞에 설명한 바 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이 ‘비유의 대상’이다. 그 신실함의 절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다. 성경은 예수의 신실함을 제사의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제사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가 대표하는 전 인류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제물, 제사장, 제단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믿음 때문에 인류 전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2절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드라마를 가장 아름답다운 언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롬 3:22)

여기서 한 구절의 번역을 고쳐야 한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하였다고 번역해야 한다. 이 장을 잘 읽었다면 왜 그렇게 번역해야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짧은 한 구절은 제사 비유가 비유하는 바를 잘 요약하였다.

우리의 믿음

그런데 이 구원의 드라마에는 인간 역시 중요한 주인공이다.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은 우리에게 가능태로 열렸다. 그러나 현실태가 된 것은 아직 아니다. 이 가능태가 어떻게 현실태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는 자가 될 때 구원은 우리에게 현실태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믿음을 통하여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처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 한 구절에 구원이라는 드라마의 등장인물 셋이 다 나오고 그들의 역할까지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롬 3:22)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리도 예수만큼 신실해야 하나?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결국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내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길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신 길 위에 올라서서 걸으면 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신 길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주신다. 예수님 뒤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믿음과 사랑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이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믿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한 설명을 통하여 구원의 드라마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은 “믿음”이지만, 원어 피스티스(πίστις)에 더 가까운 번역은 신실함이라는 것도 이해했을 것이다. 다시 로마서 3장 22절로 돌아가 보자. 피스티스로 엮어보는 구원의 드라마는 이렇다.

- “하나님의 의가” =>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탕자 같은 인간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 예수께서 보이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드리고 그 신실함에 호응하는 신실함이다.
- “모든 믿는 자에게” =>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신실함을 따르는 우리의 신실함이다.

이렇듯 구원이라는 드라마는 믿음에 관한 드라마이다. 하나님의 피스티스, 예수의 피스티스, 우리의 피스티스에 관한 드라마 말이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살짝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가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에 대한 신실함인가? 사랑에 대한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같은 말이다.
- 예수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무엇을 드러내었는가? 죽음을 감당한 그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듯,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라는 것이다.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신실함은 결국 사랑에 대한 신실함이다.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행위는 사랑이다. 흔히 믿음과 행위가 대립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에는 늘 행위가 동반된다. 잘 알려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는 대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인용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면에 대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린다고 하며 그 세 가지 면에서 칭찬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살전 1:3)

여기서 “믿음의 행위”로 번역된 부분은 개역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로 번역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믿음의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칭찬한 것은 믿고 나니 일어난 무슨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믿음 때문에 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믿음에 동반된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표현에서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구(행위) 앞에 정관사가 온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관사가 행위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행위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믿음에 따라오는 그 에르곤(ἔργον)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교회에 잘 나가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행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갈 5:6b)

그 행위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아가페라는 말이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드라마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믿음은 출발점일 뿐

이다. 반드시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다. 구원의 현실이 여기 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구체화될 때, 그곳에서 천국은 시작된다.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음악에서 같은 주제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연주되는 형식을 변주곡이라고 부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반복되는데 잘 들어보면 서로 다르다. 구원의 드라마는 믿음과 사랑의 변주곡이다.

교회 공동체와 기본소득제

사회 - 최영 목사(본 연구소 소장)

좌담 - 김지선 목사(서울북 원로, 前정릉사회복지관 관장)

이영재 목사(전주 화평교회, 구약학)

이오갑 목사(케이씨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 본 좌담회는 2019년 4월,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동체 윤리

최 영 올해는 민족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지만, 우리 개혁교회로서는 개혁교회의 창시자 홀드리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교회개혁을 위한 두 차례의 천금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009년은 개혁자 칼뱅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고, 2년 전 2017년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많은 기념행사가 기획되고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러한 일들은 단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썰과리”(고전 13:1)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의하고 무도한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기

념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편한 심정입니다. 저는 올해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카이로스’라 생각합니다.

츠빙글리는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사회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츠빙글리는 삶 전체의 개혁을 목표로 하여 종교개혁을 윤리적 방향으로 전환 시켰던 개혁자입니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사회양극화’ 또는 ‘격차사회’로 특징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도 이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 주목하여 개혁자의 공동체 사상, 돈과 재화의 문제, 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개혁자의 후예들인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칼뱅 전문가이며, 최근에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라는 역작을 출판하신 이오갑 목사님의 책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당시, 『타임(Time)』지가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열 가지 사상” 중 하나로 신칼뱅주의를 꼽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칼뱅주의 경제의 실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칼뱅의 개혁이 오늘날 극심한 양극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여러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밝혀냈습니다. 목사님, 칼뱅의 공동체 사상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이오갑 당시는 칼뱅의 제네바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나 주들도 공동체 의식이 높았습니다. 하나의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불안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보

다는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이나 책무감이 훨씬 높았습니다. 제네바 사회도 칼뱅의 설교와 사역들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연대성, 책임감 등을 명시적으로 깨닫고, 도덕적이고도 제도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칼뱅과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제네바 사회를 보다 공동체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어갔습니다. 부자들의 탐욕과 횡포를 억제하면서 사회에 보다 책임적인 부자들이 되게 했고, 가난한 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했습니다. 질병이나 정당한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가 생계를 책임졌고, 무상으로 치료해주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라는 사회에서 국가와 함께 그런 일들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많이 겪는 현대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마르크스를 다시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죄성이나 근본적 한계를 보지 못했던 마르크스의 견해와 그가 주창했던 사회변화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에 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 불신 같은 것들도 모두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편법이나 교묘한 수법으로 무력화하면, 공동체적인 상생과 조화의 사회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맙니다. 칼뱅은 사람들의 이런 ‘죄성’의 해결이 없는 사회 변화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게 되고, 살기 좋은 공동체의 형성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경제 문제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성의 문제, 영성의 문제로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는 그것과 함께 기술적이거나 제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영재 신앙공동체가 국가라는 타락한 관계망 속에 들어있다는 현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국가 사회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 도시국가라는 사회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저간의 사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과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국가주의에 지배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참된 이웃으로 연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이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현금 사용 문제

최 영 지난 2년간 총회주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교회재정의 사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재정의 50% 이상을 가난한 자와 난민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칼뱅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헌금의 70% 이상을 선교와 구제비로 지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헌금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성격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koinonia)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는 ‘친교’ 또는 ‘교제’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고린도후서 8-9장,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행 2:45)라고 명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구제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교회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참고. 행 11:29-30, 12:25) 고린도후서 8-9장에서는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다른 지역 교회를 위한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구제를 위한 헌금을 “성도들을 위한 연보”, “교제”, “은혜”, “섬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은 서로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4)고 하여 헌금이 교회와 교회 사이를 균등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칼뱅의 제네바 교회는 신약성경의 이런 교회들의 모범을 따라서 헌금의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이영재 한국교회가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헬레니즘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구신학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신학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명구원은 생명 그 자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연보 즉 헌금이 실제 생명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에서도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 있는데 중진교우들이 볼 때는 우리 화평교회 안에는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마 도시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 바깥의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과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최 영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 명을 뜻하는 30-50클럽에 진입했는데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 이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 사회, 격차사회라는 말이 오늘의 시대를 특징짓는 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회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지난겨울에 우리 시찰회에서 지역의 가난한 분들을 위해 연탄배달을 했는데, 봉사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가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우

리 교우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자신을 하였다고 떠벌리거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잘했다고 생각지도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섬겨야 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어 이웃과 동일한 위치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삶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코이노니아죠.

이오갑 일반적으로 ‘성도의 교제’는 성찬이나 코이노니아 정도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분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회가 성도의 교제의 궁극목표입니다.

칼뱅의 제네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병자들도 많았지만, 박해 때문에 피신해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고아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칼뱅은 그들을 도우려고 건물 계단을 세 계단씩 건너 뛰면서 돈을 걷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반병원도 교회의 헌금으로 운영했습니다. 국가가 고용한 두 명의 의사를 제외하고 병원 재정을 모두 담당했고, 빈자들과 병자들을 영접하고 간호하고 돌보는 일들을 모두 교회의 집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집사들의 주요 직무가 병자와 빈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했던 책임자 한 명만 나라에서 월급을 주었고 대부분의 집사들은 모두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50%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재정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는 목사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금에 관한 칼뱅의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칼뱅은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영적 행동이며 최고의 예배 행태로 보았습니다. 헌금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의 신(mammon)을 폐위시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이영재 그런데 칼뱅이 나중에는 제네바 교회에서 잠시 추방되었지요? 왜 그렇게 되었지요?

이오갑 국가의 간섭이나 지배로부터 교회와 목사들의 고유한 권한을 지키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른바 ‘출교/성찬정지’가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시와 교회는 ‘규율’을 시행했습니다. 도시의 혼란이나 무질서를 방지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칼뱅은 여러 규정을 통해 신자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전 로마가톨릭에서 관행적을 행하던 우상숭배나 미신 같은 종교적인 죄, 폭행, 싸움, 사기, 절도, 주취 같은 사회적인 죄, 음란이나 간음, 여장남자나 남장여자 같은 성정체성 혼란이나 동성애 같은 성적인 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는 그런 위반자들을 소환해서 말씀으로 훈계하거나 책망했습니다.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출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를 대표했던 ‘소위원회는’ 이 출교의 판정 권한을 국가가 가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소속이고 목사들의 임직이나 급여도 국

가에서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렐과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은 출교, 성찬정지 같은 것은 교회 목사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 관리 중 한 명의 출교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부활절에 강단에 오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칼뱅과 파렐은 이를 무시하고 부활절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해고되고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고, 칼뱅은 교회의 영적이고 목회적인 권한을 지키려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츠빙글리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칼뱅 같은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주 화평교회의 기본소득제 실험

최 영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2017년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는 불의한 세상을 변혁하고 갱신해야 하는 교회가 그와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목회자들의 평균사례비는 176만 원이며, 월 사례비 150만 원 이하라고 답한 목회자가 46.5%에 달합니다. 성도 5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중 12.1%가 ‘투잡’(two jobs)을 갖고 있지만, 3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 목회자는 2.6% 정도입니다. 지난 2012년의 보고서에서는 목회자 평균 사례비가 213만 원, 월 사례비 150만 원 이하의 목회자는 33.8%라 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 5년 동안 목회자 사회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커녕 사회문제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성서의 말씀이나 츠빙글리나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교회나 사회에 구현하는 데는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세상보다 앞서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침 우리 교단의 전주 화평교회에서 앞서서 기본소득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또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재 몇 년 전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 세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신교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기본소득과 성경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불교와 성공회 쪽에서도 저와 함께 종교 세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기저기 글을 쓸 기회가 주어졌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몇 차례 하고, 성경공부도 하면서 교인들과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쁘게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자기들끼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마침내 일단 매달 첫 주에 상징적으로 기본소득 현금을 하자 결정하여 그렇게 기본소득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 항목으로 자발적으로 현금을 하고, 그렇게 모인 현금을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교인

전체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것에 대해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성이 중요하기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일부는 기본소득을 받은 즉시 곧바로 현금통에 도로 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첫 달에 모두에게 15,000원 정도씩 지급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고, 중고등 학생들도 용돈이 생긴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주일의 학생들 출석률은 100%입니다. 기본소득주일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처음에 거부했던 교우들도 최근에는 기본소득 현금에 참여하여 즐겁게 받아갑니다.

그러던 중 집사 한 분이 기본소득제를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시민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온 세계의 네트워크와 함께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실행했지요. 교회의 이름을 걸지 않고 일반시민을 초청하여 전북대학교 홀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소득 위원회가 발대식 준비 기금으로 1,500만 원을 현금하여 ‘전북기본소득네트워크’가 전북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결정한 일은 전북 도민 중에서 랜덤으로 다섯 명을 선택해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 생활의 변화를 전주시청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소득제를 지역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촉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경기전이라는 전주 한옥 마을에 테이블을 차리고 랜덤으로 추첨을 하여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500명 넘게 몰려왔습니

다. 그렇게 실험적인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물을 시에 제출하고 시장과 면담도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북기본소득네트워크는 한국 네트워크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달에 만 원 회비를 내면 8천 원은 중앙에서 되돌려 줍니다. 시찰회와 노회에 계속 홍보를 하고 기본소득제를 함께 하자고 이웃 교회들에게 권하는데 아직 용기를 내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당회 차원에서 멈추고 만다고 합니다. 왜 돈을 공짜로 주냐는 것이지요.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했는데... 이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기회만 나면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본소득운동을 함께 하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정신과 필요성

최 영 기본소득제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재 성경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예해방에 대한 계약법인 출애굽기 21장 1-7절에 6년을 부려먹으며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시키라는 말씀이 그렇고, 안식년에 관한 기본사상, 희년법에 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적된 경제적 불평등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희년의 가르침 아닙니까? 또 토지 공개념도 성경의 창조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언명되어 있지요. 신명기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많

은 사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본소득은 이런 성경의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제시한 것이지요. 국가가 해야 하는 새 시대의 과제입니다. 교회가 안 하고 있으니 국가의 과제로 축대가 넘어가고 있는 셈이지요.

AI 산업의 발달은 분명 엄청난 노동자 실업사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며, 대부분은 일종의 노예, 실업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회적 불안은 가중되고 유통이 안 되고,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불안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핀란드는 실험을 했는데 우파 정권이 관리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실패한 이유는 2,500프랑, 우리 돈으로 280만 원으로 너무 높이 책정에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2,000명을 대상으로 월 65만 원가량 2년간 지급했지요.

최 영 스위스에서는 약 76% 정도가 반대했지요.

이영재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회나 국가에 제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회로 하여금 교회를 따라올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야말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여 우리 사회를 심한 불평등으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제는 성경의 기본사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영 기본소득헌금을 목적헌금으로 책정해서 했습니까?

이영재 교회 일반재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헌금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재정으로 나눠주는 줄 알고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 일반재정과 무관하게 따로 교인들에게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최 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성경에서 이 헌금은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하에서처럼 우리 안에 공평과 균형을 위해서 예배의식의 하나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전달되고 교육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용돈같이 나눠진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 중에는 교인 한 명 없이 생활보장제나 노회지원금만을 노리는 극소수 목사들의 생계수단이 될 뿐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소득 정신에 대한 곡해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에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는 성경의 기본정신 때문입니다.

김지선 좌담회를 준비하며 자료들을 찾아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기본 소득제가 필요한 세상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면서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도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

여 함께 갖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은 같은데 문제는 사회적인 실천방법의 틀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사회보장제도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본소득 역시 어떤 모델을 - ‘완전한 기본 소득제’, ‘부분 기본 소득제’, ‘음의 소득제’, ‘안심 소득제’ 등 - 염두에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법도 크게 달라지고 국민적인 합의도 달라집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재원 조달 방법과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공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상의 중요한 부분이 될 기본소득이라는 과제는 시급히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오갑 화평교회가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사회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많다 보니 기본소득을 말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먼저 세금이나 내면서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자 목사만 보면서 이야기하지요. 가난한 목사는 안 보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장로님들의 반대가 많다는 것은 근본적인 정신적, 철학적 토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공동체문제를 논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공동체며, 일치를 이루며 사는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 불순종의 죄 때문에 찢어지고,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가족처럼 여기라, 가난한 자는 부자를 미워하거나 질시해서는 안 된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자선도 당당히 받아라, 공

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재화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히 주시는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부자들의 탐욕, 투기, 매점매석, 고리대금 등등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속인다든지, 무위도식한다든지... 아무튼 불공평한 세상은 결국은 돈에 대한 탐욕, 돈 벌려고 아귀다툼하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절대화, 돈의 우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이 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 확산되어 갈 때, 돈은 이웃사랑과 공동체 형성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다! 돈은 단지 돈이고 수단일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누리고 쓰되 가난한 형제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도우면서 쓰라!” 칼뱅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영재 성경을 치열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성서적 근거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이른바 일하지 않고 사는 ‘유한계급’의 사람

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라고 일침을 가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노예나 수공업자나 농민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본소득 정신은 이오갑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모든 목사님들이 기본소득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쪼들리지 않고 농촌 교회나 노동자 교회나 도시빈민 교회에서 조금은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나요?

기장 교단과 기본 소득제

김지선 앞으로 목회와신학연구소가 교회 내의 인적 자원(경제 전문가 포함)들을 초청하여 기본소득의 개념과 틀을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방안과 해법을 교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최저 생활 보장제’(이하 생보)를 ‘기본소득’이라는 틀에 맞춰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보기금은 지교회 예산과 교역자 가족 구성원의 전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역자 사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하였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생보 재원 역시 교역자 사례비의 5%를 생보위원회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열악한 교단 실정으로는 지원하는 데에 역부족일 때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생보 현금을 대체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교회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가칭 기본소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천하는 방안 역시 범 교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의 기본 소득제와는 별개로 교단은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역자의 기본 소득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약 30년 전 제가 경험한 영국의 한 교단의 교역자 사례에 대한 예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목사로 임직을 받으면 목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교역 경력, 학위 등은 관계없이 기본급은 동일하게 하고, 교회가 소재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 도시 교회, 농어촌 교회, 해외 등 - 차등하고, 자녀 유무나 연령에 따라 교육비를 구분하고, 사택 제공과 부대비용은 지역 교회가 감당하는 교역자 사례비 정책을 취하였는데 이 정책이 기본소득 정신과 가까운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단에서는 서구교회의 목사호봉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최 영 화평교회는 기본소득제를 3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이웃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이영재 소문은 들어 알고는 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서강대 앞 청년회관에서 기본소득 총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요(ad fontes!). 확신하는 것은 기본소득제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폭력 투쟁으로 갈등을 빚는 국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 말처럼 국가는 투쟁의 산물인데, 국가가 더 이상 계급갈등의 구도가 아니라 모두가 잘살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

한 도상에 있는 교회로서는 최상의 기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영 이사야 11장 6-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그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묘사했습니다.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는 놀랍고 심오한 방식으로 창조세계를 재정리합니다. 육식동물은 그들의 먹이와 함께 동거하며, 육식본능은 변화되고,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인간(아이들)은 독사와 자유롭게 노닐입니다. 종 상호 간의 폭력은 종식되고 조화로운 삶이 지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은 결코 실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한 왕, 의로운 왕의 통치를 오랫동안 고대하며 그 왕이 가져올 놀라운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여기서는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른바 ‘갑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품격과 존엄을 지니면서도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과 공존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더 이상 혁명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이오갑 그래요. 가진 자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부자들이 부자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 소유할 수 있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남들보다 더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개혁자 칼뱅의 가르침이었지요.

최 영 이 세상의 자본주의 경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서로 물고 뜯는 비참한 사회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런 극단의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나라 혁명’(칼 바르트)을 제시하는데 앞서 말한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오갑 칼뱅도 자선을 개인이 하지 말고 공동체를 통해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직 기본소득 개념은 없었어요. 병원치료는 사회가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도 사회가 해줘야 한다고 보았어요. 제네바는 유럽 최초로 의무 공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남녀, 빈부, 계급 등 차별 없는 교육, 의료, 주거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어도 기본생계 보장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네바 인구가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라 일이 쉬웠을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비해 우리는 잘 발달한 문명의 이기들과 수단을 갖고 있기에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영재 김지선 목사님 제안이 실천되려면 신학생 때부터 신학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또 계속교육을 통해 성경적인 삶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김지선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경제학도가 많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총회가 제도적으로 일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재 기본소득제를 우파 경제학 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공부해야 하는 지점이 거기 있고, 총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좋겠어요.

김지선 개교회에서도 이웃돕기 운동을 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지향점은 이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분명 목적인 금이 많아집니다.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갖고 기본소득을 위한 헌금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오갑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돈을 왜 그런데 써야 하는가.”하는 부정적인 견해는 ‘돈은 거룩한 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는 의식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돈은 별 게 아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설교해야 합니다. 자동차, 쌀, 옷, 물건 등과 다름없다고 설교하고, 필요에 따라 쓰지만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에서 물질과 영적인 문제, 개인과 사회와 분리되는 시점이 자본주의가 한창 발달하던 17, 18세기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에 먹힌 것이지요. 설교의 주제가 영적, 교리적인 데 국한되고, 겨우 한다는 게 가정이나 이웃, 친지 같은 작은 관계들일 뿐입니다. 돈이나 경

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을 통해 신앙 이야기를 해야 하고, 사회문제들을 통해서 영성을 말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경원시했던 문제들을 우리 생각의 범주 속으로 끌어들이야 합니다. 빈부격차, 돈, 경제를 둘러싼 갈등과 모순들, 고통과 불안들...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 권세에 맡겨두면 교회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창조주이자 구속주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시켜야, 비로소 세상에 정의와 평화, 공평, 진정한 자유가 이뤄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영재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물질을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기본소득의 성서적 성격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좀 더 큰 틀에서 기본소득제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꿈꿔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비판한 것처럼, 방글라데시 같은 국민소득이 낮은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본소득 논의가 국가 단위를 넘어 유엔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잘 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를 돌보는 일이 일어날 때, 진정 ‘오이쿠메네!’가 실현될 것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멀지 않은 장래에 엄청난 실업문제를 낳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전체 세계의 안정에 큰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김지선 지금부터라도 교단 총회가 제도적으로 은퇴하신 분들과 현직에 계신 분들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기본소득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 영 네, 정말 우리 교단 내에 기본소득 위원회가 설치되어 우리 안에서부터 공평과 균형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교회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세상의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학과 세상을 논하고 성서를 주석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모임이 많아진다면, 또한 오늘 논의한 기본소득 같은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노회 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면 개혁자들이 원하고 걸었던 그러한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칼뱅과 오늘의 한국사회

이오갑

케이씨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칼뱅은 그가 살았던 16세기만이 아니라 현재 21세기를 위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서양이나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칼뱅이 자신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과 생명을 위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말했다는 데 있다. 그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한 사람이었다. 그가 했던 말들인 설교나 성서강해도 모두 속기사들에 의해 기록되어 책으로 남아 있다. 그의 글들은 단지 교회나 신학, 성서에만 관계되지는 않는다. 『기독교강요』나 성서강해 같은 책들은 그렇다 쳐도, 현재 3,000편 가량 남아 있는 설교들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담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한 얘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 놀랄

정도이다. 그때의 부자들은 지금 부자들과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내용적으로는 같은 일들을 하고, 같은 행태를 보였다. 당시 빈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갔다. 권력자들의 속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칼뱅이 그들에게 했던 말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의 그대로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칼뱅이 제네바를 넘어서 그의 사상이 전달되었던 나라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뉴잉글랜드 등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있다. 개인이나 한 교회의 개혁과 건설만이 아니라, 한 사회, 한 나라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고 사상이라는 뜻이다. 사실 그런 나라들의 번영이나 성공이 꼭 칼뱅과 교회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힘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런 나라들 속에서 칼뱅의 정신적 유산과 전통이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공동체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평, 인권, 특히 남녀평등이나 약자보호 정신 같은 것도 그렇고, 부자들이나 강자들의 사회적 책임, 기부문화 같은 것들도 칼뱅의 가르침에 주요한 기원을 두었다.

필자는 특히 그런 점들을 그의 경제 사상과 실천에 관한 최근 저서인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 그의 경제사상과 자본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¹ 칼뱅은 당시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제네

1 이오갑,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 그의 경제사상과 자본주의』 (시흥: 한동네, 2019).

바에서 기독교적인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평등과 평화, 개인들의 자유와 복리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바의 자본주의를 보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자본주의로 이끌어가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을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목적으로 경제를 수단화하려고 했다. 물론 그것이 다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네바가 상대적으로 인간적이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데, 그리고 정의나 평화, 자유라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다른 나라나 도시들의 모범이 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음은 사실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칼뱅이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았다.”는 것이고, 그런 그의 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한국사회에 필요하고, 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이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까닭은 그 사상의 내용이나 근대 사회에 미쳤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한 그런 것들을 힘 있게 만드는 그 사상의 성격 때문이다. 그 성격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중심주의(théo-centrisme)’라고 할 수 있다.² 신중심주의란 삶이나 사상에서 신을 중심에 놓고

2 이하 칼뱅의 신중심주의와 관련 인용문들은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특히 13장 “칼뱅은 왜 신중심주의인가?” 그리고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한국교회,”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편 (서울: SFC, 2010), 7장 등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칼뱅주의의 영원한 모토라고 할 “오직 하나님께 영광(A Dieu seul la gloire)”도 신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만한 존재이므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의 신학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삶 전체의 목표이기도 했다. 가령 교인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칼뱅이 1537년 최초로 작성한 교리문답(Catéchisme) 첫 문단이 이렇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주의 존엄을 알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 존엄을 앎으로써 그분을 모든 것 위로 높이며, 두려움과 사랑과 존경으로 영광스럽게 합시다.” 1541년의 두 번째 교리문답도 첫 조항이 이렇다.

목사 :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 : 왜 그렇게 말합니까?

어린이 :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두신 목적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광에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칼뱅의 신학과 개혁신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고백이고 모토인데 실은 칼뱅 자신이 그렇게 살고 사유했던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후계자였던 테오도르 드 베즈는 칼뱅

이 죽은 3개월 뒤에 『칼뱅 전기』를 펴냈다. 거기 보면 칼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던 ‘신중심적’ 인간이었다. 칼뱅의 그런 인격과 삶은 자연스럽게 사상으로 이어졌다. 그의 사상은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은 그의 사상에서 출발점이자 목표였다. 또한 그의 하나님 사상은 인간, 그리스도, 성령, 교회, 사회 등 개별적인 교리들에 깊이 개입해서 그것들의 독특한, 칼뱅적이라 할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칼뱅연구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 그의 신중심주의였다는 점도 이해될 만하다.

그런 신중심주의는 칼뱅의 후계자들인 개혁주의 교회들과 사회들에까지 이어져서 그것들의 특징이기도 했다. 칼뱅의 유산을 받은 교회와 사회들이 모두 거기서 정체성과 일관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언어나 문화, 인종이 다른 사회라 할지라도 칼뱅과 개혁교회 전통을 받아들인 한에는 공통적으로 신중심주의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20세기 말 이후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개혁교회와 사회들 속에서 여전히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칼뱅의 신중심주의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가 자칫 불의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위험을 방지할뿐더러 거기로부터 구해내기까지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뱅과 개혁교회가 제네바의 개인과 사회, 더 나가서 근대 여러 사회들의 발전을 도왔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의와 모순들과도 싸

왔던 힘도 거기서 나왔다.³

칼뱅의 신중심주의는 세상의 어떤 것을 신성시하거나 절대화하는 풍조를 거부한다. 거기에 대해 앙드레 뒤마는 말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미신적 우상숭배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거룩하고 신적인 것으로 숭배할 때 거기에 맞서는 명백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이다.”

간단히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지상의 어떤 것에, 어떤 인물에, 어떤 이념에, 어떤 체제에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세상의 어떤 것도 신적인 것이 아니므로, 신으로 자처할 수 없다. 자기절대나 무한주권을 주장할 수도 추구할 수도 추종할 수도 없다. 왕이나 통치자가 자기 전능의 환상을 가지고 권력을 독점해서 모든 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칼뱅의 신학이나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칼뱅 전통의 개혁신교회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런 점이다. 그들은 절대주의 체제와 독재정권 하에서 폭군들과 독재자에 저항하고 희생하면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가령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한 국가, 한 국왕, 한 종교(un Etat, un Roi, une Religion)”를 내세우며 자신들을 탄압했던 절대주의 체제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서 신앙과 예배, 양심의 자유를 얻어냈

3 이하 칼뱅 신중심주의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관해서는,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53-58, 394-96, 그리고 이오갑, “한국교회, 존재의 문제와 변증법적 신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참조.

고, 프랑스 대혁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근대 민주주의 공화정의 건립을 도왔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스페인의 지배에 맞서 싸워 독립을 얻어냈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왔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나 잉글랜드 청교도들도 국가의 지배와 간섭에 대항해서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다. 가령 올리버 크롬웰은 시민과 의회를 대표해서 스튜어트 가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워 민권과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했다. 본국의 식민지배에 대항해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던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도 빼놓을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항했던 칼 바르트나 고백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칼뱅의 후예들이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독한 흑백분리주의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위해 싸웠던 알렌 보삭 같은 목사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로 박해받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 등 이른바 ‘옥중성도들’,⁴ 70년대 이후 군부독재의 종식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투쟁했던 장로교회의 문익환, 박형규 등의 목사들과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칼뱅의 사상적 교회적 DNA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칼뱅의 신학적 특징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한국교회와 사회에도 더욱 필요하다. 즉 칼뱅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나타나는 지고하고 존엄하며 초월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오늘 현대 한국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4 박정신, “체제에 맞선, 체제에 순응해가는, 그리고 체제의 기독교: 역사학에 기댄 한국기독교 인식,” 『목민강좌 열한 번째 자료집』 (2014), 44.

가진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현재 한국사회는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던 독재정치를 무너뜨린 지 오래이다. 그래서 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를 구현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초법적인 권력행사가 여전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태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민주국가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시민들을 “개, 돼지”에 비유했던 고위공직자도 있었지만 국민을 통치나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도 상존한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런 정치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치보다 더 심각한 건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지만, 우리 경제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부와 자본을 가진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반면에 중산층은 와해되고 빈민들은 더욱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신자유주의의 문제이다.

20세기 말 공산주의 몰락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로 통합되고 단일 경제권이 되었다. 그 속에서 금융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과 자본의 이동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국가 간의 장벽들, 국가 내에서의 각

종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이윤을 극대화해왔다. 경영의 목적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고액연봉을 대가로 얻는 것처럼 된 것도 그런 궤도 위에서의 일이다. 몇 해 전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이, 판매와 수익 확대를 위해서라면 조작과 속임수까지 동원하는 실정이다. 정직이나 신뢰, 시민들과 경제 전체, 더 나가서 환경까지 고려하는 윤리경영 같은 것들은 액세서리나 홍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흔히 오너의 경영을 비판하지만, 책임 경영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말들도 많다. 경영자의 연봉과 재선임을 위해서는 주주들과 다른 임원 등 이익공유자들의 신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임기 동안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 고배당을 위한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현재와 미래의 기업과 소비자들, 더 나가서 경제 전체가 져야 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비정규직, 파견근로가 늘어남으로써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필연적이다. 그런 결과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가 1%의 소수에게 편중되는 반면 99%의 국민이 가난해지는 심한 양극화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신자유주의 경제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물신주의나 배금주의, 경제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물질이나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종하는 풍토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 대다수의 삶이 어떻든지, 자기들만 벌어들이는데 급급하다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윤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자들의 신뢰 같은 것들도 하찮게 여긴다면, 이미 돈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부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신뢰를 잃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나 양심 같은 걸 쉽게 내던지는 건 부자들만이 아니다. 아마 부자들은 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는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도덕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돈에 희생되고, 인간이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런 정도라면 돈-경제가 신이고, 그것도 유일신이 되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칼뱅 전통의 교회는 여러 피조물들의 하나일 뿐인 물질-돈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사람들이 지상의 물질에 신적인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은 그것들의 신민으로, 종으로 전락해가는 것은 칼뱅의 관점에서 우상숭배이며, 이교제의이고, 신성모독이다.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자 공격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⁵

돈이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현실에서, 돈이 인간성을 망가뜨

5 이하 경제에 관한 칼뱅의 사상과 실천은 이오갑,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등 참조.

리고 사람들의 삶을 곤궁하게 하는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돈이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말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임에만 신경 쓰면 다 되는 걸까? 그것은 경제나 사회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고 정신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씀의 종들이 무력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교회의 문제라는 뜻이다.

칼뱅 당시에 이미 그런 문제가 공동체를 병들게 했고,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때는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무렵이어서 제네바 역시 그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칼뱅은 정당한 경제를 기반으로 일반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그의 사상과 실천들은 지금까지 여러 문헌들과 저술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해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칼뱅의 대부업에 관한 입장을 보자. 그는 당시 고리대금업자 등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상하려는 시도에 반대했다. 그럼으로써 사회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민들이나 영세 상공업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부자들은 제네바의 이자율(5%)이 낮다면서 더 높은 도시들로 돈을 옮긴다는 위협까지 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칼뱅과 목사들은 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 자작농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했다.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교회는 언제나 인상을 억제하는 편에 섰다.

또한 칼뱅은 부자들-자본가들의 투기와 매점매석에 대해서 강력

하게 비판했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라면 도시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매점매석이나 투기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당시 제네바는 사보아공국과 휴전 상태였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지로부터 망명자들의 유입으로 인구도 급증했다. 도시 봉쇄나 흉년 같은 재난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특히 밀과 같은 식량에 대한 투기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상황에서 칼뱅과 목사들은 식량이나 생필품들의 매점매석을 규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섰다. 그런 목사들에게 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목사들은) 대중들의 불만을 이용하고, 거기에 맞장구쳐서 그들을 부추긴다!” 그런 말들에 대해 테오도르 드 베즈의 대답은 유명하다. “만일 목사들이 침묵한다면 ‘짖지 않는 개’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경제가 주(主)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회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이고, 그 맨 앞에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신 종들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그의 영광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것들이 절대화 전능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을 때 교회 역시 눈을 감고 있어야 할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제일 신조로 하는 개혁교회들은 바로 그런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영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교회, 봐왔던 교회, 보고 대응하고 대항하는 법을 찾았던 교회,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이고, 그 중심에 칼뱅의 정신과 영성이 있다.

3·1독립선언서의 신학적 조명

이종철

빛과생명교회 목사, 신약학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조선 민족의 주권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독립선언’을 넘어, 민족 대의와 민족의 미래를 밝힌 ‘인권선언’이요, ‘세계시민선언’이요, ‘평화선언’이요, ‘민주공화선언’이다.¹ 독립선언서의 정신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겨 있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100년 전 기초된 선언서이지만 근세기 한반도에서 나온 선언들 중 가장 중요한 선언이요, 100년을 넘어 두고두고 새겨야 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하기에 독립선언서는 단순히 일제에 대한 항거의 한 수단 정도로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선언서의 신앙적, 신학적 의의와 근거를 적극적으로 살폈어야

1 좌담회,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카이로스인가,” 『말씀과교회』 52 (2018), 81.

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교회의 3·1운동 참여 양상만 분석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글은 3·1독립선언서를 성서의 시각에서 근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 신학적 의의를 밝히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1. 민족의 탄생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² 로 시작하는 독립선언서 1,762글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민족(民族)’이다. 총 13회 ‘민족’이 언급되고 있다. “민족자존(民族自存)”,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민족적 존영(民族的尊榮)”, “민족적 양심(民族的良心)”, “민족적 독립(民族的獨立)”, “문화민족(文化民族)”, “민족적 요구(民族的要求)”, “민족적 정화(民族的精華)”, “민족(民族)의 정당(正當)한 의사(意思)”. 독립선언의 주체는 민족이다. 독립선언서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이 ‘민족’이라는 이름의 사용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족을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이하 3·1독립선언서는 필요에 따라 원문과 현대어 번역,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민족은 단순히 혈통 상의 단일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립선언서는 그 선언일을 “조선건국 4252년 3월”이라 하여 단기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한민족(韓民族)은 반만년 동안 비교적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 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이미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 있고, 역사적 부침에 따라 한족, 몽골족, 여진족, 일본족이 일부 섞여 들어왔다. 이는 성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과 같다. 비평적 성서 해석은 창세기를 각각의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의 합류로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야곱에게서 나온 한 핏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열두 지파 연맹체로 보기도 한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당시 “수많은 잡족(mixed people or race)”(출 12:38)이 함께 했다고 보도한다.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는 미디안 족속, 헷 족속, 기브온 주민 등 가나안 땅의 가난한 민중들이 해방전쟁에 함께 했고 이들이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다. 성서는 당시 중근동을 떠돌던 유랑계층을 지칭하던 ‘히브리’라는 사회학적 용어가 단일 민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히브리’로 전환되어 가는 역사이다.

이처럼 민족이라는 구성체는 혈통의 단일성도 중요하지만,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며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경험하며 형성된다. 선언서는 이 선언이 “5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반만년은 한반도 땅에서 온갖 풍상과 영광을 겪으며 형성된 한민족의 유구함과 주인 됨을 드러내는 숫자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

서 우리를 지켜주니”라는 선언서의 마지막 문단은 이 땅에서 지난한 역사를 함께 했던 조상들과 연대성을 표하며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일제의 강점에 의해서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것은 반만년 역사상 민족이 당한 가장 아픈 시련이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민족’이라는 명칭이 없었다. 민족은 영어 ‘nation’의 번역이다. 1900년 처음으로 『황성신문』에 이 단어가 등장했고, 1905년 나라의 외교권을 잃고 난 후 ‘국민’과 구별하여 ‘민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³ 이전에는 단지 ‘백성(民)’으로 불렸을 뿐인데 이는 비주체적인 명칭이다. 왕이나 권력자의 통치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의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는 선언은 민족의 출범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대선언이다. 한민족은 역설적으로 제국주의에 강점당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생명이 깨어났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선언서는 그 고통을 토로하는데 그 고통은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자주성을 잃어버린 민족 생명의 고통이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입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실로 삼일절은 민족

3 권보드래,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3 (2007), 189-213.

의 부활이요, 탄생의 날이라 할 것이다. 이는 “음울(陰鬱)한 고소(古巢)” 즉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 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흔쾌(欣快)한 부활(復活)”을 이루어내자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광복절은 이 민족의 자주성이 실체적으로 회복된 날이요, 반면에 분단은 다시 민족 생명의 허리가 잘린 것과 같다. 3·1독립선언서의 민족 자주 선언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민족사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민족이 하나가 되기까지 독립선언은 완성되지 않았다.

민족의 정당성이나 민족 사랑은 신학적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신약시대 이후 신앙인들은 민족, 국가,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늘나라를 향해가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은 민족주의를 세속적이라 폄하하기 쉽다. “그리스도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은 타당한가? 일제 강점기 선교사들은 선교와 정치를 분리하려 무던 애를 썼다. 그러나 민족의 정당성은 이미 성서의 창조기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은 민족을 단위로 실현되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명령은 유지되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창 9:7) 이 명령에 따라 흩어져 번성하던 민족들이 모여 하나의 제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상적 세계는 민족 단위로 흩어져 번성하는 것이었다. 권력이 한 민족에게 집중되는 제국주의는 신의 명령에 도전하는 악이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흘러간 하나님의 복과 구원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단위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민족 생명의 자주성과 번성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이기에 출애굽 해방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택 신앙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갇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암 9:7) 출‘애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갇돌’, 출‘기르’의 사건도 있었고, 모든 민족의 해방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한복판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nations)을 한 혈통으로부터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행 17:26)라 선포한다. 이는 정확히 민족에 대한 정의이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이 조국과 민족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하나님은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 생명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신다. 민족사랑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민족은 가족과 같이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한계이다. 소극적으로는 복음의 전파와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복음은 대부분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립선언서의 33인 중 하나인 신석구 목사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신앙체험은 그 신학적 의미가 크다. 신석구 목사는 독립선언서 참여를 요청받고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도 천도교 세력과 연합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중 2월 27일 새

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4천 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⁴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한 것을 죄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를 잃거나, 방치하거나, 고양시키려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은 신학적으로 죄가 될 수 있다.

2. 인권선언, 민주공화 선언

민족의 주체는 민중(民衆)이다.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한 “조선인(朝鮮人)”은 다름 아닌 “이천만 민중(二千萬民衆)”이다. 선언서는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등은 제국주의 세력과 여타 민족들 간의 차별 없는 평등을 말한다. 내재적으로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양반과 민중의 평등이다. 조선 개국 5백 년, 대한제국 패망 10년 만에 대한인들은 왕실과 양반을 잊었다. 선언서 어느 곳에도 입헌 군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주체는 조선 민중이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自主民)을 선언한다”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를 향하는 외침이지만, 내재적으로는 군주가 아니라 조선 민중이 주인이라는 선언이다.

3·1독립선언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혁명선언이다. 거사가 일어난 지 30일 만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며, 임

4 김승태, “3·1운동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주제해설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8), 66.

시헌장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시작하였다. 우리 헌법 또한 이를 계승하여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정하였다. 이런 이유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가장 고전적인 혁명 정신이 3·1운동과 그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싸움의 주요 대상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부적 요인이었지만, 내재적으로 국가의 주권은 이미 민중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공화정(republic) 또는 공화주의는 혁명과 독립 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이 군주정치에 반대하며 내세운 정치체제요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이보다 분명히 모든 시민의 주권과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정치체제로 링컨의 “인민의(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라는 말에 잘 압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3·1독립선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선언이었다.

공화정의 토대는 인권에 대한 개념 규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탄생한 주요한 세계 인권 선언문들이 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발표된 ‘미국독립선언’은 천부인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곧 프랑스 인권선언 또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

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3·1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선언이다. 선언서는 민족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 “우리는 원래부터(固有, 고유)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민족의 권리는 민중의 권리, 시민의 권리로도 바꿀 수 있는데 민족이라는 전체는 개별 인간의 총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에는 평등, 자유, 생명, 행복, 문화 추구권이 담겨야 하는데 독립선언서는 이 항목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 민족이 독립을 추구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려면,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이라 하여 개인의 개발과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1:27, 9:6)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그가 주인이든 노예든, 왕이든 백성이든, 백인이든 유색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제국의 시민이든 약소국민이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부르주아지든 프롤레타리아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성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엄하다. 이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성서의 정신에 근거하는바, 각 개인은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가지며, 존엄하기에 어

떤 제도나 위력으로도 그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사회계약론은 이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하는데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해 그 합의에 의해 구성된 것이 정부이고 권력이다. 국민은 계약에 의해 권력을 세울 수도 있고, 계약을 파기한 권력은 해산을 명령하거나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평등과 차별금지가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차별 금지로부터 시작하였다. 유대인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을 이방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칭의(稱義) 복음의 핵심이다.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인 대자유선언은 이를 명백히 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자유의 복음은 민족적 차별을 넘어, 신분과 성적 차별까지 넘어서고 있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이다. 왕이나 민중이나, 부유한 이나 가난한 이나 모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된다.

구약성서의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상은 자칫 신정정치나 철인독재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정통치가 제기된 근본 이유를 호도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상은 인간 왕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는바, 왕이 우상이 되고, 인간 권력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 왕이 무능력함을 보인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상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하나님만이 왕이고 그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상을 부르짖었던 것은 권력자들과 그에 기생하는 자들이 아닌 자유하는 예

언자들과 혁명을 꿈꾼 열심당들이었다. 교회사에서 박해와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주적 감독제라는 제왕적 조직과 사제계급이 등장했던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종교개혁은 이를 바로잡고 만인 사제론을 주창했던바 이는 사제의 민주화였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인 공화정이다. 현존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가 소수 억압, 비효율, 우민화를 양산하기도 하지만, 독재와 불평등과 불의를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발현하기에는 이만큼 탁월한 제도도 없다.

3.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

3·1운동은 총칼을 든 일제 앞에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였다. 제국주의의 강력한 무력 앞에 비폭력 저항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평화적 시위였기에 당시 인구의 10%인 200만여 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약속이 담긴 공약삼장에서는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제의 강점에 의해 인명살상, 재산손실,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지 말라는 것은 숭고하면서도 낭만적이기조차 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의 정신이 여기에 투영되었던 것일까?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은 선언서 전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오랜 사회와 민

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우리 선열들이 만세시위를 스스로에 대한 참회와 각성의 계기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삼장은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으로 가지 말고 평화적 시위를 하라는 요구이다.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촛불시위의 원조는 바로 이 3·1운동이었다. 평화적 시위가 가진 힘은 정당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대규모 군중동원이 가능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일제는 잔인하게 탄압하여 1,500여 차례에 이르는 전국적 시위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하고, 46,948명이 체포되었다.⁵ 3·1운동이 이후 독립운동의 거대한 분수령이 되고, 한국 근현대사를 이끄는 정신적 동력과 미래의 청사진이 된 것은 비폭력 평화시위가 그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예수 운동은 평화적 운동이었으며, 초대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파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가 로마제국의 막강한 힘에 의해 약소민족을 억누름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였다면,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na)는 십자가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건설되는 평화였다. 초대교회는 오른편 뺨을

5 이 통계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에서 근거하였다.

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폭력적 요구에 대해서 원편 뺨마저 돌려대며, 십 리까지도 동행하는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을 보였다(마 5:39-41). 원수를 대적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숭고한 원수사랑으로 나갔다(롬 12:12, 20-21). 군림하고 주관하는 이방 권력자들의 길이 아니라 섬기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기부정의 길로 갔다(막 10:42-44). 이는 ‘이에는 이’ 식의 폭력의 논리로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폭력이라는 악 자체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다. 이는 또한 약자들이 강자들에 대항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강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약자는 도덕성을 무기로 저항한다. 여기에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인 ‘아힘사(불살생)’의 정신, 곧 사랑을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며, 같은 생명체에게 차마 폭력이라는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생명 사랑의 정신 또한 담겨 있다 할 것이다. 3·1운동의 비폭력과 평화는 성서의 평화정신과 생명사랑에 잇닿아 있다.

독립선언서에서 많은 부분 언급되고 있는 것은 ‘동양평화’이다.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세계 평화와 인류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조선의 독립을 한중일의 동양평화, 나가서는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동양평화라는 말은 이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서구열강의 침략에 맞서 한중일 동양 삼국의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 주창되었다. 일본은 이를 자국 팽창의 계기로 삼는 야만성을 보였고, 안중근이나 독립선언서는 이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다. 선언서는 당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조선 독립이 동양평화의 기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통일도 남과 북의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 간의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질 때 남북 간의 평화도 통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이며, 세계평화 그 자체이다. 함석헌 선생은 한국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규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반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조응할 때 가능하다.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여순지역에 현대의 유럽연합과 유사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공동체를 꿈꾸었듯이 대한민국은 더 개방적이어야 하며,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민족비전을 가져야 한다.

평화는 이미 성서에서 즐기치게 제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나일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처럼 바람잘 날이 없었다. 그들의 인사가 “샬롬(평화)”이 될 정도였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평화의 낙원에 대한 이상을 제시해 주신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사 2:4) 정확히 핵과 군사력으로 참여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평화의 비전을 말씀하신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6-8)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은 매우 국제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중근동에 평화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사 19:23-25) 마치 한중일 삼국의 동양평화를 예견하는 듯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성취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던 날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평화는 성서적 가치이며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이다. 3·1독립선언서는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민족 이기적인 관점에서 찾지 않고, 동양평화라는 거시적, 이타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보다 도덕적 명분에서 앞서고 있으며, 한민족의 시각을 동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향하게 만든다. 평화는 단순한 전술적 선택으로 낮추어서는 안 되고 민족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6.25 한국전쟁은 평화가 아닌 폭력으로 민족을 통일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현재도 진행 중인 남남갈등, 남북갈등 또한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종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3·1운동의 평화정신이 우리 역사에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속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무책임할 순 있다. 그러나 폭력의 대가는 크고, 폭력은 또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부른다. 평화가 인간적 도의에 합당하며, 평화는 모든 민족과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 현실이다. 폭력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평화의 길이 실패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약육강식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독립선언서의 평화정신은 우리 민족이 계승해야 할 핵심적 가치이다.

4.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명

독립선언서 곳곳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문화창달을 통한 세계 문명에 기여하려는 의지이다. 민족이 예속당한 고통으로서 든 것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이다. 대한민국을 “우리 문화민족”이라 부르며, 새

로운 세상의 도래를 ‘문명의 빛’이라 표현한다.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민족 독립을 성취한 후 이루고 싶은 민족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독립선언서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군사 대국화나 경제 대국화가 아닌 문화 대국화이다. 이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소망했던 문화대국과 일치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문화대국화를 꿈꾸는 이유는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에는 이처럼 우리 민족이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세계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한 나라만을 복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전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창 18:18)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해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웃 민족들이 하나님 신앙을 흠모하여 앞다투어 야훼를 찾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셨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설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사 2:2-3)

이 언약사상, 선민사상을 역사 속에 실천한 민족이 아메리카합중국, 곧 미국이다.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그들은 스스로를 광야로 심부름 받은 사명자로, 언약 백성으로, 산 위의 도시(마 5:14)로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1630년 아메리카로 향하는 아벨라 호 선상에서 청교도들에게 민족의 비전을 밝히는 설교가 식민지 주지사 존 윈스롭(John Winthrop)에 의해서 선포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당한 이유는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이 사역에 있어 우리는 마치 한 사람처럼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애정으로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존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밝히고 있는 이 설교는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를 밝히고 이끄는 모범국가, 지도자 국가로서 인식한다.

3.1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독립선언서에서 언급된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는 문장은 바로 이 민족자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는 제1차세계대전의 패전국 식민지 민족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승전국 지위에 있던 일본이나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외면하였다. 미국은 더 나아가 남북 분단과 이후 한반도 갈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더디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산 위의 도시로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는 민족비전이 제국주의라는 민족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김구 선생이 왜 정치, 경제, 군사 대국이 아닌 문화 대국을 꿈꾸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실로 문화대국만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속 국가나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라 볼 때 민족적 비전은 필요하다. 성서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역사상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미 실험이 되었다. 민족적 사명은 필요하고, 그 사명을 각성한 민족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독립선언서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문화대국의 꿈을 선포하고 있다. 산 위의 도시처럼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민족적 사명이다. 독립선언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세계 문명을 비추는 우리 문화의 꽃으로서의 탁월한 과학기술, 독창적인 예술성, 정의와 인도의 정신, 평화와 연대, 공존과 상생의 문화, 자유로운 정신의 발현, 민주주의의 유산, 사랑과 나눔의 형제애적 공동체성 등을 들 수 있다. 함석헌 선생의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 또한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세계사에 기여해야 할 우

리 민족의 비전이 될 수 있다. 100년 전 선포된 독립선언서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현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정신과 사명이 담겨 있다.

츠빙글리의 신학적 사회윤리의 주요 동인(動因)들*

정권모

본 연구소 전 소장, 신학윤리

I

1984년 1월 27-2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사회개혁자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탄생 500주년 기념축제가 있었다. 세계 각국 거의 모든 교회 대표들이 교리적 장벽이나 신앙고백의 차이를 넘어 이 잔치에 참석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대표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측에서 초청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안 갔던지, 못 간 때문이었다. 우리의 공식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탓에 당시 이곳에서 유학 중이던 필자가 한국교회 대표로서 이 기념축제에 동참할 수 있었다.¹

* 『전환기의 민중신학』 (죽제 서남동목사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한국신학연구소 1992)에 게재 되어있는 글을 부분적인 자구수정과 함께 각주 표기 방식을 조정하여 옮겨 실는다.

1 당시 기독교장로회 총무가 본대회에 서열 세 번째의 해외 귀빈으로 초청되었으나 당국의 여권발급 거부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필자가 이 모임에 초청된 것이다.

2년 뒤인 1986년 6월에 제네바에서 베풀어진 칼빈에 의한 제네바 교회개혁 450주년 기념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이 모임에는 한국 장로교회 각 교단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큰 규모의 축하사절단을 보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한국교회의 츠빙글리에 대한 무관심과 칼빈에 대한 편애’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이었다. 츠빙글리와 칼빈은 개혁-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과 신학의 두 지도자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와 칼빈만 생각한다. 개혁자로서의 츠빙글리라는 이름과 그의 개혁을 위한 신앙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 츠빙글리의 신학과 윤리적 유산은 과소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있음을 본다.

츠빙글리는 “루터와 같은 도덕적 힘”을 갖지 못했다는가², 그의 예배는 “가장 미흡”하고 “가장 슬픈 영향을 후대에 남겼다”³는 식의 평가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 개혁-장로교회는 츠빙글리 없는 장로교회가 된 셈이다. 이 글의 목적은 로허(Gottfried W. Locher)교수와 리히(Arthur Rich) 교수의 츠빙글리에 대한 안내를 따라 그의 신학적 사회윤리학의 주요 동인(動因)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

II

츠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 알프스 산골 토겐부르크

2 참조. J. W. C. Wand, 『교회사 - 근세편』, 이장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1), 40-41.

3 참조. 『기독교사상』, 1984년 12월호, 68.

(Toggenburg)지역 빌트하우스(Wildhaus)에서 출생했다. 마르틴 루터보다 꼭 두 달 늦게 10남매 중 셋째 아들로 세계사에 등장한 것이다. 그의 부친은 조부 이래 먼 거리를 오가며 행하는 상업에 종사하며 지역대표(Gemeindepräsident)로서 지방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어릴 때부터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하는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당시 성직에 종사하던 삼촌에 의해 그가 열 살 나던 1494년 바젤과 베른에 보내져 라틴어를 공부했다. 이어 1506년까지 바젤, 베른, 비엔나 등지에서 신학과 철학과정을 이수했다. 츠빙글리의 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라면 이 기간 중 그가 중세 스콜라신학에 실망하여 당시 유럽무대를 풍미하던 인문주의에 심취해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뷔텐바흐(Wythenbach)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비판적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⁴

신학수학을 마친 바로 그해, 츠빙글리는 성직자로 서품받아 1506년 22살의 나이로 글라루스(Glarus) 지역교회에 부임, 목회를 시작했다. 1516년까지 10년간의 이 지역 목회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513-15년 기간에 이태리 북부지역에서 벌어진 교황군과 프랑스군과의 전투에 스위스 용병의 군목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이다.

4 츠빙글리의 생애에 대하여. Gottfried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im Vergleich mit derjenigen Martin Luthers und Johannes Calvins,” *Huldrych Zwingli in neuer Sicht* (Zürich, 1969), 182-84; Hans Ulrich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227(1981), 5-8; H. Erhart, “Zwingli,” Erwin Fahlbusch(hg.), *Taschenlexikon, Religion und Theologie* 4., 3.Aufl. (Göttingen, 1978), 280-82.

교황군을 지원했던 스위스 용병부대는 마리그나노(Marignano) 전투에서 참패했다. 이 패전 경험을 통하여 츠빙글리는 용병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용병은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남의 생명을 능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짓이라고 그는 생각했다.⁵ 이와 같은 뼈아픈 경험으로 용병제 폐지는 츠빙글리에게 종교-사회개혁의 주요주제의 하나가 되었다.

1516년부터 약 2년여 동안 계속된 아인지델른(Einsiedeln) 지역 묵회 기간에 그는 성경을 원어로 철저하게 다시 읽고 희랍교부들의 고전을 탐독했다. 똑같은 비중으로 인문주의적 전통을 이해하는 데도 게으르지 않았다. 이 기간에 에라스무스와의 남다른 교분은 역시 주목할 점이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깊게 공부하고, 이 성서와의 만남이 휴머니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⁶ 츠빙글리의 신학과 사회윤리를 말할 때 그의 사상적 특징으로 인문주의적인 동시에 복음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면서 인문주의적임을 지적한다.⁷ 이러한 그의 신학적 사고는 아인지델른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518년이 저물어가는 12월,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성지가 된 취

5 Robert Heinric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ssmünster in Zürich* 2. Aufl. (Zürich, 1985), 16-18;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7.

6 H. Erhart, “Zwingli,” 281;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5.

7 Arthur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450 *Jahre Zürcher Reformation, Sonderdruck aus ‘Zwingliana’* XIII., Heft 1. (1969), 69.

리히 대성당(Großmünster)의 청빙을 받은 츠빙글리는 1519년 1월 첫 주일부터 복음적 설교를 시작했다. 이제 막 34세가 되던 때였다.

그의 취리히 목회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나는 교회의 교조적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미사 중심의 예배를 성서 전체에 대한 증언을 겨냥하는 설교 중심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개혁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교회부패의 추방과 함께 츠빙글리는 가난추방과 용병제도의 폐지와 같은 사회개혁에 전력투구했다.⁸

츠빙글리 앞에 닥친 취리히 목회에서의 첫 시련은 1519년 여름, 전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였다. 페스트가 취리히 중심가에 발병하자 그는 온천에서의 휴양을 중단하고 즉각 돌아와서 환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 수 주간을 생사불명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⁹

그러나 페스트 창궐이라는 그의 목회적 시련은 츠빙글리의 삶과 신앙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페스트의 참상과 죽을 뻔한 그의 경험은 인간의 한계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심취해 있던 인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했

8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43-45;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6.

9 Anna Zwingli-Reinhart, “An ihre Tochter, Regula, nach dem Tod ihres Mannes,” in: Eduard Benz & Hans Eggenberger, *Huldrych Zwingli(1484-1531) Reformator*, Reihe “Lebensbilder” Nr. 4. (Zürich, 1984); W. J. Hollenweger,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erzählt von seiner Frau* (München, 1983), 35-36.

다.¹⁰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하여 성서를 다시 발견한 것이 츠빙글리의 첫 회심이라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한 것은 제2의 회심이라 하겠다. 그가 “복음의 자유로운 선포”를 종교개혁의 대전제로 철두철미 고수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회심과 무관할 수 없다.

페스트 창궐이라는 재앙이 츠빙글리에게 미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로 인해 생긴 그의 사랑과 결혼이다. 그가 페스트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마침 이웃에 살던 세 자녀를 가진 미망인, 안나(Anna Meyer) 부인이 그의 병간호를 자청했고 그녀의 정성 어린 간호의 덕으로 츠빙글리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치유된 츠빙글리와 안나는 사랑에 빠졌고 그 둘은 동거하게 되었다. 1524년 두 사람은 츠빙글리가 목회하던 취리히 중앙대성당(Grosmünster)에서 공개적인 결혼식을 올렸다.¹¹

그의 결혼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직자 세계의 성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제들의 결혼이 엄격하게 차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직자들의 동거형식의 생활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었다. 성직자가 독신생활을 한다는 것이 곧 성생활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성직계급의 문란한 성생활은 교구 감독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으로 묵

10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6.

11 Anna Zwingli-Reinhart, “An ihre Tochter, Regula, nach dem Tod ihres Mannes,” 3; W. J. Hollenweger,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36-37.

인되었다.¹²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츠빙글리는 성직자의 결혼금지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지적, 먼저 취리히 교회를 관장하고 있던 독일의 콘스탄츠(Konstanz)주교에게 성직자 결혼금지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¹³ 교회 감독관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츠빙글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개혁자 세 사람이 교회개혁 와중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개혁자들이 성이라는 인간적 충동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비판은 전혀 부당하다. 개혁자들의 결혼은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사는 성직계층의 성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고 사람 앞에 떳떳한 축복된 가정생활로 바꿔 놓은 것으로 봐야 옳다. 츠빙글리가 아이가 셋이나 되는 미망인과 교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신앙갱신의 의미와 함께 사회개혁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츠빙글리가 1523년 67개 항에 달하는 신앙 주제를 내걸고 종교적 반동세력과 대토론회(Disputation)를 벌인 것은 루터가 95개 항목의 신앙 명제를 내걸고 개혁운동의 깃발을 든 사건에 비교된다. 츠빙글리는 혈전과 같은 대논쟁을 통하여 마침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12 Eduard Benz & Hans Eggenberger, *Huldrych Zwingli*(1484-1531) *Reformator*, 2.

13 W. J. Hollenweger,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36;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35.

자유를 얻어냈다.¹⁴ 이는 단순히 설교할 수 있는 자유 이상을 뜻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봉건영주들과의 타협과 협조를 통해 개혁운동을 완성하려 했다. 그런데 츰빙글리는 미사를 말씀중심의 예배로 바꾸는 등의 구체적인 개혁운동을 일반 평민들에게 위임하고 그 자신은 설교를 통하여 일반 평민들에게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의 동기를 부여했다. 이는 실제적인 투쟁의 대열에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 아니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 자신의 개혁운동을 목표로 했다고 봐야 한다.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하는 것의 차단은 바로 모든 개혁의 종단을 의미했다. 반종교개혁 측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사코 막으려 했던 것이나, 복음에 대한 자유로운 설교를 막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츰빙글리가 강조했던 이유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복음 전체에 대한 자유로운 설교는 츰빙글리에 있어서 모든 개혁의 시작이요 완성을 의미했다.¹⁵ 이 개혁전통을 이해한다면 말씀중심의 예배는 행동이 없는 말중심의 예배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르게 개혁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중심의 예배는 교회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개혁지향의 예배를 말한다.

1522년, 수난절 금식기간 중에 육식을 한다는 것은 금기 중의 금

14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83; H. Erhart, "Zwingli," 281;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6.

15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ssmünster in Zürich*, 20; "Die Predigt war die Mitte, von der alles ausging";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6-7.

기사상으로 되어 있었던 때였다. 바로 이런 시기에 소시지 먹기 운동이 취리히 전 시가로 퍼져나갔다. 츠빙글리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수난절 성금요일에 고기 먹는 것은 대죄로 여기면서 인육(人肉, Menschenfleisch)을 팔고, 인간을 죽는 자리에 내모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수난절에 소시지 먹기 운동을 전개한 츠빙글리 자신의 설명이었다.¹⁶ 자극적인 이 운동은 단순히 전통적인 교리파괴에 표적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관행으로 자리 잡힌 용병제도 철폐가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츠빙글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교리적 갱신이란 문제와 사회의 정치적 개혁이란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525년 처음 집례 된 개혁교회식 성찬예전도¹⁷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으로, 공동체의 공동식사로서의 츠빙글리의 성찬신학은 1529년 독일 말부르크에서 있었던 루터와의 대논쟁에서¹⁸ 더욱 분명해졌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츠빙글리가 중세 로마교회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과 루터의 공재설(Consubstantiation)을 반대하고 자신의 신학을 고수했던 것은 단순한 교리논쟁이 아니었다. 개혁운동을 통해 그가

16 Anna Zwingli-Reinhart, “An ihre Tochter, Regula, nach dem Tod ihres Mannes,” 3

17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28-30; Anna Zwingli-Reinhart, “An ihre Tochter, Regula, nach dem Tod ihres Mannes,” 3; W. J. Hollenweger,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43-45.

18 전경연, “루터와 츠빙글리의 성찬논쟁,” 『루터신학의 제문제』, 복음주의 신학총서 11. (서울 종로서적, 1974), 68-88.

실현하려고 했던 사회윤리적 동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츙글리가 사회적 목회의 주요과제로 전개했던 걸인구호운동은 단순한 이웃돕기운동이¹⁹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삶과 피를 사회적으로 확대, 분배하는 것을 뜻했다.

츠빙글리 개혁운동의 중심센터였던 취리히대성당 남쪽 출입문에 츙글리의 삶과 개혁운동의 이행(移行)을 묘사하는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그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의 시선을 모은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외닝거(R. H. Oehninger)의 설명은 이렇다: “츠빙글리가 누워있다. (쓰러진) 그 앞에 그의 투구와 칼이 있다. 머리는 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다. 그러나 두 손은 여전히 힘있게 기도하는 자세다. 설교자인 동시에 기도하는 이, 이것이 개혁자(츠빙글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다.”²⁰ 전사한 츙글리는 이어서 반동의 무리에 의해 갈기갈기 찢겼다. 정육처럼 난도질당한 츙글리의 살점, 한 조각 한 조각은 타는 불속에 던져졌다. 어느 누구도 그의 유해를 통해 그를 회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개혁자 츙글리 목사의 최후였다.²¹ 이 죽음을 향하여 “칼을 든 설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식으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두 차례에 걸친 카펠(Kappel) 전투의 성격을 파악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19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43-45.

20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72.

21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72.

제2차 카펠 전투는 정치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었다. 영주들 간의 정치적 평화는 이미 문서로 확인해 놓고 있었다. 다시 생긴 문제는 신앙고백적인 문제였다.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²² 반종교개혁 적 연합군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해 왔고 츠빙글리와 그의 동지들은 복음 선포의 자유를 허락하는 한 적대세력과도 우호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복음 선포를 막는 세력과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츠빙글리의 주장이었다. 이때 반종교개혁 세력이 세를 잡고 있던 지역에서는 복음서를 회중 앞에서 읽거나 설교하는 행위는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의 참전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전투였다. 복음 선포의 자유를 파수하기 위한 순교적 행진이었다.

그가 전사한 뒤 부인 안나 츠빙글리는 그의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츠빙글리의 전사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군사적 방식으로 는 해소되지 않는다... 카펠에서의 패전은 우리에게 전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²³ 이는 군사적 도발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반종교개혁 세력에 대한 엄중한 항의요 비판이었다. 군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를 도리어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츠빙글리의 패전과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22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ssmünster in Zürich*, 70-71.

23 Anna Zwingli-Reinhart, “An ihre Tochter, Regula, nach dem Tod ihres Mannes,” 3; W. J. Hollenweger,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20.

이 츠빙글리 부인의 생각이었다.²⁴

외닝거는 츠빙글리의 죽음이 스위스 역사에 끼친 영향을 말하면서 “그는 신앙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건강한 연방”을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²⁵ 츠빙글리의 참전과 전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1) 칼을 든 성직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식의 말이나, 2) ‘한 손엔 칼, 한 손엔 성경,’ 개혁을 위한 전술적 방도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타당하다는 식의 해석 등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다. 복음선포는 교회 안에서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츠빙글리의 참전과 전사는 증언한 것이었다. 츠빙글리의 전사는 그의 신학과 종교개혁 운동이 갖고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 동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III

츠빙글리 연구전문가인 로허(G. W. Locher)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동기와 사회윤리의 근거를 흥미롭게도 먼저 그의 회심의 동기에서 찾는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 동기를 교황체제에 대한 저항감,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 죄로 인한 타락과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회의와 갈망에서 본다. 여기에서 루터의 길은 율법

24 Anna Zwingli-Reinhart, “An ihre Tochter, Regula, nach dem Tod ihres Mannes,” 3.

25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72.

에서 복음으로, 인간의 업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았으나, 은혜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루터의 회심의 동기와는 달리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의 두려움”이 종교개혁의 동기가 되었다. 탐욕과 불의에 젖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츠빙글리의 두려움이였다.²⁷ 루터가 인간의 공적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나, 이런 식으로 심령의 구원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 츠빙글리는 공동체 전체의 영혼에 대한 책임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타락, 전쟁 발발의 억제와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씨름해야만 했다.²⁸ 까닭에 츠빙글리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혁하는 과제 이상으로 정력적인 정치가로, 불타는 민족주의자로 그가 살던 사회와 스위스 공동체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투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²⁹ 루터의 설교가 보다 영적이라면 츠빙글리의 설교는 보다 “예언자적”이라 할 수 있겠다. 츠빙글리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을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치 사회적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26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76-77.

27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77-78.

28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78.

29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als Anfrage an unsere Zeit,” Vortrag bei der 500. Zwingli - Jubiläumsfeier, Zürich vom 28. Feb. 1984.

위한 결단을 의미했다.³⁰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운동의 기본적인 동기에 대해 로허 교수는 1) 성령론 적으로 각인된 기독교에 기초한 신 중심 내지는 신정론의 강조, 2) 선택과 화해에 있어서의 구원의 객관성의 강조, 3) 성령과 신앙에 의한 구원의 강조, 4) 교회와 국가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책임성, 5) 인문주의적 교육의 경향 등이라고 성격화한다.³¹ 여기에 15세기 보헤미아의 종교-사회개혁자 후스(Jan Hus)의 유산을 빼놓을 수 없겠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16세기 종교개혁운동 1세대라면 칼빈은, 독일의 멜랑히톤(Ph. Melanchthon), 취리히의 불링거(H. Bullinger)와 함께 이미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 이 운동의 방향과 궤도를 잡아가면서 개혁운동의 자리를 굳히는 데 공헌한 이들에겐 2세대의 개혁자다. 칼빈 신학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강조, 성서의 재발견, 말씀에 표적을 맞춘 설교의 강조는 분명히 루터에게서 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경건(영성)보다 더욱 중요하다고³² 말할 때 이는 루터와 츠빙글리를 넘어가는 독특한 관점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칼빈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는 현실성(Wirklichkeit)에 대한 강조나 공동체적

30 H. Zwinglis Werke, III. 112-13; V. 425; I. 287;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80.

31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8.

32 J. Calvin, "Gegen Kardinal Sadolet," *Opera Selecta Calvini*, I. 463;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81-82.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과 같은 강조점³³은 츠빙글리로부터 이어받은 영적 유산이다.

츠빙글리는 루터와 같은 강도로 믿음에 의한 의인(義認), 곧 “sola fide”를 말한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전제”가 된다. 반면에 츠빙글리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만들어짐”(Gerechtmachung)이다. 선물이다. 선택에 대한 확증이다. 표징이다.³⁴ 구원으로서의 선택의 “결과”를 뜻한다. 이러한 츠빙글리의 이해는 루터의 이해보다 사회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보다 역동적인 성격을 띤다. 츠빙글리에 의하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모든 선한 행동의 업적도 그만큼 자란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³⁵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을 위하여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츠빙글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였다.

츠빙글리가 말하는 교회는 먼저 불신자를 포함하는 전체 그리스도인이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의 교제이며 “독자적 교회”(Einzelgemeinde)이다.³⁶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신에 적응하

33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181.

34 H. Zwinglis Werke, II. 172; 642; VI/ I. 172;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19.

35 H. Zwinglis Werke, II. 183; 187;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21. “Der Glaubende wird ‘von Gott dazu bewegt.’”

36 H. Zwinglis Werke, III. 253; 255; 257; 261; 267;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8.

는 것 말고는 “전적으로 자유하다.”³⁷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탄생한다.”³⁸ 까닭에 “교회의 선교의 자유”는 제한을 둘 수가 없다.³⁹ 침해당할 수가 없다. 여기에 츠빙글리는 “교회와 국가 안에서의 공동체적 삶을 위한 책임성”⁴⁰을 교회의 주요임무로 덧붙인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를 위한 교회”⁴¹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적 시민이라면 공동체의 정치적 삶의 현장에서 책임적으로 살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츠빙글리에게서 칼빈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개혁교회 전통의 하나이다.

츠빙글리에 있어서 성례전은 “인간의 행위인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에 속한다. 그는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전으로 보았다.⁴² 성만찬의 경우 츠빙글리는 1523년 히브리서의 희생제물에 대한 강한 비판적 성격(히 7:26-27, 9:11-12, 10:10)을 예로 들어 화체설에 강력히 저항했다. “주의 죽으심은 영혼의 양식”이다.⁴³ “그리스도의 희

37 H. Zwinglis Werke, II. 623; III. 855; IV. 129;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9.

38 H. Zwinglis Werke, III. 223; 168; 217; IV. 734;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6.

39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7.

40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8; 247-48; 그리스도인의 시민적 책임은 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정치적 삶의 형식”이다.

41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70.

42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1.

43 Huldrych Zwinglis Sämtliche Werke (Zürich 1959), II. 128ff; G. W.

생(Opfer)에 대한 회상(Wiedergedächtnis)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⁴⁴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다”(est)를 츠빙글리는 “significat”로 읽었다.⁴⁵

이는 독일어로 “Zeichen geben”, 영어로는 “to give a sign”으로, 모두 “표시한다”를 뜻한다. “significat”를 “상징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학적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상징한다는 것보다는 “표시한다”는 말이 분명히 츠빙글리의 의사에 가깝다.

이에 대한 인증으로 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요한복음 6장 48절과,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6장 63절 말씀을 지적한다.⁴⁶ 여기서 “떡”이 생명을 뜻한다면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떡과 포도주 아래 그리스도가 몸으로 현실적으로 임재한다는 루터의 공재설에 반대하며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에 의한 임재이지 몸으로 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⁴⁷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7.

44 H. Zwinglis Werke, I. 460; II. 111;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8.

45 H. Zwinglis Werke, IV. 560;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8.

46 H. Zwinglis Werke, II. 141-44; III. 782-84;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3.

47 H. Zwinglis Werke, IV. 467; 827-41; 904-909; V. 695;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3; 44; “임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구약의 유월절 식사와 관련시킨다. 유월절 식사는 “이미 얻은 해방과 영원한 계약에 대한 공개적인 회상의 축제이고 감사의 잔치이다.”⁴⁸ 바로 이와 관련하여 그는 성찬을 다음과 같이 성격화한다. 1)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희생에 대한 공개적인 찬양, 곧 감사(Eucharistie)이고, 2) 이를 회상하는 축제이고, 3) 고백과 책임의 성격을 갖는 공동식사이다.⁴⁹

루터에게서 성찬신학이 “약속”(Testa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츠빙글리의 성찬신학은 “회상”(Wiedergedächtnis)을 겨냥하고 있다.⁵⁰ 특히 츠빙글리의 이해가 루터나 칼빈과 아주 다른 점이 있다. “성찬의 주체(Subjekt)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점이다.⁵¹ 그에게 있어서 성찬의 강조점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데 있지 않고 “이를 행하라”는 데 있다.⁵²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물론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식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식탁에 제의적으로 참여하

재”(Gegenwart Christi)라는 점에서는 루터와 츠빙글리가 신학적 공통분모를 갖는다.

48 *H. Zwinglis Werke*, II. 483;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8.

49 H. Zwingli, “Christlichen antwort Zürichs an Bischof Hugo im August 1524,” *H. Zwinglis Werke*, III. 227-28;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9.

50 *H. Zwinglis Werke*, II. 137; 150;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8.

51 *H. Zwinglis Werke*, V. 711; II. 120;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59.

52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0.

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인 것이다.⁵³ 성찬식탁에서 떡을 주의 몸으로 먹고, 잔을 주의 피로 받아 마시는 것으로 성찬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데 참여한 그분의 지체답게 표지를 해야 한다. 증거를 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고픈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표징을 나타내야 한다.

기독교의 주요 신앙고백적 주제들을 에큐메니칼 시각으로 정리하고 선언한 리마문서는 성만찬을 1) 하나님에 대한 감사, 2)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3) 성령의 임재, 4)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라는 의미와 함께, 5) 성도의 교제로서의 공동식사 개념을 명백히 하고 있다.⁵⁴

리마문서가 말하는 성도 간 공동식사로서의 성만찬의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에 있어서 적절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계속적인 도전”을 뜻한다.⁵⁵ 이 성만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계화의 중심적 사건”과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세계의 상황과 인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성찬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⁵⁶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를 행하라”는 데 초점을 두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 사람답게 표징을 보이라는 츠빙글리 성찬신학의 오늘의 부활을 본다. “성찬의 삶을 이웃과 함께”라는 한

53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2.Aufl.(Zürich, 1985), 30.

54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세례 성만찬 사역』,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역 (1982), 32-42.

55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세례 성만찬 사역』, 39.

56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세례 성만찬 사역』, 39-40.

국 가톨릭교회 성체대회 구호 역시 츠빙글리 성찬신학이 에큐메니칼 차원으로 확대된 신학적 여파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칼빈이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⁵⁷는 점을 견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라고 할 때 이는 루터의 공재설과 츠빙글리의 표징설을 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⁵⁸라는 칼빈의 성령에 의한 임재라는 성찬신학은 성찬이 지니는 신앙의 초월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물질숭배의 위험을 극복하고 있다. 성찬신앙의 주관성(루터)과 객관성(츠빙글리)의 변증법적 일치이다. 그러나 칼빈이 “빵이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라고 말할 때⁵⁹ 여기서 우리는 츠빙글리가 강조했던 이웃과의 공동식사로서의 성찬신학의 의미, 곧 성찬신학의 사회윤리적 동기를 놓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누가복음 17장 24절을 루터는 “Das Reich Gottes ist inwendig in euch” 하나님의 나라는

57 W. Niesel, 『비교 교회론』 (The Gospel and the Churches, A Comparison of Catholicism, Orthodoxy and Protestantism), 이종성 & 김향안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8), 331.

58 H. Bullinger,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hg. vom Kirchenrat des Kantons Zürich (1966), 111-18; W. Niesel, 『비교 교회론』, 332.

59 J. Calvin, “Brief 1557, Oktober,” *Opera Selecta Calvini*, XVI. 678; W. Niesel, 『비교 교회론』, 334.

너희 내면에 있다고 번역했다.⁶⁰ 이에 반해 츠빙글리는 “Das Reich Gottes ist mitten unter euch”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중에 있다고 번역했다.⁶¹ 루터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내면에 있는 세계(*Innerlichkeit*)이다.⁶² 보이지 않는 나라이다.⁶³ 초월적 성격이 강하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본 츠빙글리의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언제나 외적이다(*etiam externum, noch immer äußerlich*).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나라”이다.⁶⁴ 그러므로 보이는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의 외적인 상황, 즉 국가,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다.⁶⁵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믿음은 이 세계가 변

60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번역상의 차이에 대하여: Leonhard Ragaz, “Falsche Übersetzungen der Bibel,” *Sollen und können wir die Bibel lesen und wie?* (Zürich, 1941), Anhang, 45; *M.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31. 505-506;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Zwingliana*, XIII (1969), 71.

61 L. Ragaz, “Falsche Übersetzungen der Bibel,” 46.

62 L. Ragaz, “Falsche Übersetzungen der Bibel,” 45, 47.

63 *M. Luthers Werke*, 31. 505-506;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1.

64 *H. Zwinglis Werke*, IX. 454;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1.

65 H. Zwingli, “Brief an den französischen König Franz I.,” in: *H. Zwinglis Werke*, III. 633;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1.

화되기를 바라는 희망이다.⁶⁶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이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갈구요, 변화시킬 힘을 달라는 간구다. 그래서 개혁자 츠빙글리는 교회를 갱신한 목회자인 동시에 사회를 개혁한 정치가였다.⁶⁷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같은 강도로 인간의 의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절대적인 의이고 인간의 의는 인간의 책임성과 관련되는 상대적인 의이다.⁶⁸ 전자가 영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후자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아직 아니”의 영역이다. 사회의 질서, 윤리, 정치적 결단이나 행동으로서의 인간의 의는 “이미 지금”의 영역을 말한다.⁶⁹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이라면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유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 개인에 대하여, 세속적 사회에 대하여 도전적인 충격을 뜻한다.⁷⁰ “철저한 사회비판”으로⁷¹ 이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이 참여할 통로가 생긴다. 상대적인 성격의 “인간의 의는 그 시대의 문제(Not)를 변화시켜야 하기

66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1.

67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1.

68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3.

69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7.

70 H. Zwinglis Werke, II. 479-81; 482;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3.

71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3.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곧바로 갈 수는 없다. 표준이 될 수가 없다. “최고의 형식”이 아니다.⁷²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지상에 확대한다고 할 때 이 문제 앞에서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아직 아니”(noch-nicht)라는 시각을 통하여 공격적 충동을 받는다. 까닭에 그는 인간과 세계 안에서의 충동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이미 지금”(schon-jetzt)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아직 아니”를 본다. “아직 여전”(immer-noch)한 불의와 악을 본다.⁷³ 이에 반해 재세례파와 같은 급진주의자들은 “아직 아니”의 차원을 오해한다. “이미 지금”의 상황을 간과한다.⁷⁴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지금 이미”인 동시에 “아직은 미래”(Zukünftigen in Gegenwart)인 관계로 성격화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간의 의는 정당성이 없다.⁷⁵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 이 세계 안에 스며들어야 하고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둘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양자택일(Entweder-Oder)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⁷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72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7.

73 H. Zwinglis Werke, II. 483;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7.

74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7.

75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80.

76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9.

츠빙글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갱신되는 비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⁷⁷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태어난다.”⁷⁸ 사도적 “직제를 통하여 통일성과 질서가 유지된다.”⁷⁹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의한, 제한받을 수 없는 설교의 자유”를 확보한다.⁸⁰ 교회의 최후의 권능(Schlüsselgewalt)은 “선포”에 있다.⁸¹ 이 설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는 일어나 저항할 수 있다.⁸²

12년 동안의 취리히지역 목회 기간 중 그는 적어도 천 번 이상의 설교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⁸³ 그의 설교는 “종교적-교회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사회적이었다.”⁸⁴ 그래서 츠빙글리가 목회하던 취리히 대성당은 “예배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스위스 연방공동체의 정신적 영적 센터”로 파악되었다.⁸⁵

츠빙글리의 신정론적 이상(理想)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뢰에

77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1.

78 H. Zwinglis Werke, III. 223; 168; 217;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6.

79 H. Zwinglis Werke, IV. 390; 369-433;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6.

80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7.

81 H. Zwinglis Werke, II. 368; 374; 380-91; III. 723-41;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48-49.

82 H. U. Jäger, “스위스 종교개혁의 배경,” 7.

83 R. H. Oehninger, *Das Zwingliportal am Großmünster in Zürich*, 21.

84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74.

85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2.

서 나온다. 바로 여기서 츠빙글리의 “교회개혁은 자동적으로 국가 개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⁸⁶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국가는 기독교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⁸⁷ 그는 “하나님이 혼돈에서 자신의 계명과 행정당국을 보존한다고 믿었다.”⁸⁸ 그래서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봉사(Arbeit)는 하나님의 예배(Gottesdienst)”가 된다.⁸⁹

츠빙글리가 기독교적 양심을 말할 때 이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복음적 책임성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까닭에 그의 목회적 사역은 교회개혁에만 집중될 수 없었다.⁹⁰ 이 점에서 “세계를 위한 교회”⁹¹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론은 전적으로 츠빙글리의 종교-사회개혁 운동에까지 소급되어 맥이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로이엔베르거(R.Leuenberger) 교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 나타나는 츠빙글리의 정치-사회윤리적 사상이 “기

86 *H. Zwinglis Werke*, I. 155-88; 210-48;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6.

87 *H. Zwinglis Werke*, XIV. 424;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7.

88 *H. Zwinglis Werke*, II. 305; 328;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7.

89 *H. Zwinglis Werke*, XIII. 169; 195; 239; 244; XIV. 424;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7.

90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2.

91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70; 각주 43번 참조.

존의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사회적인 양자택일”(Alternative)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본다.⁹² “기독교적 행동은 환상이나 꿈에 대한 놀라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허락하는 이성적 인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⁹³ 이와 같이 츠빙글리의 신학적 사회비판은 예민하고 철저하지만 서둘지 않고 조급하지 않다.

츠빙글리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충성과 역사에 대한 충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역사를 개혁하겠다는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인간의 의와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신학-윤리적 다양성(Pluralist)을 말한다.⁹⁴ 사회윤리적 이원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에 대한 양면성을 파수할 수 있었다. 신학적 “외통수”가 아니었다. 로허는 츠빙글리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역동성을 신앙에 기초한 교회와 국가 안에서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책임성으로 성격화했다.⁹⁵

A. 리히는 츠빙글리의 신학적 사회윤리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츠빙글리는 사회윤리적 책임성이 신앙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사회와 세계를 갱신하는 정치적 올바른 방향(Wege)은

92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3-4.

93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4.

94 Zwingli가 “Pluralist”라 할 때 중도적이라든가 타협적(Kompromiß)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사이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간에 역동적 긴장(dynamische Spannung)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관해서는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81; 87.

95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68.

거기서 오히려 나온다.”⁹⁶ 츠빙글리에게서 신앙 없이는 사회윤리적 책임을 말할 수 없다. 동시에 정치적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신앙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의 부인 안나 츠빙글리는 남편이 전사, 순교한 직후 그의 딸 레굴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츠빙글리의 신학과 사회윤리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기술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나의 유산이다. 믿음에 굳게 서라. 네 아버지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아빠는) 성서를 사랑했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했다.”⁹⁷ 참으로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과 평화와 정의를 위한 윤리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었다. 충돌하지 않았다.

IV

츠빙글리가 말하는 대로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향하여 운동” 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뜻이 된다. 이것이 츠빙글리의 신학적 “사회윤리의

96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88; “Zwingli... sah sich in seiner neuerkannten, aus dem Glauben stammenden zoziaethischen Verantwortung dazu angetrieben, politisch reale Wege zu finden, um Gesellschaft und Welt tatsächlich zu erneuern.”

97 Anna Zwingli-Reinhart, “Brief an ihre Tochter Regula, 1531, Herbst”: “Dies, meine liebe Regula, ist mein Vermachtnis. Halte fest am Glauben! Nimm dir deinen Vater zum Vorbild in seiner Liebe zur Heiligen Schrift, seinem Kampf für Frieden und Gerechtigkeit.”

급진적 성격의 역동성”이다.⁹⁸ 그러기에 츠빙글리의 종교-사회개혁 유산을 등한시하는 교회는 윤리적 역동성이 없는 교회임을 말한다. 이런 교회는 신앙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든가, 세속적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과장하는 하나님 없는 사회운동단체 같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학-윤리적 실존에서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세계사적 보편신학과와의 만남은 우리의 신학과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절대적인 초월적 신앙으로부터 사회비판적 역동성을 말하는 츠빙글리의 신학과 사회윤리학의 유산을 반추하는 것은 민중신학의 비판적 대안, 내지는 이 신학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학”으로 발전적으로 재편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급진적 성향의 한국적 정치신학이 예민한 사회비판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획일주의적 경향을 차단, 극복하는 지혜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본다.

참으로 츠빙글리는 “공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교회와 세계를 위해 헌신했던”⁹⁹ 16세기가 낳은 위대한 교부였다. 이 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학운동”이 츠빙글리의 교회-사회개혁운동과 만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¹⁰⁰

98 G. W. Locher, “Grundzü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270.

99 A. Rich, “Zwingli als sozialpolitischer Denker,” 89.

100 R. Leuenberger, “Huldrych Zwinglis Weg und Wirken,” 1. 로이엔 베르거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출발을 본다. “Wir sind mit Recht darauf stolz, daß die Zürcher Refomrmation uns eine Volkskirche geschenkt hat, in der wir zu Hause sein können.”

개혁교회 예전과 건축에 있어서 미니멀리즘과 단순성에 대한 연구

한조웅

양광교회 목사

※ 본 논문은 필자의 2009년도 프랑스 파리 개혁교회 신학교 Master
2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글이다.

들어가며

종교개혁 이래로 칼빈의 사상과 관련하여 중요 원리중 하나를 들자면 그것은 ‘단순성의 정신’일 것이다. 이 사상은 종교개혁의 중요 화두가 된다. 이 단순성의 정신은 교회 건축 스타일과 예전에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¹가 규정하는 이 단순성은 종교개혁자들의 윤리이고 신학이며, 프로테스탄트들의 삶의 주요 덕목이 된다. 또한 ‘단순성’은 중세시대 교회의 서열계급, 복잡성, 사치스러움, 번지르한 겉치레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거부를 보여준다.

우리는 현대 미술의 분야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단순성의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일명 ‘미니멀 아트’²⁾이다. 우리는 칼비니스트의 단순성의 원리에 기초해서 그 분야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니멀리즘과 단순성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의 유사성(아날로지)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우리들은 개혁교회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두 차원은 예전과 건축이다.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칼빈파(calvinist) 예전의 오리지널한 형태는 무엇이었나? 칼빈교도의 예배당의 특징들은 어떠했는가?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단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개혁교회다운 예전과 건축을 구성해 낼 것인가? 미니멀 아트는 무엇인가? 미니멀리즘과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개혁교회 예배당과 건축에 미니멀 아트의 적용이 가능한가?

이 연구의 출발점은 각 기독교 교회 교파들이 예전과 교회 건축에 있어서 마땅히 자신들의 특징(캐릭터)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각 교파들이 그들의 전통과 신학에 따라 그 특징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신교 교파들은 예배의 형태와 예배당의 건축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자신들의 신학적

2 ‘미니멀리즘’과 ‘미니멀 아트’는 같은 의미의 두 가지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문에서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미니멀 아트는 예술적 차원에서, 미니멀리즘은 사상적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징, 전통, 역사, 신조(신앙고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사례는 한국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대부분은 그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비슷하다. 교회 예배당에서 감리교, 오순절, 침례교 또는 장로교를 구별 할 수 있는 장식적이고 건축적인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것은 성전을 지을 때 각 교파의 신학적 측면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예배와 관련하여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신도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대형교회의 예배와 유사한 형태로 예배를 모방하고 전개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대중의 취향을 따르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장로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자본주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회들은 그래서 부와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혁교회³의 예전과 건축의 특징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칼빈의 단순성의 정신을 되짚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론은 미니멀리즘에 있다. 다른 기독교 교회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단순성’을 개혁교회의 예전과 건축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원시 프로테스탄트의 예배의 형태와 장소는 중요

3 이 논문에서 ‘개혁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존 칼빈과 존 녹스가 주도한 16세기 종교개혁에 기원을 둔 형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칼빈을 표방하는 교회로서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개혁교회(l'Eglise réformée de France), 한국의 경우는 장로교(presbyterian)라 할 수 있다.

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가장 완벽한 양식(樣式)이 표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칼비니스트의 전통적 예전 안에서 그리고 개혁교회의 예배당에서 ‘단순성의 요소’들을 연구할 것이다.

본 논문은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과 미니멀리즘을 연구하고 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 서로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찾아서 단순성의 원리를 조사할 것이고 철학과 신학윤리의 저서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에 관해서는 그 출현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그것의 현재 예술적 유행의 토대를 연구할 것이다. 이어서 개혁교회에 있어서 미니멀리즘과 단순성의 개념에 대한 적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개혁교회의 건축적인 특성 그리고 개혁교회에 적절한 예전의 요소들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전통의 실제적 복원과 관련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교회에 미니멀리즘과 단순성의 적용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1. 프로테스탄트 단순성의 연구

1) 단순성의 원리

종교개혁의 대표적 슬로건에서 단순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서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⁴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은 종교개혁의 대원리에 기반을

4 *Sola gratia, sola fide, sola scriptura, soli Deo gloria!*

두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다. 단순성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⁵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다.

칼빈은 그의 신학적 작업에 이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그는 성경의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서 모호함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르낙(Adolf von Harnack)은 말한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화의 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은 기독교의 원형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의 성과물이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단순성과 검소함(modestie)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는 불필요한 모든 부가물들을 거부했다.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이것의 결과를 보아라. 인간은 그들의 철학, 그들의 쾌락, 호화로움, 과시(허영), 그들에게 매혹적이고 욕망적인 모든 것에 몰두한다.” 칼빈은 이러한 부가물의 질주를 저지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그 검소함에 만족해야 한다.⁶

2)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과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성장, 번영, 맘모

5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6 Lukas Vischer, “Genève,” in: <http://www.calvin09.org/index.php?lang=3&idcatside=52>.

니즘이다. 우리는 맘모니즘으로 나타난 이 탐욕스러운 영(靈)이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이념을 오늘날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교회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초기는 칼비니스트 정신에 영향을 받았다.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을 채택한 국가에서 발전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칼빈주의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칼빈의 정신과 반대되는 자본주의의 형태를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공동체의 윤리와 칼비니스트의 윤리 보다는 맘모니즘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칼빈의 본래적인 의도에 따른 ‘검소’와 ‘절제’, ‘단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현재의 시장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장로교의 전파와 성장,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19세 미국의 장로교는 칼빈주의의 청교도적인 특징과 근본주의적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의 장로교는 존 칼빈의 신학에 대한 오해가 일반화되었다. 다시 칼빈이 공들여 작업한 그 신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옛날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칼빈의 신학을 새롭게 재적용 하자는 의도이다.

3) 단순성의 요소들

본질로 회귀, 군더더기를 제거함

단순화는 기독교의 원형, 복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다. 포장되어진 예수, 교회, 신앙에서 그 굳터더기 장식을 벗겨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 메시지의 선포를 방해하고 무익하게 하는 인간적, 역사적으로 덧입혀진 것을 벗겨냄으로써 전통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학문적 노력에 의해 예수님에게 역사적으로 덧씌워진 잘못된 모습이 교회의 세속화된 제도적 성격과 관련된 비현실성, 탐욕과 위선의 적용 그리고 교회의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의 정신의 관점에서 신학자 칼바르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계시의 순수한 목적을 확립하는 신학을 위하여 자연주의 신학과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e*) 신학을 거절했다. 문화에서 실증주의에 대한 신뢰 쇠퇴와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변증법적 신학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중심주의 신학의 모든 태도에 반대하였다.

절제(*la modération*)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덕목으로서 절제를 제안한다.(고전 9:25, 벧후 1:5-6) 오늘날 예배당에는 사치스러운 장식들이 있다. 개혁교회에서 이러한 요소들의 사용에 관하여서 절제가 필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의 표현 또한 절제될 필요성이 있다. 말하자면 열망을 내려놓는 것도 영성이다. 여기서의 예배는 주일 본 예배(예전)를 말한다. 기타 다른 예배들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릴 수 있다. 예배는 우리의 열망을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자기 의’는 절제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는 활

동이다. 절제의 관점에서 볼 때 프라파간다(선전선동)식의 예배와 설교는 개혁신교회에 적절하지 않다. 예배당의 장식에 대해서는 ‘절제’의 원리에 맞추어서 소수의 오브제(설치물)를 가지고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성의 원리에 맞게 절제된 데코, 절제된 음악, 절제된 예배 형식, 절제된 예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부족함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가난, 검소

초기에 유대인의 성전은 성막(천막)이었다. 처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고, 지역 교회의 공동체가 어느 한 가정에서 모이는 것처럼 특별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건축에 대해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초기 문서들은 전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에게 그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그들은 사랑과 우정으로 표현되는 관계에 더 큰 열정이 있었다. 기독교인의 힘은 물질적 부(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경제적 성장과 관련된 요소들이 적절한지 재평가 하기 위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재평가 하여야 한다.

쉬움, 명확함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신을 명확히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신의 모호한 현현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칼빈주의는 예수와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 종교개

혁자들은 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들은 미사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의 언어를 개혁하였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그 당시 대중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은 성경의 내용을 쉬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칼빈은 그의 학문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쉬움과 명확함.”

자연스러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는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것들은 흥분시키는 음악, TV방송의 쇼맨십, 프라파간다(선동)적인 수단들이다.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배를 미리 연출하여 감정의 증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종교적 감정과는 다르다. 신앙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감성)의 차원만은 아니다.

비움과 침묵

현대인들은 침묵의 시간을 어색해 한다. 이 현상은 대중매체의 영향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침묵과 묵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예배시간에 적절하게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공간은 사고의 유연성과 성찰에 유익을 준다. 따라서 어떻게 고요한 호흡의 시간을 갖고, 예배 장소에 여백의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여백의 공간과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는 오순절교회의 현장과는 반대된다.

2. 미니멀리즘 연구

미니멀리즘(또는 미니멀 아트)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 예술의 흐름이다. 미니멀 아트라는 개념은 1965년 ‘뉴욕 그린 갤러리 전시회’의 주제를 다룬 『아트 매거진』 잡지에서 영국의 분석 철학자 리처드 볼하임(Richard Wolheim)에 의해 이름 지어졌다. 미니멀 아트는 비감정(비주관)적, 절제와 간결의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984년 밀라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독일의 비평가 볼커 피셔(Volker Fischer)는 'Zeus'라는 건축가 그룹, 그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렀다. 그는 칼비니즘과 미니멀리즘을 연결했다. 왜냐하면 미적 요소의 급진적인 축소가 칼비니즘의 엄숙함, 간결함의 특성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미니멀 아트는 칼비니즘에 영향을 받았다.⁷

1) 미니멀 아트의 성격

미니멀리즘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술과 문화의 한 흐름이다. 이것은 산업, 철학, 유행, 건축, 음악의 분야들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미니멀리스트한 디자인의 특징은 질서정연한 통일성, 단순성이다. 그리고 상징물들과 표현들의 절제이다.

미니멀 아트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고 ‘이성’보다는 ‘직

7 Fischer Volker, *Design heute* (Monchen: Prestel Verlag, 1988), 101-103. Cité par l'Internet, in: http://id.yonsei.ac.kr/?doc=bbs/gnuboard.php&bo_table=mag_lecture&sselect=&stext=&ssort=wr_name&sordep=asc&soperator=&page=3&wr_id=4.

관'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미국의 미니멀 아티스트 도널드 쥬드(Donald Judd)는 미니멀리즘의 개념은 비주관성, 엄격함, 감성보다는 이성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미지를 통한 인간의 의식이 표현되는 미술의 이데올로기를 특별히 회화 분야에서 거부한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심플한 예술적 방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기존의 예술의 개념'을 바꾸어보려고 시도한다. 그에 의하면, 미니멀 아트 성격은 가장 무감동적이고 중립적인 예술의 태도를 띤다.

여백의 미

우리들은 여백의 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가리킨다. 이것은 여유로움의 인상(印象)을 남긴다. 이것은 절제의 미덕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다. 이것은 설명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정신세계의 표현이다. 종교적 이미지(그림)는 우리가 신앙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들에 주목했다. 실제로 이미지(그림, 조각)에서 발생한 감정들은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감추고 왜곡시킬 수 있다. 이것은 신앙에 선입관(편견)을 주입시킨다. 반면에 여백을 바라봄으로 오는 성찰은 그 함정에 빠질 위험이 없다.

미니멀리스트 가구(家具)

미니멀 아트의 특징은 볼륨의 질감과 형태를 강조한다. 회화적 이미

지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미니멀한 가구는 ‘꾸밈없음’을 강조한다.

미니멀리즘의 진화

미니멀 아트가 생겨났던 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술 작품에 서정성과 감정이 담겨있기를 원했다. 그들은 미니멀 아트를 차갑고 회색과 어두움으로 느꼈다. 그러나 오늘날 미니멀리즘은 대중의 취향과 연결되었다. 대중들은 이제 고급스럽고 세련된 것과 미니멀리즘을 관련시킨다. 실제로 스마트폰과 같은 공산품들의 디자인들과 가전제품, 사무용품, 가구들 그 밖의 여러 가지에 미니멀리즘의 영향이 강하게 담겨 있다. 미니멀 아트는 점점 더 현대의 상업주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2) 미니멀리스트 건축

미니멀 건축은 주로 검소와 단순성의 예술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에너지, 재료, 형식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제나르와 베르기에(Jean-Louis GENARD & Jean-Didier BERGILEZ) 두 학자에 의하면 무엇보다 몇몇 미니멀 건축의 예가 코르비제(corbuseen)⁸의 기능주의, 산업적 공리주의, 원시적 건축들에서 나타난다. 또한 우리는 그것의 기원을 ‘로마네스크’와 ‘도리아’식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니멀 건축은 포스트모던한 장식들, 과잉의 특성들을 거절한다. 그리고 지나친 호호성, 복잡한 것들

8 Le Corbusier(1887-1965). 프랑스에서 활동한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로 현대 건축의 기초를 다짐.

을 거절한다. 사회학자 제나르와 건축가 베르기에, 그들은 미니멀리즘을 미국의 셰이커 교도들과 시토수도회의 금욕주의 윤리 안에서 발견한다. 미니멀리즘 건축가 타다오 안도(Tadao Ando)는 미니멀한 건축에서 대도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을 본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성격에 대한 거부이다. 그것은 과소비, 물질숭배, 환경문제, 속도, 스트레스, 혼잡함 등에 대한 거부이다.

미니멀리즘 건축의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다. 단순 기하학적 공간의 구성(직육면체, 입방형, 원통형 등), 원재료의 사용(콘크리트, 돌, 유리, 철강 등), 보이는 부분의 무미건조함, 내외부 공간의 순수함(특별히 재료의 본성을 드러낸다, 예, 노출콘크리트).

미니멀리즘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의 원리는 유사한 이념이 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건축의 양식을 프로테스탄트 예배당 안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용 곤란한 몇 가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3) 미니멀리즘과 프로테스탄트 단순성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본질로의 회귀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니멀 아트는 재료의 본질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현상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의 정신 안에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

이미지를 통한 환영의 거절

미니멀 아트는 환영의 극단적 최소화를 강조한다. 이 예술은 감정

을 자극하는 기존의 조형예술을 거부한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모든 은유적 상징적 철학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환영(상상)을 피하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미지는 우리들의 주관적인 것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들은 직관의 방법으로 본질/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를 객관화하고자 한다.

미니멀 아트는 작가의 인격성(개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성(비주관성)을 반영한다. 미니멀 아티스트의 작품은 작가의 철학, 인격, 그의 전기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지지 않는다. 미니멀 아트는 미술 작품 앞에서 감정을 갖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성은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콘(성상), 조각(동상), 성화, 그리고 예배당 안의 여러 물건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이러한 장식적인 요소들은 신앙의 개인적 감정과 환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을 이상숭배에 빠지게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로 보았다.

요약하자면, 미니멀리즘은 프로테스탄트가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이미지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처럼 환영을 거부한다. 따라서 미니멀 아트는 개혁교회의 건축을 데코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한 방법이다.

검소

미니멀리스트는 절제를 강조하며 모든 장식물들을 거부한다. 검소의 개념은 프로테스탄트와 미니멀리즘의 공통점이다. “Less is more”의 표현은 미니멀리스트들의 슬로건이다. 프로테스탄티즘과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은 화려함을 거부하고 검소를 목표로 한다.

평등주의

미니멀리즘 조각가 칼 안드레(Carl André)는 그의 예술적 작업이 계급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작품을 통해 평등성을 추구한다. 프로테스탄티즘 안에는 로마 가톨릭의 서열계급과 같은 권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미니멀리즘은 평등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 밖의 유사점들

현대문명의 해로운 영향들에 대한 반성의 사상을 담고있는 미니멀리즘은 경제성과 단순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평온한 안식을 유지하면서 미니멀리즘은 스트레스, 혼잡, 빠른 속도, 생태위기와 같은 현대 사회를 성격 짓는 요소들을 거부한다. 개혁교회는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예술의 요소 중에 하나인 ‘여백의 미’를 수용할 수 있다.

차이점

오늘날 미니멀리즘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상류층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미니멀리스트 작품들은 사회에서 성공과 부의 표현들이 되었다. 상업주의는 대중의 성향과 이 현상을 연관시킴으로써 미니멀리즘을 이용한다. 현시점에서 현대 미니멀리즘과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이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의 단순성은 절제와 검소를 추구하고 지금의 미니멀리즘은 사치스러운 이미지와 결합되었다. 개혁교회가 미니멀리즘을 교회에 적용할 때 그것의 상업주의는 경계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미니멀리즘과 프로테스탄트 양자에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사상은 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미니멀 아트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중점을 두고, 나아가 이성보다는 직관에 더 중요성을 둔다. 미니멀 아트는 이성의 근거를 겨냥하지 않고 대신 직관에 의한 표면적인 것을 겨냥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은 기독교 신앙의 원류/뿌리를 끊임없이 찾는다.

3. 개혁교회의 예전과 건축의 실재적 적용

1) 개혁교회 예배당의 특징

츠빙글리의 계승자들은 프로테스탄트 예배당 내부 인테리어에서 오르간과 이콘을 제거했다. 수도원들은 학교를 위한 장소로 세속화시켰다. 예배의 형식과 교회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예전에서 설교의 장소는 더 확대되었다. 예배당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설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종교개혁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미 존재하는 종교 건물, 세속 건물들을 단지 내부 인테리어만 변경해서 예배당으로 다시 사용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테스탄트 예배당의 특별한 장식이 등장한다. 회중들이 설교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교단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3개의 벽에 발코니가 생기게 된다.

19세기 미국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가 부흥운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개신교 신앙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신자들을 모았다. 그때 설교단 뒤 또는 그 주변에 아치형으로 대형성가대가 배치되었다. 몇명의 설교자를 위해서 연단 위 벽면에 세 개의 의자가 설치되었다. 그

앞에는 두 개의 강대상이 설치되었다. 큰 강대상은 설교자를 위한 강단이고, 그보다 작은 강대상은 예배 인도자를 위한 강단이다. 현재의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 예배당은 이 모델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그 신학적, 역사적 기초가 없다.

칼빈은 종교적 이미지(그림, 조각, 형상)를 거절했다. 그에 의하면 예배당 안에 유일한 이미지는 바로 성만찬뿐이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일부 기독교 예배당은 고대의 공회당이었음을 보여 준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예배 장소로 기존의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은 이후 건축된 다른 교회들에게 그 스타일을 부여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 건물들의 초기의 모습들이다. 완성된 형태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독교 공동체는 기존의 건물들과 주택에서 모임을 가졌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예배당

모든 이미지, 이콘들, 제단들이 제거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강대상과 성찬대가 있는 내부 공간의 구성에서 강대상은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강대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6세기는 적응과 새로운 구조물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변형시켰다. 종교 이미지, 성인상, 성화들은 제거되었다. 내부 공간도 재구성되었다. 설교를 위한 강대상과 성찬을 위한 성찬대 외에 기존 성당에 있는 화려한 제단들은 제거되었다.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새로운 건물이 없었다. 오래된 건물(사원)을 재사용하였다. 거기에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였다. 무엇보다 그들

의 신학에 맞게 예배당 내부를 꾸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교단을 높게 위치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모든 이미지, 아이콘, 제단을 제거하고, 제단을 성찬대로 대체하였다. 무엇보다 검소하고 심플한 장식을 하였다. 프로테스탄트가 고딕과 바로크 양식보다는 고전적인 그리스-로마 양식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건축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사이에서만 복잡하고 고급스러워졌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의 예배당들은 일반적으로 박스모양의 형태와 같은 단순한 스타일의 건축이다. 내부 장식 또한 단순하다.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건축도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교회의 교회건물

칼빈은 교회건물을 신성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교회에 주입된 인간적 요소들에 주의하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간으로서 교회 장소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칼빈과 그의 계승자들은 교회당이 세속적인 건물과 구별되지 않는 것, 완전히 평범한 건물로 보이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들은 구원의 열망으로 신앙을 어지럽히는 나쁜 요소들과 싸웠을 뿐이다.⁹ 그러므로 교회당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서 동일시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시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

9 Bernard Reymond, *L'architecture religieuse des protestants* (Genève: Labor et Fides, 1996), 46.

으로 만든 성전에 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 헌납된 장소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을 향한 봉사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과 거룩한 천사들의 현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겸손함과 경건으로 나아가야 한다.

폴 틸리히는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트가 그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은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일부는 실패할지라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신성한 장소의 건설은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렇지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개혁교회 건축에 미니멀리즘과 단순성의 원리 적용

칼비니스트의 단순성과 이미지

칼비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조금은 경직되어 보이고 치장이 없다. 그들의 옷의 색감은 어둡고 우울하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은 치장과 기교의 거부라는 그들의 가치를 담고 있다.¹⁰ 단순성의 이미지가 칼비니스트 예전의 형태에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술 작품의 방식을 예배당의 내부 장식에 사용한다면 미니멀 아트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단순성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존 딜런버거(John Dillenberger)는 말한다. “일반적으로 프로테

10 Laurent Gagnebin et Raphaël Picon, *Le protestantisme : La foi insoumise* (Manhecourt: Flammarion, 2000), 157.

스탄티즘은 시각적인 예술보다 건축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축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예술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미니멀 아트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공간을 강조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미니멀 아트는 개혁신교회 성전의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이다.¹¹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가 현대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배가 매우 시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청중들에게 용이함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예배의 진행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것은 칼빈주의적 교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시각의 종교가 아니라 청각의 종교이다.

예배당의 단순성

개혁신교회 교회들 중에서 설교단이 회중의 정면 가운데 있는 경우는 설교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성경을 정면 중앙에 놓고 설교단을 한쪽 측면에 두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운데 자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워두는 것이다. 중앙의 성경은 말씀의 중요성, 또는 말씀의 계시를 상징한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청중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빈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당의 좌석수를 줄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안 되면 좌석의 크기를 줄이는 것

11 Bernard Reymond, *L'architecture religieuse des protestants*, 79.

도 공간확보를 위한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칼빈교도들이 가진 ‘엄숙’ ‘진지’ ‘무거움’, ‘약간의 경직’, ‘치장하지 않음’ ‘어둡고 우울한 색조’ 등의 이미지를 개혁신교회의 건축에 적용할 수도 있다. 건축 양식은 여러 공동체 각각의 신학적 신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장소에서 시각적 상징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사실 두 명의 종교개혁자, 칼빈과 츠빙글리는 교회 내에 십자가를 거는 것까지 거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능한 미니멀 아트에 의한 단순성의 방식으로 디자인된 십자가 설치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신교회에 적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소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전통의 상징적 소품들도 있다.¹² 또한 각 교파의 엠블럼, 교회력에 따른 상징색들, 성탄과 대림절의 양초 등도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상징물들이 중개자(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장식을 위해서 미니멀한 방식을 사용하여 상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한 건축의 자재들은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벽과 천장은 마치 카타콤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룩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금속과 유리의 소재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차가운 분위기로 빠질 수 있다. 예배당 안에 따듯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인테리어는 목재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회 건축에서 단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배에 적합한 가구를 갖추고, 복잡하고 혼잡적인 표현들, 화려한 장식들은 피해야 한다.

12 예컨대, 물고기, 배, 닭, 포도, 종려나무, 비둘기, ‘AW’, ‘cr’ 등.

가공하지 않는 원료들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식의 미니멀 아트가 필요하다. 예배장소에는 비워져 있는 공간(여백), 활동이 용이한 공간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호화로운 조명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예배 장소의 조명은 간접조명과 자연채광이 좋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가구들과 예전을 위한 소품들과 장식은 검소하고 단순해야 한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3) 칼비니스트 교회의 예배 전통

개혁교회 예전

무엇보다 칼빈은 성찬식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매 주일에 성찬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네바 사람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제네바의 행정 관료들이 칼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배가 더 간편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큰 절기(성탄, 부활, 오순, 맥추) 중에만 성찬을 하였다.¹³ 제네바의 예전¹⁴은 스트라스부룩의 예배보다 더 간단한 형태였다. 칼빈은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찬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3 Thompson B.,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New York: The Word Publishing Company, 1961), 197-210.

14 칼빈의 제네바 주일예배 순서. 1 Invocation 부름. 2 Confession des péchés 죄의 고백. 3 Prière libre pour demander à Dieu la grâce de son Sanit-Esprit 기도. 4 Sermon 설교. 5 Prière d'intercession 기도. 6 Psaume 시편. [성찬] 7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8 Exhortation 권면. 9 Communion 교제. 10 Prière d'action de grâce 축도.

현대 프랑스 개혁교회 예전¹⁵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혁교회 예전에서는 삭제할 요소가 별로 없다. 개혁교회 예전의 뼈대를 유지하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 세 본문 낭독과 침묵의 시간과 짧은 찬송이 그것이다. 찬송은 악보를 의존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짧은 찬송이 들어간다.

4) 단순성의 원리의 적용

설교에서의 단순성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이야말로 단순화의 중요한 작업이다. 칼빈

15 현재 프랑스 개혁교회의 주일 예배 순서(성만찬 포함). 1 PROCLAMATION DE LA GRACE DE DIEU 은총의 선언.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2 LOUANGE 찬양(시편찬양). Chant d'un psaume de louange ou d'un cantique. 3 PRIERE DE REPENTANCE 회개의 기도.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4 DECLARATION ET ACCUEIL DU PARDON 용서의 선언.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5 VOLONTE DE DIEU 자비송.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6 PRIERE AVANT LA LECTURE DE LA BIBLE 기도. Silence 침묵. 7 LECTURES BIBLIQUES excepté le texte sur lequel porte la prédication 성경봉독. 8 LECTURE BIBLIQUE ET PREDICATION 설교. Silence puis moment musical 설교 후 침묵 또는 음악(BGM). 9 CONFESSION DE FOI 신앙고백.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10 OFFRANDE 헌금. 11 PREFACE.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12 RAPPEL DE L'INSTITUTION. 13 PRIERE DE COMMUNION 기도. Silence (침묵). 14 NOTRE PERE 주기도문. 15 INVITATION A LA CENE 성찬. 16 FRACTION - ELEVATION 성체 나눔. 17 COMMUNION 교제. 18 PRIERE D'ACTION DE GRACES 기도. Silence (침묵). 19 ECHANGE D'INFORMATIONS LOCALES ET NOUVELLES DE L'EGLISE UNIVERSELLE INTERCESSION. 20 ENVOI 보냄. 21 BENEDICTION 축도. Chant spontané (자발적 짧은 찬양).

은 이해의 측면에서 예배의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예배는 더 많은 명확함을 위해서 민중들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설교자는 학문적인 방식의 설교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설교에 이어지는 성찬의 행위와 상징 또한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그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들의 상황과 좌절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해되는 것을 바라신다.

예배에서의 단순성

예배의 단순함은 종교개혁의 솔라 피데(sola fide)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예배는 인간의 퍼포먼스가 아니다, 웅변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풍요를 표출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가난함과 포기이다. 예배의 단순성은 신앙의 겸손으로 해석된다. 예배와 성전은 구유와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야 하고, 그러할 때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것을 택하여서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무력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

칼빈은 부적절한 예배 형태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1) 설교자 개인의 견해를 강요하는 것, 2) 바리새적인 예배, 3) 연출된 장면과 같은 예배. 칼빈은 예배드릴 때 자신을 부인하고, 새로운 예전을 고안해내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은 검소하고 단순한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중세

교회의 다음과 같은 형태를 비판했다. 당시 예배는 연출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예배는 대중들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 겉치레, 사치스러운 허영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말한다. 예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미신, 분쟁, 불순종을 없애는 것이다. 예배가 모호한 의식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신자들은 영과 진실로 참여해야 한다. 예전의 명확성은 칼빈에 의하면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의 기능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찬식을 앞두고는 몇 주간 모임을 갖고 교리 교육을 하였다. 칼빈은 예전에서 과장된 포즈들을 반대했다. 불필요한 표현과 포즈들은 예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재세례파 교도들처럼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신교 예배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예배는 “질서와 절차”에 의해 펼쳐져야 한다. 칼빈은 단지 가톨릭 신앙의 의식주의(ritualisme) 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재세례파의 예배도 반대한다. 이 두 모습에는 모두에 인간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우리의 표현이 의식주의처럼 불필요하고 과장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세례파의 예전처럼 자유로운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칼비니스트 예배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하며 인간의 신앙심(piété) 또한 절제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예배의 단순성과 역동성

예전이 “구원의 축제”라면, 예전은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개혁교

회의 예전의 단점은 예배의 형태가 단조롭고 교조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예전적 예배도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서 감동을 느껴야 한다. 한마디로 감동이 있는 예배가 역동성을 가진 예배이다. 그러나 종교적 감동과 세속적 감동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전적 역동성은 대중음악의 콘서트장에서 얻게 되는 역동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세속적 감동은 자아의 만족으로 느끼는 ‘자아중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거룩한 감동은 하나님께 내가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감동이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장로교 예전은 충분히 역동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관람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활발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참여와 역동성이 가미된 칼비니스트 예전이 되어야 한다.

지루한 예배가 단순한 예배는 아니다. 지루함의 이유는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회중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입/착석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은 소극적 참여가 아닌 적극적 참여의 방식이 되도록 한다. 예전적 찬양을 발굴하여 예배에 적용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칼빈은 선함, 진지함, 조화, 기쁨이 표현되는 음악은 창조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잡한 표현보다는 단순한 표현의 방식을 선호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성으로 구성된 시편찬양을 원했다.

나가며

프로테스탄트의 원리 중에 하나인 단순성을 건축과 예전에 적용해 보았다. 그 실천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도움을 받았다.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의 가치와 초기 미니멀리즘이 추구했던 단순성의 철학적 가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된다. 오늘날 상업주의에 경도된 미니멀리즘은 세속적 경제 이론과 결합되었다. 미니멀리즘의 상업화는 프로테스탄트의 단순성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건축은 예술의 한 분야이다. 개혁교회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예술적 작업이 바로 건축이다. 개혁교회 전통은 이미지화를 거부한다. 그러나 교회당을 건축할 때 무조건 이 예술적 미를 경시할 수는 없다. 예술적 표현과 관련하여 어떤 건축적 요소들이 예배당에서 허용될 수 있고, 이미지와 상징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예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비예전적 예배 형식을 모방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나아가 예전적 예배의 지루함 또한 극복해야 한다. 단순하고 절제되면서도 동시에 역동성을 갖춘 예배의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교회사를 보면 인간적, 세속적 요소들에 의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침범을 당하고 변질 되었다.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목표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기반을 둔 단순성의 회복이다. 성과주의, 풍요주의, 맘모니즘의 유혹에서 단순성의 가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현대인의 영성을 고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니멀리즘이 적용된 예배당. 건축가 타다오 안도의 작품>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역동적 관계를 통한 차세대 목회자 세우기 (1)

곽선근

동부선린교회 목사

1. 한국교회의 위기와 목회자 리더십

오늘 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존경심을 상실하고, 외면받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17년)¹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4년 전과 비교해서 답보상태에 있으며, 3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²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서도 3대 종교가 모두 신뢰도가 낮아졌고, 가톨릭 > 불교 > 기독교 순으로 20대와 60대에서는 세 종교 중 기독교가 최하위로 나왔다.³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지난 10년

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1-22.

사이에 850만에서 844만 명으로 6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약 967만 명으로 증가해서 한국 최대 종교로 부상했고, 천주교는 약간 감소, 불교는 급감된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계는 다시 의외의 결과에 충격을 받고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기독교 인구 증가라는 통계조사 결과가 기독교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분석의 결론이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역동성을 상실했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가 그치지 않고, 교회 출석 인구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성득 교수는 애초에 기독교 인구가 급감했던 것이 아니라 2005년 조사에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를 수정할 경우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도 교회 등록 인원은 줄고 있고, 출석 인원은 더욱 줄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통계조사에 기독교로 응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단으로 분류된 교파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또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소위 “가나안교인”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기독교 인구의 증가를 통한 최대 종교 부상이라는 화려한 통계 뒤에는 등록 교인의 감소, 교인의 노령화와 교회학교 재적 인구의 급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드리우고 있다.

4 이대웅, “기독교 인구 지난 10년 사이 정말 더 많아졌나?,” 『크리스천투데이』, 2016년 12월 20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5800>.

여기에 더해서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낮아지면서 대부분의 신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나⁵ 진정한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신학생의 질적 저하와 강단 수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위기 심화는 필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진단이 없이 섣부른 처방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500년 전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교회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부르짖기는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화만을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나로부터의 반성은 외면하는 현실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거대한 개혁의 기회가 타인에 대한 비판과 과시적인 행사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또 다시 500+1을 외치며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지만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불었던 “Again 1907”⁶ 운동처럼 구호만 요란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5 이승구, “성경적 신학교육과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 『장로교회와 신학』 7 (2010), 139-61. 이승구는 신학교육의 질적 재고와 신학교 인증제도를 통한 신학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제안을 하고 있으나, 신학교 정원 미달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6 1907년 1월에 열린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사경회에서 시작된 회개와 성령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교회가 거듭나고, 민족 운동의 불씨가 된 사건을 가리켜서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한다. Again 1907 운동은 1907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평양대부흥운동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꿈꾸기를 바라면서 실시된 운동이다.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대형 교회들의 잇단 세습으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 교회 내의 분쟁, 교회의 사유화와 그에 대한 침묵, 개교회 이기주의, 국민소득의 증가, 문화 상대주의의 만연 등이 대표적인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들이다.

하지만 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은 목회 리더십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목회 리더십의 위기가 바로 한국교회 위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는 “봉사 및 구제 활동”이 1위,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2위였는데 2013년과 2017년에는 순위가 역전되었다.⁷ 그만큼 한국교회의 윤리와 도덕 회복이 중요해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윤리/도덕성”(49.4%)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⁸는 점을 보면 목회자의 윤리/도덕성의 위기가 한국교회의 윤리/도덕성의 위기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은 목회자의 신뢰도 추락과 맞물려 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보다는 영적 소비자 취향에 맞추는 소매점이 되었고, 신앙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⁹ 그 배후에는

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35-36.

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37-38.

9 이문식, “한국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고찰과 반성,” 『목회와신학』 2014년 1월호. 이문식은 한국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편승하여 리더십이 목자형 리더십에서 CEO형 리더십으로, 예능형 리더십(entertainment leadership)으로 바뀐 데서 찾는다.

기독교의 진리 사수보다는 교인들의 욕구에 순응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놓친 담임목사의 리더십의 문제가 놓여 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담임목사에게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교역자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수련생들의 약 95%가 전임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초임 단독 목회가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전임 부교역자는 약 10여 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목사 리더십의 성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곡된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롤 모델이 되어 부교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생산되어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영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위기, 담임목사 리더십의 위기, 부교역자의 위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담임목사의 건강한 리더십 회복과 차세대 목회자로서의 부교역자의 건강한 리더십 형성은 지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상호 성장을 이루면서, 건강한 차세대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본다. 담임목사는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기의 근원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교역자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건강한 차세대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교역자는 신학을 배우고 목회 훈련을 받았으나 아직은 미완의 존재이다. 사역의 자리에서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목회 성과를 내면서도 미래 담임목회를 준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목사

가 차세대 목회자인 부교역자의 성장을 도모하여 목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차세대 목회를 잘 준비하도록 돕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역동적 관계를 통한 차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방법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글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의 전임 부교역자 현황을 정리하고, 다음 글에서는 차세대 목회자로서의 부교역자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교역자의 성장을 돕고, 목회 현장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미래 목회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슈퍼리더십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상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2.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임 부교역자 현황

1) 교회상황통계표상의 목회자 통계와 변화된 목회 패턴

기장에서 교회상황통계보고에 부목사 항목을 넣기 시작한 것이 1991년 제76회 총회부터이다. 전도사의 경우는 교회상황통계표 보고로는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가 구분이 안 되기에 제외한다. 부교역자를 통계표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연도별 교회, 담임목사, 부목사 수의 변화를 도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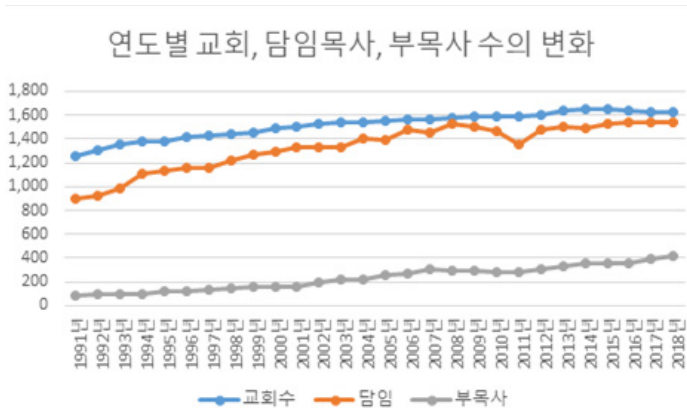
이 도표는 요약해서 표시하였지만, 총회 회의록에 나오는 교회상

10 부교역자를 교회상황통계표에 처음 반영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회의록』(제76회~제103회)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황통계표를 자세히 보면 28년 동안 교회는 1,261개에서 1,631개로 29.3% 증가하였고, 교인 수는 1991년 대비 24.2% 감소하였고, 최고 정점이었던 2008년 대비 30.4% 감소하였다.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

회기	연도	교회수	담임	부목사	비율
76	1991년	1,261	894	83	8.50%
77	1992년	1,303	927	103	10.00%
78	1993년	1,352	987	103	9.40%
79	1994년	1,379	1,103	103	8.50%
80	1995년	1,380	1,132	120	9.60%
81	1996년	1,420	1,163	125	9.70%
82	1997년	1,432	1,160	138	10.60%
83	1998년	1,442	1,224	151	11.00%
84	1999년	1,448	1,268	158	11.10%
85	2000년	1,491	1,294	155	10.70%
86	2001년	1,509	1,329	162	10.90%
87	2002년	1,531	1,336	198	12.90%
88	2003년	1,536	1,335	216	13.90%
89	2004년	1,543	1,407	218	13.40%
90	2005년	1,558	1,394	252	15.30%
91	2006년	1,564	1,473	266	15.30%
92	2007년	1,566	1,450	312	17.70%
93	2008년	1,580	1,524	300	16.40%
94	2009년	1,593	1,501	298	16.60%
95	2010년	1,590	1,471	278	15.90%
96	2011년	1,591	1,353	284	17.30%
97	2012년	1,600	1,478	304	17.10%
98	2013년	1,639	1,506	331	18.00%
99	2014년	1,656	1,486	353	19.20%
100	2015년	1,654	1,522	351	18.70%
101	2016년	1,634	1,543	357	18.80%
102	2017년	1,624	1,537	395	20.40%
103	2018년	1,631	1,535	419	21.40%

<표. 연도별 교회, 담임목사, 부목사 수의 변화>



<그래프. 연도별 교회, 담임목사, 부목사 수의 변화>

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등 전체 목사는 1,272명에서 3,115명으로 144.9% 증가하였다. 부목사는 83명에서 419명으로 404.8% 증가하였고, 원로목사는 75명에서 487명으로 549.3% 증가하였다. 무임목사는 122명에서 402명으로 229.5% 증가하였다.

이 도표를 보면 1991년 담임목사는 894명, 부목사는 83명이다. 전체 목사 대비 부목사는 8.5%이며, 교회 수 대비 부목사의 숫자는 6.6%이다. 2018년 담임목사는 1,535명, 부목사는 419명이다. 전체 목사 대비 부목사는 21.4%까지 늘어났으며, 교회 수 대비 부목사의 숫자는 25.7%까지 늘어났다. 1991년부터 부목사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그 숫자를 교회상황통계표에 포함시켰듯이, 예상대로 전체 목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에는 1,261개 교회 중에 367개(29.1%) 교회가 담임전도사와 준목이거나 공석이었다면, 2018년에는 1,631개 교회 중에서 담임목사가 있는 1,535개 교회를 제외한 96개(5.9%) 교회가 담임전도사

와 준목이거나 공석이다. 이것은 통계표상의 수치이고 주소록을 기준으로 하면 개척교회 포함 1,659개 교회 중에 공석이 84개 교회이고, 담임전도사와 준목이 시무하는 교회가 39개(2.4%) 교회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비중의 변화와 함께 목회 패턴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회 경력을 쌓아가면서 점점 조금씩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전형적인 목회 패턴이었다. 지금은 작은 교회까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하고 있으며,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점점 큰 규모의 교회로 이동하는 교회 규모간 이동 패턴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담임목회 시작 시기도 늦어졌다. 10년 정도를 전임 부교역자 생활하다가 평균 40세의 연령에 담임목사로 취임해서 한 교회에서 중장기 목회를 하는 것이 오늘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2) 노회별 교회 현황 및 전임 부교역자 현황 (2018년 기준)¹¹

아래의 통계에 의하면 전임 부교역자를 둔 교회의 수는 2015년 276개 교회(1,638개 교회 중 16.8%)에서 2018년 현재 308개 교회(1,659개 교회 중 18.6%)로 증가하였다. 전임 부교역자의 수는 2015년 579명에서 2018년 650명으로 3년간 71명이나 증가(12.3%)했다. 부교역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노회는 서울북, 서울남, 서울동, 경기, 경기남, 충북, 충남, 대전, 대전광역, 전남, 전남서, 목포, 광주,

1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8 교회주소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북노회 등이다. 지방 노회의 부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전임 부교역자가 현저하게 늘어난 노회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교역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노

번호	노 회	교회수	전임 부교역자 시무교회	비 율	직분별 부교역자수					부교역자 숫자별 교회수		
					목사	준목	전도사	소계	2015년	1~2명	3~4명	5명 ↑
1	서울	52	16	30.80%	23			23	24	15	1	
2	서울북	50	14	28.00%	34		8	42	34	5	7	2
3	서울남	57	18	31.60%	45	4	22	71	65	9	3	6
4	서울중	40	19	47.50%	21	2	13	36	26	14	5	
5	경기	74	19	25.70%	39	2	11	52	40	12	4	3
6	경기남	60	14	23.30%	29		8	37	31	8	3	3
7	인천	45	9	20.00%	12	1	5	18	18	7	2	
8	경기중부	41	12	29.30%	16		7	23	29	9	2	1
9	경기북	64	8	12.50%	19		2	21	22	6		2
10	강원	49	2	4.10%	5			5	5	1	1	
11	충북	117	19	16.20%	30		15	45	35	13	3	3
12	충남	95	9	9.50%	5	3	6	14	8	8	1	
13	대전	76	13	17.10%	13	1	7	21	21	11	2	
14	대전광역	35	3	8.60%	2	1	3	6		2	1	
15	전북	70	18	25.70%	14		14	28	36	15	3	
16	전북동	120	12	10.00%	27			27	42	10	1	1
17	군산	82	21	25.60%	29		12	41	33	16	4	1
18	익산	69	10	14.50%	10		1	11	10			
19	전남	56	3	5.40%	3		4	7	28	1	2	
20	전남서	41	3	7.30%	2		2	4		3		
21	목포	47	11	23.40%	9	1	16	26		7	3	1
22	광주	67	15	22.40%	15		13	28	23	12	1	2
23	광주남	79	8	10.10%	7	1	3	11	9	7	1	
24	경북	64	13	20.30%	10	2	7	19	9	12	1	
25	대구	33	3	9.10%	4		4	8	7	3		
26	경남	15	7	46.70%	5		4	9	11	6	1	
27	부산	33	3	9.10%	1		4	5	3	3		
28	제주	28	6	21.40%	8		4	12	10	5	1	
계		1,659	308	18.60%	437	18	195	650	579	230	53	25

<표. 부교역자 수의 변화 **현저하게 늘어난 노회**, **현저하게 줄어든 노회**>

회는 경기중부, 전북, 전북동노회 등 3개 노회이다. 나머지 10개 노회는 부교역자의 숫자에 큰 변화가 없다.

위의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교인의 숫자는 최고 정점을 기록했던 해에 비해서 2018년 현재 30.4%나 감소하였으나 목회자와 전임 부교역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전임 부교역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수도권 5개 노회의 전임 부교역자 수는 220명에서 262명으로 19.1% 증가하였는데, 현저하게 증가한 지방의 10개 노회는 157명에서 222명으로 41.4%나 증가하여 지방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보다도 교인수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진 지방에서, 전임 부교역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은 더 커진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목회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성도들의 헌신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인의 숫자는 줄어도 전임 부교역자의 숫자는 더 늘고 있는데, 전임 부교역자 부족에 대한 체감도가 큰 이유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교역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부교역자의 공급을 무한 늘릴 수가 없는 것은 현재 부교역자의 담임목회 시작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91년에는 20대 전도사 때부터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30대에 전임목회를 시작하고, 40대에 담임목회를 시작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 가면 당분간은 첫 담임목회 시기가 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고, 담임목사의 고령화, 목회자의 영적 패기의 상실, 현장 교회의 생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목사후보생의 숫자가 2018년 현재 342명으로, 450명~500명 대였

던 지난 20년간의 숫자에 비해서 줄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목회자 수급의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에는 전체 교인수 감소와 전임 부교역자의 숫자의 증가, 지방 노회의 전임 부교역자의 압도적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부교역자 요구의 증가, 점점 늦어지는 첫 담임목회 시작 나이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점점 늘어나는 부교역자의 수요를 무한정 목회자로 채우는 것은 교단 전체적인 목회자 수급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전문화된 평신도를 양성하고, 지교회에서 장기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화된 부교역자의 요구를 해소시켜야 하겠다.

3. 한국기독교장로회 부교역자에 대한 설문조사

1) 자료의 수집

필자는 기장 소속 전임 부교역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임 부교역자가 1인 이상 시무하고 있는 276개 교회 전체에 담임목사용 276부와 부교역자용 579부의 설문지를 취지 설명문과 함께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그중에서 담임목사용 67부(24.2%)와 부교역자용 155부(26.7%)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결측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한 담임목사용 59부와 부교역자용 142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담임목사의 설문 응답 분석

설문에 응답한 담임목사 59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

과 같다. 담임목사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0.3%, 50대가 45.8%, 60대 이상이 33.9%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적 성도 수와 관련하여 100~300명이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500명이 20.3%, 800명 이상이 16.9%, 500~800명이 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40~49세	12	20.3
	50~59세	27	45.8
	60세 이상	20	33.9
	합계	59	100
재적 성도 수	100~300명	30	50.8
	300~500명	12	20.3
	500~800명	7	11.9
	800명 이상	10	16.9
	합계	59	100
부교역자의 평균 사역 기간	24개월 미만	7	11.9
	25~36개월	22	37.3
	37~48개월	14	23.7
	49개월 이상	16	27.1
	합계	59	100
부교역자의 적절한 사역 기간	1~2년	0	0
	3~4년	34	57.6
	5~6년	15	25.4
	6년 이상	10	16.9
	합계	59	100
담임목회 시작에 적합한 나이	30~34세	6	10.2
	35~39세	17	28.8
	40~44세	30	50.8
	45세 이후	6	10.2
	합계	59	100

	구분	빈도	퍼센트
담임목회 시작에 적합한 나이	30~34세	2	3.4
	35~39세	13	22
	40~44세	33	55.9
	45세 이후	11	18.6
	합계	59	100
부교역자 주요업무(중복응답)	행정	28	24.8
	설교	15	13.3
	교육	45	39.8
	심방	20	17.7
	기타	5	4.4
	합계	113	100
부교역자의 어려움(중복응답)	설교	12	20.3
	인사이동	8	13.6
	휴식	3	5.1
	물질	11	18.6
	관계	25	42.4
	합계	59	100
부교역자의 부족함(중복응답)	소명의식	11	16.7
	책임감	12	18.2
	영성	26	39.4
	능력	6	9.1
	기타	11	16.7
	합계	66	100

<표. 담임목사의 설문 응답 분석>

부교역자에 대한 담임목사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의 평균 사역 기간은 25~36개월이 37.3%로 가장 많았고, 37~48개월이 23.7%, 49개월 이상이 27.1%였다. 한 교회에서의 적절한 부교역자의 적절한 사역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3~4년이 57.6%로 가장 많았고, 5~6년, 6년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1~2년이라고 응답한 담임목사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부교역자의 평균 사역 기간에 24개월 미만이 11.9%를 차지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가 몇 살에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40~44세가 50.8%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28.8%, 그리고 30~34세, 45세 이후가 그 뒤를 따랐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가 몇 살에 담임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40~44세가 55.9%로 가장 많았고 35~39세, 45세 이후가 그 뒤를 이었고, 30~34세라고 응답한 담임목사는 3.4%로 가장 낮았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가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중복응답을 받았는데 교육이 39.8%로 가장 많았고, 행정, 심방, 설교, 기타가 뒤를 이었다. 부교역자가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계의 어려움이 42.4%로 가장 많았고, 설교, 물질, 인사이동이 뒤를 이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에 대해서 가장 미약하게 느끼는 부분은 영성이 39.4%로 가장 많았고, 책임감, 소명의식, 능력이 뒤를 이었다.

3) 부교역자의 설문 응답 분석

설문에 응답한 부교역자 142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교역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8.5%, 31~35세가 26.8%, 36~40세가 30.3%, 40세 이상이 34.5%로 4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분은 목사가 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도사 41.5%, 준목 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30세 이하	12	8.5
	31~35세	38	26.8
	36~40세	43	30.3
	40세 이상	49	34.5
	합계	142	100
직분	목사	81	57
	준목	2	1.4
	전도사	59	41.5
	합계	142	100
재적 성도 수	100~300명	43	30.3
	300~500명	24	16.9
	500~800명	11	7.7
	800명 이상	64	45.1
	합계	142	100
담임목사님과 함께 일한 기간	12개월 미만	34	23.9
	13~24개월	33	23.2
	25~36개월	26	18.3
	37개월 이상	49	34.5
	합계	142	100
부교역자의 적절한 사역 기간	1~2년	4	2.8
	3~4년	89	62.7
	5~6년	38	26.8
	6년 이상	11	7.7
	합계	142	100
담임목회 시작하기 적절한 나이	30~34세	4	2.8
	35~39세	16	11.3
	40~44세	84	59.2
	45세 이후	38	26.8
	합계	142	100
담임목회 시작할 수 있는 나이	30~34세	12	8.5
	35~39세	22	15.5
	40~44세	78	54.9
	45세 이후	30	21.1
	합계	142	100

구분		빈도	퍼센트
부교역자 주요업무(중복응답)	행정	73	28.2
	설교	37	14.3
	교육	74	28.6
	심방	64	24.7
	기타	11	4.2
	합계	259	100
부교역자의 어려움(중복응답)	설교	38	24.1
	인사이동	14	8.9
	휴식	32	20.3
	물질	22	13.9
	관계	52	32.9
	합계	158	100
부교역자의 부족함(중복응답)	소명의식	5	3.3
	책임감	14	9.2
	영성	64	42.1
	능력	45	29.6
	기타	24	15.8
	합계	152	100

<표. 부교역자의 설문 응답 분석>

한 전임 부교역자 교회의 재적 성도 수와 관련하여, 800명 이상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300명이 30.3%, 300~500명이 16.9%, 500~800명이 7.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임 부교역자가 현재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한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7개월 이상이 34.5%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미만, 13~24개월, 25~36개월이 그 뒤를 이었다.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의 절절한 사역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4년이 62.7%로 담임목사의 응답보다 더 많았고, 5~6년이 26.8%였다.

몇 살에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응답은 40~44세가 59.2%로 담임목사의 응답보다 더 많이 나왔고 45세 이후가 26.8%로 나왔고 35~39세, 30~34세가 뒤를 이었다. 45세 이후에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담임목사에게서는 10.2%로 30~34세와 함께 공동 세 번째로 응답이 나왔는데, 부교역자에게서는 26.8%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특이하다. 몇 살에 첫 담임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0~44세가 54.9%로 가장 많이 나왔고 45세 이후가 21.1%, 35~39세가 15.5%, 30~34세가 8.5%로 뒤를 이었다.

몇 살에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와 몇 살에 담임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담임목사나 전임 부교역자가 40~44세로 압도적인 비율로 대답을 한 것은 점점 늦어지는 담임목회 시작 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교역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교육, 행정, 심방, 설교 순으로 응답했다.

부교역자로서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은 담임목사 혹은 다른 부교역자와의 관계가 32.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설교, 휴식, 물질, 인사이동이 뒤를 이었다. 다른 항목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부교역자가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부교역자 자신과 담임목사의 응답은 상당히 다르게 나왔다. 담임목사에게서 더 높게 나왔다. 부교역자가 관계를 더 어려워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부교역자의 휴식 문제에 대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응답률도 큰 차이가 있었다. 담임목사는 부교역자가 휴식의 문제에 5.1% 응답한 반면에 부교역자는 20.3%로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담임목사는 부교역자가 더 많이 배우면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교역자는 늘 긴장하면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교역자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성이 42.1%, 능력이 29.6%, 그리고 책임감과 소명의식 등이 뒤를 이었다. 담임목사는 이 부분에서 능력의 부족을 9.1%로 응답했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의 부족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담임목사는 부교역자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책임감과 소명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본다.

4. 결론

교회상황통계표와 교회주소록을 통해서 분석한 기장 총회의 현재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교인수의 급감, 교인의 노쇠화, 교회학교의 급감.
- 2) 교회수의 완만한 증가, 전임 부교역자 시무 교회 수의 지속적 증가.
- 3) 전임 부교역자, 원로목사 수의 급증, 목사후보생 수의 급감.
- 4) 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 교역 의무제에 따라 지방에서의 부교역자 수의 급증에도 부교역자 청빙 애로.
- 5) 점점 늦어지는 첫 담임목회 시작 나이.
- 6) 교회 규모간 목회자 이동의 급감과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의 중장기 목회 경향.

이런 상황 때문에 부교역자는 10여 년간의 전임 부교역자 시절에

목회 지도력을 잘 키워서 첫 담임목회를 시작한 곳에서 시행착오나 실패 없이 목회를 잘 감당해야 한다. 교인수가 급감하고 있고, 노쇠화 되어가고, 교회학교조차 쇠퇴하는 기장의 미래가 담임목사 대비 21.4%를 차지하고 있는 전임 부교역자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부교역자를 훈련시키려고 해도 세대의 차이, 방법의 미숙, 부교역자의 절박함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차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담임목사에게나 부교역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목회 현장을 살리고, 기장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다. 다음 글에서 차세대 목회자로서의 부교역자를 정의하고,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역동적 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다루겠다.

‘가까운 미래’, 초동교회 목회이야기

손성호

초동교회 목사

초동과 함께 달려온 7년

2012년, 40세에 초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전통과 자부심을 겸비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도심지 교회의 난제들과 고령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함경도 출신으로 구성된 1세대 교인들의 교회사랑은 대단합니다. 이미 조향록 목사님께서 어느 해 창립기념 주일에 하셨던 말씀, “초동교인들은 그 영혼을 초동교회에 묶어 버렸다”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중구 초동에서 종로 3가로 1972년도에 옮겨왔습니다. 조 목사님은 처음에 ‘종삼교회’로 이름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선 척박한 ‘종삼’으로 교회를 옮기는 대신 ‘이름만은 남기자’는 교인들의 뜻을 받아들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동교회 종탑은 종이 세 개 매달려 있습니다.

초동의 자녀세대(2세대)는 자유롭게 그들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

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이복출신들의 열심이 더해져 대부분 좋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오늘의 교회에 어려움도 됩니다만,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흠어져 여러 교회에서 섬기며 믿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처에서 목회자로, 교회의 중직자로, 나아가 전 세계에 흠어져 삶과 신앙을 이어가는 초동의 2세대들! 고마운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영적 고향을 초동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유람하며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성장을 위해 억지로 붙잡고 순식간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놓는 수평 이동의 현실에서 신자들이 ‘내 교회’라 부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내로라하는 교회들이 즐비한 지역에선 교회를 옮겨도 자신이 ‘그 교회의 교인’이라 생각지 않고 ‘그 지역의 교인’이라 생각한단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동교회는 그 점에서 다릅니다. 그들의 현재는 특정 교회의 교인이요 일꾼입니다만, 그 신앙의 뿌리는 ‘초동’입니다. 그렇게 이 유서 깊은 교회는 사방으로, 외국에까지 신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 4세대입니다. 본 교회를 지킨 2, 3세대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늘어갑니다. 기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회학교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형교회 교회학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갈수록 영아와 유치부, 어린이부가 늘어갑니다. 온 교회가 기뻐하며, 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쏟습니다.

이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초동교회의 ‘거룩한 예전의 전통’을 잘 지키고, 제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솔직함과 겸

손함으로 목회하려 했습니다. 대신에 말씀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군더더기와 사담, 한담, 목회자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이나 감정을 배제한 설교와 성경연구를 하려 무던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시작한 초동목회에서 제가 한결같이 지켜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아들처럼, 어린 사람들에게겐 형처럼, 비슷한 연배의 신자들에게엔 친구처럼” 그리고 ‘아무개 목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인들도 목사 이름을 앞세워 교회 자랑하고 소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초동교회의 손성호’로 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신자는 독수리같이 날개 쳐 올라 갑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초동교회를 통해 날아오르고 초동교회는 저를 통해 날아오르는,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늘 ‘거룩한 비상’을 꿈꾸며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초동의 결속력과 교인들의 교회사랑은 다 열거할 수 정도입니다. 교회의 모토는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자칭 참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칭 참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과 세상이 그렇게 불러줄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경주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서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가족’,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따뜻한 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올해 ‘사랑으로 행하라’(고전 16:14)를 표어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기해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행에 옮기어 역동적인 신앙적 삶을 구현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서로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교회,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 모든 바람과 기대를 모아 저는 교회의 오늘을 다지고, 내일을 여는 새로운 해로써 올 초에 ‘초동 르네상스’를 선언하였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가족 같은 교회, 그 안에서 문턱을 낮추어 이웃과 공감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린 교회가 되자! 역사와 전통으로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우리 안에는 과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초동을 ‘기억하는 세대’와, 걸음이 더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는 교회현실을 ‘아파하는 세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회복의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는 세대에게는 희망과 꿈울! 이로써 명실공히 전예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참교회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교회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저는 지난해 7년차 안식년을 맞아 재충전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분산되어 있던 여러 비전들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고, 신도의 영적 훈련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사역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일기 운동과 사랑가족 운동

신도의 영적 훈련과 성령의 사역을 위한 두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감사일기 운동’입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여 자기 일상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정, 비관, 불만, 불평을 제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생활을 다져보자는 취지입니다. 하루하루 써 내려가도 좋고, 마음이 닿는 대로 써도 좋습니다. 참가하는 교우들에게 ‘초동교회 감사일기 노트’를 드리고, 기록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지고 시선과 말을 바꾸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체화시키려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일기를 추수감사주일 제단에 ‘우리의 감사’로 봉헌하고, 글들을 모아 ‘초동교인들의 감사이야기’로 책을 엮어 다음세대에 전해주려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가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가정(가족)단위로 참여하며, 교회가 부탁한 교우 한 사람을 남모르게 섬기고 돌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앞서 감사일기가 가시화된 영성훈련이라면 사랑가족 운동은 드러나지 않게 나누는 훈련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믿음의 한 가족’을 구현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유기체인 교회에 자연스럽게 체화될 것입니다.

네 바퀴로 달리는 초동교회

초동교회는 앞으로 이뤄가야 할 이상과 비전을 다음 네 가지로 압

축했습니다. ‘청년, 문화선교’, ‘제2초동교회 개척선교’, ‘지역사회선교 확장’, ‘통일(준비)선교’. 다양한 선교사업을 때와 시기에 맞춰 조율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초동 청년 르네상스

우선해야 할 것은 ‘청년 문화선교’입니다. 수년간 교회당 1층 카페를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일에만 ‘선한목자 카페’(카페로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를 외부 위탁하여 카페로 운영하는 것과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나아가 리모델링하여 작은 예배당과 모임공간을 활용하자는 건까지 다양한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논의만 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채 이 좋은 공간이 별다른 용도 없이 수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최근 한옥을 개선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익선동’이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사동에서 익선동을 잇는 ‘문화의 거리 벨트’가 교회와 인접합니다. 새로운 청년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 주변이 새롭게 되살아 날 전망이 밝습니다. 더하여 고시와 취업을 위해 상경한 청년대학생들이 거주하는 고시촌, 여행자들의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시설이 주변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1층 카페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선교, 문화선교를 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을 개조하여 ‘스터디카페’로 리폼하는 일과, 커피머신과 드링크 머신을 배치하여 운영을 간편하게 하는 일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요즘 세대들을 위해 개방하고, 그들로 자연스런 청년 커뮤니티를 형

성케 해 주는 일 등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베이스캠프’가 있어야 하듯, 1층 카페를 ‘스터디공간이자 카페(비영리)’로 개방하고 작은 공연과 토크콘서트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운영은 교인들로 구성된 ‘청년문화 선교사역단’이 합니다. 교회의 다른 공간들 또한 개방하여 2층 난곡홀을 공연 및 문화행사시설로, 3층 세미나실들을 ‘문화교실(아카데미)’로 발전시켜 젊은이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문화와 영성의 장을 만들어주는 교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과거 초동교회가 청년대학생들이 이상과 꿈을 가지고 보다 열린 진보적 그리스도인으로 모였던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힘을 더해주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초동 청년 르네상스’가 될 것입니다.

2) 참 교회 르네상스

초동교회는 그간 국내외로 여러 교회를 개척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잠시 그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시다만 그간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자립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했고, 그저 똑같은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사회적 지도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교인의 증가, 청년들의 이탈, 교회학교의 쇠락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참교회, 참그리스도인’의 이상이 간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더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사람들의 영적 갈망과 신앙적 필요를 채워줄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를 목회자나 당회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단계부터 신도회와 교우들이 생각을 모으고, 함께 토론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교회적 합의를 이를 때까지 의논하고,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나름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려 합니다. 이곳 종로의 모 교회는 ‘문화와 선교’를 주축으로 부흥을 이루며, 새로 세워질 교회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신앙공동체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유한 ‘안성수양관’은 함께 활용될 것입니다. 교역자를 파송하고, 교회가 지원하며, 근처 교우들도 협력해 줄 것입니다. 가칭 ‘제2초동교회’를 통해 선교적 도약을 이루는 미래, ‘참교회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3) 이웃사랑 선교의 르네상스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이웃들에게 문턱이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문을 열게 하였고, 지금은 놀라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최대 20여 명이 함께 ‘돈의동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헌신된 이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매월 40명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선교관 1층에 만든 ‘돈의동 선교센터’에서 ‘사랑방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찬송과 기도, 말씀과 열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웠던 사람들에게 ‘초동교회’가 좋은교회로 인식되고, 목회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일 11시, 지하 1층에서는 70여 명이 모이는 ‘나눔식탁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로지역은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무료급식

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주일 점심시간에는 없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교인들이 뜻을 같이하여 이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발적 나눔을 교회가 수용하여 공간을 개조하여 자체 예배와 식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역을 ‘교회 안에 교회’라 하여 새로운 지역선교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 교회적으로 이 사역에 공감하여 봉사와 후원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초동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시설로 지역 내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해 어머니들이 새로 등록하여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기쁨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초동학사’도 있습니다. 교회 옆 선교관 3층을 개방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여학생들의 숙소로 제공합니다. 기장교단에서 서울지역 유일의 ‘초동학사’로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섬김용사 운동’은 지난 2007년 전임 강석찬 목사님의 기도와 결단으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은 헌신으로 봉사와 나눔의 실천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 초동의 지역사회선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처음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한 봉사자들의 섬김과 정신이 새로운 봉사자들에게 계승되는 일,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역들을 한데 모아 하나된 힘으로 발전시키는 일,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 선교, 요양보호사업을 추진할 새로운 ‘사회복지 선교’를 연구실행하는 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초동이 종로를 넘어 서울의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웃사랑의 르네상스’입니다.

4) 평화 르네상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역사와 시대를 향해 가장 열심을 더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교’입니다. 우리 초동교회가 전통적인 고딕양식의 그럴듯한 모양새로 지어지지 않고 마치 일반 빌딩처럼 지어지고 선교센터라 이름했던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꿈처럼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요, 베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같이 완성된 초동교회는 통일된 조국에서, 떠나온 고향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꿈을 어른들은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양식이 아니라, 처음 믿음을 시작했고 신앙과 사랑의 빛을 남겨두고 온 그 땅에 통일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 날을 꿈꿉니다. 복음에는 좌우가 없으며, 진리에는 이념이나 사상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화해와 평화, 사랑의 복음으로 세워질 통일시대 교회를 준비하며 먼저는 이 땅에 들어온 ‘탈북이주민 선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신도회(아브라함회)를 중심으로 ‘여명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장차 그 날이 오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많은 눈물로 고향을 찾게 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 중에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를 적극 도우려 합니다. 북한 땅에는 이미 적지 않은 수의 ‘지하교회’가 존재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료지원을 하고, 궁핍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 신학자들을 통해 평화신학과 통일신학을 정립하고, 교우들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 땅, 이 민족의 역사 안에 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는 초동교회를 처음 세우신 어른들이 남긴 신앙의 빛, 사랑의 빛에 대한 후배들의 마땅한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섬김, 자원하는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님은 이 꿈과 비전을 ‘시대와 교회의 표적’이 되게 해 주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초동교회를 사랑한 이라면, 오늘도 분명 사랑하고 있으며, 내일도 사랑할 사람입니다. 다만 때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랑할까’를 달리해왔을 뿐입니다. 지금은 더욱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먼 훗날 언젠가로 미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곧 다가올 시대이며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실천함으로 시대와 교회의 표적이 되는 초동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동네에 임하는 하나님나라

박훈서

군산 행복한교회 목사

목회자로서 교회는 숙명같은 존재다. 자신과 공동체의 생명(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급변하는 시대의 물음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성경을 펼쳐놓고 교회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전하는 처음 교회의 시작은 교회가 생동하는 유기체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무리 조직과 행정이 목회의 방법을 수월하게 해도 근본적인 목회철학이 성경에서 함의한 ‘교회의 생명’을 지나친다면 목회자보다는 목회거나 목회사라 바뀌더라도 큰 이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는 분야에 전문가라 하지만 교회 전문은 교회를 만드신 이가 가장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겠나? 종과 도구로서 자신을 낮춰 부르거나 불릴 때, 그 단어의 의미대로 목회자가 교회의 생명(생존)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는 교회론의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다.

교회 가는 길을 묻다 : 교회 개척의 고통

9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군산이란 중소도시에서 교회를 개척, 설립하게 되었다. 생면부지 연고도 없는 군산에서 개척을 결심했다. 개척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낡은 예배당 건물을 인수 받아 개척을 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개척하는 것인데 이사 전에 낡은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고 싶었다. 지역의 목사님 소개로 어느 교회 집사라는 업자들을 만나 공사를 맡겼다. 그를 믿고 건축비를 지불했지만 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귀국 후 새 건물 같은 교회당에 들어가 목회만 하면 될 줄 알았던 나를 기다린 것은 여러 장의 내용증명 서류들과 빚 독촉하는 일꾼들이었다.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고 숨을 돌렸지만 아내와 아들 딸 네 식구로 시작한 교회개척은 시작부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우리 가족 네 식구로 시작해 겨우 한 사람 한 사람 채워가도 우리 교회로 전도된 알콜 중독 할머니도, 수급자 가정들도 봄, 가을만 되면 빠져나갔다. 1년에 두 번 이상은 총동원 전도행사들로 접근하는 타 교회 전도단들이 심약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래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위한 예배와 활동은 포기할 수 없었다. 교회당 한편에 사택공간을 마련해 지내면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승합차를 구입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힘겹게 준비한 승합차량을 1년이 안 되어 도난당했다. 주일 아침에 차량운행을 위해 교회로 갔는데 전날 주차한 차량이 없어졌다. 며칠 후 저녁 뉴스 시간에 내 차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차량전문털이범 일당이 서천, 장항, 군산 일대를 다니며 차를 훔쳤는데 그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이었다. 내 차량은 군산에서 도난

당한 5대 중 하나였다. 그 허망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은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으로 가난한 우리 가족의 1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외식은 언감생심, 우리 가족은 오로지 집밥으로 살았기에 “쌀이 떨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구입한 차량을 우리 손으로 처분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야 누구에게든 이 이야기를 하며 알아서 차량을 처분해준 그 차량털이범들을 ‘도둑님들’이라고 부른다고 너스레를 떤다.

이 황당한 영화 속 장면 같은 일들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다. 이전의 교회가 떼어놓고 간 건물의 외부 십자가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고물로 버리자니 웬지 꺼림칙해서 교회 건물 뒤편의 안전펜스를 세울 때 용접해서 달아 뒀다. 어느 날, 이 십자가 조형물에 자기 얼굴을 다쳤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과일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병실에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형편도 그랬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이 일로 1년 넘게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 소송 문제로 압박받으면서 나와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결국 쌍방간 소송에 들어가면 쓸 수밖에 없는 변호사 선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봤다. 그 돈도 아까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개척 3년 6개월 동안 이 모든 일을 당하였고, 교인들이 생겨도 어려울 때마다 떠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흔히 기도하면서 개척할 임지를 만나면 부름받았다고들 하지만, 난 그 응답을 되물어야 할 판이었다. 내 목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코털을 묵상하다 : 코털 목회와 성전을 떠난 그리스도인

자신감과 소망이 꺾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도 함께 꺾였다. 아픔도 핍박도 고독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일궈놓은 선교지의 영광스러운 기억도 함께 있었다. 그곳은 공안과 같은 외압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이란 거룩한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의 개척목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정말 치사하고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 나 자신이 부끄럽고 용기를 잃어갔다. 겨우겨우 생활을 견뎌갔기에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예배 강단에서 끝장을 보겠노라 호언하고 독거를 자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도도 찬송도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힘들어졌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석기시대 원시인 같은 자가 서 있었다. 형클어진 더벅머리에 수염도 숭숭 자란 그 초췌한 얼굴을 보자니 ‘나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하는 놀람과 슬픔, 한편에서는 분노가 솟구쳤다. 그때 내 얼굴의 어느 한 부분에서 눈길이 멈췄다. 콧구멍으로 딱 한 가닥의 흰 코털이 인중 가까이 자라나 있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기억나며 깨달음이 왔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2-23)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4-5)

주변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 인근에 28개 정도의 교회가 밀집되어 있다 - 그 경쟁적 분위기에 늦게 개척목회를 시작한 나는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기억하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 위로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했던 내 몸의 지체 가운데 코팅이 주는 소중한 기능을 내 목회에 적용하게 되었다. “그래, 작아도 꼭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리라. 손의 목회, 발의 목회, 눈의 목회 등 다른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자책하지 말자. 나만의 호흡을 가지고 내 몸의 필터가 되는 코팅처럼 목회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코팅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한 것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었고, 남아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었다. 선배 목회자들이 “목회는 이래야 돼”하면서 끌고 다녔던 수많은 컨퍼런스와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목회와 작별을 고했다. 그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체계와 양식, 서류들, 응당 그렇게 꾸미고 지켜왔던 교회당과 예배실 환경과 기물들의 배치 등 모든 익숙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영혼을 담지 못했던 외식들과 과감히 결별하였다. 어설픈 교회론(論)에 걸쳐났던 습관들을 교회관(觀)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성전으로 믿었던 건물에서 자유함의 성막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나라를 “신고합니다” :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나라, 착한동네



교회당 건물 중심의 목회와 작별을 고하면서 그 날 이후로 내내 동네를 돌아다녔다. PC수리점 아저씨, 문방구, 학원 등등, 교회당 밖을 나와야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전도용품과 명함과 성경을 들고 만났던 3년 전이 아니라 이웃인 내가 다른 이웃을 환대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들이 내게 이웃이기 전에 내가 그들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핸드드립 커피 도구들을 휴대용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차 대접을 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다. “이웃들이 살면서 많이 웃고 만족해하는 자랑스러운 동네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우리 동네가 그런 착한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힘을 실어주면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그렇게 시작한 착한동네 만들기 꿈을 놀랍게도 이웃들이 들어주기 시작했다.

착한동네는 우리가 사는 원룸촌 골목에서 시작해서 군산과 더 넓

은 세상으로 번져가는 하나님나라이다. 종교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간판을 “하나님나라”라 붙이지 않고 “착한동네”라고 붙였다. 실제 이 착한동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는, 우리 동네 안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이다. 뜻을 알든 모르든 이웃들은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고 있다. 아직 소수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 중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착한동네 만들기

1) 미리내 나눔운동과 기부(GIVE)카페

나는 전라북도에서 최초의 미리내가게로 착한동네 건물 카페를 열어 이웃을 돕는 건전한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미리내가게’는 손님이 자신이 먹을 음식이나 물품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남은 돈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이나 물품 대금을 대신 미리 지불하는 나눔운동을 실천하는 가게이다. 카페를 찾는 지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군산여상 청소년들이 누군가 미리 내준 카페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우체부와 환경미화원, 순찰하는 경찰, 택배원이 그런 혜택을 맛본다. 이웃들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미리내 나눔을 통해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더 보람을 느끼고, 진짜 우리 동네가 착한동네라고 자랑한다. 이 미리내 기부금은 반찬봉사나 방문봉사, 병원동행,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해 전달해주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다.

2) 나눔강좌와 무지개 작은 도서관

당초 착한동네의 취지처럼 유형의 재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문화활동 등의 무형의 나눔도 중요했다. 이는 착한동네의 “무지개작은도서관” 공간을 이용한 나눔강좌를 통해 실행했다. 나눔강좌는 “배워서 남주자”, “동네에서 배우자”, “나눔에서 또 하나의 나눔으로”라는 취지의 재능기부 강좌다. 이 취지를 이웃들에게 알리니 미리내가게를 오시는 손님들 중 한두 분이 재능나눔의 의지를 보여주셨다.

“저는 천연화장품을 만들 줄 아는데 그것도 기부가 되나요?”

“그럼요. 강좌를 개설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눔강좌가 냅킨아트, 책놀이터, 이침교실, 사진강좌, 쿠키클레이, 음악이야기, 역사날밤새기(근현대한국사), 영어말하기, 우쿨렐레, 오카리나, 한지공예, 미니드론 등이다. 군장대 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와 한지모던아트조합은 한지(닥섬유) 공예를 통해 자선전시회와 강좌를 열어 미리내로 기부하고 있다. 지금도 나눔강좌는 이웃들의 재능기부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3) 이웃숨씨 전시회와 목상갤러리 품

“목상갤러리 품”은 나눔강좌를 통해 취미로 배운 손뜨개질이나 한지 작품들, 사진과 캘리그래피 작품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전시해 준다. 이웃들이 폰으로 찍은 사진과 아이들의 낙서도 걸어준다. 액자로 만들어주면 모두 굉장한 작품이 된다. 보통 학교나 대회에서는 우수한 실력의 작품만 전시를 한다. 하지만 착한동네는 “나눔은 곧 응원이고 우리는 누구나 응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 없이

무엇이든 소중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응원과 격려를 하는 이웃섬씨전 시회는 별 것 아닌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전시회다.

평소 갤러리 품은 누구든 찾아와 전시품을 보며 쉬기도 하고, 기도와 명상도 하는 공간으로 항상 개방해놓고 있다. 작품 앞에 배치된 의자에 앉아 쉬며 생각에 잠기다 그림에 감정이입 되어 울다가는 이들도 있다. 수험생 부모들의 기도처가 되기도 하고, 동네 목사인 내게 기도를 부탁하는 쪽지들을 붙여놓기도 한다. 이따금 나그네의 숙소가 되기도 하는 이곳은 내게도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순례의 출발지이다.



4) 골목길로 번져가는 착한동네

우리 동네 원룸촌은 안타깝고 슬픈 사연을 안고 은둔하는 이웃들이 꽤 있다. 아직은 통성명도 제대로 못했지만 흘러드는 이웃들의 소식은 쉽게 지나칠 수 없게 한다. 이분들을 응원하고 밝게 지낼 수 있

도록 원룸 공간에서 동네라는 세상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원룸촌에 있는 300m 길이의 흉물스러운 초등학교 옹벽축대에 마을 벽화를 그리기로 하였다. 카페 수익과 개인후원으로 시작했는데 활동의 취지와 사연을 듣고 군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했다.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어 200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화와 놀자”라는 주제로 마을벽화를 그렸다. 삭막했던 동네길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봄, 가을마다 공연팀을 초청해 착한동네 앞 작은 골목광장에서 마을문화공연을 열기도 한다. 기부카페에서 1월부터 매일 1만 원씩 저금해서 공연비를 마련했다. 부족한 금액은 이웃들이 십시일반 기부해서 행사를 치렀다. 영상, 음향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재능기부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의자와 차량통제에 도움을 주었다. 150명 이상이 모였는데 무엇보다 가장 기뻐던 것은 원룸촌을 오가며 마주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객석에 앉았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우리가 두고 있는 미혼모 가정도 있었다. 공연을 마치며 이웃들에게 1000원 이상, 마을 문화공연을 위한 미리내를 부탁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음 공연을 위한 종자돈이 마련되었다.

5) 착한장터와 비영리단체 착한동네

겨울을 맞기 전에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들의 겨울철 난방 지원을 위한 착한장터를 열었다. “착한일 미리내”를 통해 주로 지원하는 것이 반찬나눔 봉사인데 매달 5, 6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난방비를 따로 지원할 수 없었다. 전기장판으로만 추

운 겨울을 지내는 이분들이 걱정되어 고민을 이웃들에게 얘기했더니 몇 분이 함께 착한장터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 착한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독거 어르신 댁에 난방시트 시공, 온수기 설치, 전기세 체납금 등을 해결했다. 광고기획을 하는 이웃은 일체의 홍보물을 제작해주었고, 장판집 사장님은 장판을 깔아주었고, 난방시트 시공하시는 분은 원가에 물품을 제공해주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3개월분 난방비를 전달하고, 전기설비 수리와 시공도 도왔다. 이 행사를 계기로 “비영리단체 착한동네”가 발족되어, 이웃들이 운영위원회로 모이면서 동네의 착한 일을 함께 논의하고, 정기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봉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6) 착한동네 봉사단과 착한동네 사회안전망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미혼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을 다니며 봉사하기 원하는 이웃들에게는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챙겨드리게 했다.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3차례의 긴급 상황을 사전에 발견해 살린 것도, 미혼모가정의 아이가 집에 갇혔을 때 구조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착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절이나 평소에 나물을 무치거나 전을 부쳐 어르신들께 보내는 이웃들도 있고, 텃밭의 작물이나 선물로 들어온 식품을 갖다 주는 이웃들도 있다. 정기적인 반찬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과 자신의 생일마다 저금통을 깨서 반찬값에 보태라고 주고 가는 이웃들도 있다. 아이들의 푼돈에서 어른들의 금일봉까지 다양하게 착한동네로 흘러들어온다. 나눔강좌에서 만든 떡케이크와 천연비누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고, 재능기부자에게 배운 연주가 공연된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착한동네와 연결되어 나눔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은 생활기부로 나눔을 실천한다. 미용실은 어르신들을 미용봉사로 섬기고, 세탁소는 세탁으로, 반찬가게는 반찬으로, 전기공은 전기점검과 노후된 배선들과 전등을 교체해준다. 이외에도 안경점, 광고기획사, 휴대폰점, 농식품점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롯데리아, 피자가게, 치킨가게, 제과점, 떡집, 소형마트와 편의점, 학원, 식당, 치과 등이 동참하고 있다. 작년에 돌아가신 독거 할머니의 아픈 사연 이후 장례식장도 동참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동네 고물상도 참여하여 폐품들에 대해 좋은 가격을 매겨주고 있다. 착한동네는 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그 안에 숨 쉬고 있는 가치는 바로 내 코털목회에서 시작된 하나님나라이다.



지금도 나와 행복한교회는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교회 건물 밖의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코털목회와 착한동네 만들기의

확산은 이런 약함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내가 목사이고 배경이 교회여도 이웃들은 재정, 물품, 노동력과 재능 등을 기꺼이 내어놓는다. 마음이 싫으면 함께 할 수 없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결국 감동하여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과 가정이 되었다. 우리 행복한교회와 세상을 잇는 통로인 착한동네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한다.

갈계 마을과 권사 삼인방 이야기

강기원

갈계교회 목사

갈계 마을은

갈계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로 91년을 맞고 있다. 1928년 10월 20일 지금의 교회 자리에 세워졌다. 마을 중앙에 터를 잡았다. 교회 바로 앞에 마을 회관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교우들과 마을 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하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새벽부터 논밭으로 가는 경운기 소리에 잠이 깰 때가 많다.

갈계 마을은 교회가 세워지던 1928년부터 1985년 6월까지 아영면 면소재지였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을에 사는 분들이 많았다. 300세대 1,500명이 살았다니 놀라운 일이다. 지금 아영면 전체 인구가 2,100명 정도가 되니 갈계 마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60년대 후반까지는 한 해에 많게는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던 마을이다. 지금도 지역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여름마다 기수별로 옛 초등학교 터에서 진

행하는 모습을 본다. 마을 출신자들도 많이 참석한다. 가끔 모교회도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

갈계 마을은 넓지는 않다.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이다. 마을 바로 뒤로 백두대간 주능선이 지나고 있다. 주능선에서 뺏어내린 한 줄기가 마을 뒷산을 만들고 있다. 마을 왼쪽으로는 낮으막한 청룡산이, 오른쪽으로는 작은 마갑산이 있다. 마을 앞쪽으론 넓은 평야가 있고 평야 중앙으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지역의 가장 큰 냇물이 흐르고 있다. 1982년부터 마을 뒷산인 성개산 3부 능선을 가로질러 12번 광주대구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아름다웠던 마을의 원형이 훼손된 듯해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마을 2.5km 전방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기면서 지리산 두메산골이었던 곳이 이젠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다.

마을 안쪽 작은 밭 언저리에 지금은 밭에 묻혀버린 호석바위도 있었다. 호랑이가 앉아서 쉬어가던 곳이란 뜻이다. 백두대간 주능선이 지나다 보니 백두산 호랑이가 지리산까지 쉽게 오갔던 흔적이 마을에 80년대까지도 있었기에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많이 찾았었다는 말을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지역은 지리산에 위치한 해발 500고지다. 내가 살고 있는 아영면, 바로 옆인 인월면, 산내면, 운봉읍, 네 지역은 신라와 백제의 격전장이었던 곳이다. 고려 시절까지만 해도 이곳은 경상도에 속했던 곳이다. 그러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전라도 남원시로 다시 편입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삼국시대 이전엔 가야문명이 번성했던 곳이다. 가야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1982년 12번 고속도로(당시는 88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내는 과정에서다. 고속도로 구간에 가야고분이 발굴됐다. 그전까지는 모두가 낮은 산으로 생

각했던 곳이다. 주변은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이 아니라 가야 시절 왕의 무덤으로 판정이 나면서 고속도로를 우회해야만 했다. 최근 2012년에도 한 곳을 발굴했다. 일제 시절 도굴이 세 군데나 됐지만 그곳에서 가야 문명 최초로 청동거울과 황금신발을 비롯한 술한 보물이 발굴되어 한국 고고학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야 문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가야 문명 연구에 탄력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 고령 대가야에 버금갈 정도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은 주변 자체가 모두 자연사 박물관이다. 아영면은 흥부전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더욱이 운봉은 동편제의 시발지다. 운봉에 있는 황산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다. 고려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이성계가 호출이 되어 황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게 되었다. 황산대첩이라 지금은 명명하고 있다. 지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버렸다.

권사 삼인방

내가 갈계교회에 부임한 것은 2005년 6월 말이다. 15년째를 맞고 있다. 1971년 총회 연감을 보면 당시 갈계교회 교인은 208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80년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 전반적인 경향이지만 유학으로, 직업과 생계 문제로 대도시로 이동하다 보니 내가 부임할 땐 17명뿐인 교회가 되었다. 이후 28명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나이 들어 돌아가시고, 요양원으로 가시고, 자녀택으로 가시

는 분들이 늘면서 이젠 우리 가족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귀농귀촌 운동으로 고향을 찾거나 지리산을 찾아 내려오는 분들이 제법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갈계교회엔 이런 연결이 되지 않아 아쉽다.



교회에 부임하니 당시 70대 중후반의 세 분의 노 권사님들이 살아 계셨다. 고향 어머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세 분의 권사님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참 많다. 그래서 그 세 분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이곳에 정리해 본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권사 삼인방”이란 별칭을 늘 사용했었다.

박미분 권사님 - 1921년생, 2012년 7월 13일, 91세로 돌아가셨다.

민주식 권사님 - 1929년생, 2019년 1월 9일, 90세로 돌아가셨다.

이복남 권사님 - 1929년생, 2009년 3월 18일, 80세로 돌아가셨다.

첫 부임 후 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세 분의 권사님이 댁으로 가지 않고 점심식사 대접을 할 테니 밖으로 가자는 게 아닌가? 예약까지 해 두셨단다. 따라갔다. 식사를 하시면서 세 분이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다.

“갈계교회는 역사는 오래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장로가 없고... 그러니 새로 온 목사님을 제대로 대접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제일 많고 교회생활도 가장 오래 했기에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얘기를 나눴네요. 시골교회라 어렵겠지만 저희랑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생활해 봅시다.”

세 분의 노 권사님들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록 시골이지만 이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받드는 마음이 감사해서였다. 부임하면서 이미 했던 결심이었지만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시골교회를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다잡았다.

2005년 7월, 부임하면서 타고 왔던 자가용이 세 번이나 문제가 생기면서 멈춰섰다. 주변에 있는 선후배와 동료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모색해보란다. 당시엔 교회 차가 없었다. 이참에 교회 차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일예배 후 자초지종을 말했다. 시골이고 직장생활하는 분이 없기에 차량 헌금을 해봤자 200만원 정도면 많이 걷히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내 차도 폐차해서 헌금으로 사용하고, 걷히는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었다.

하루가 지났다. 월요일 아침 10시경에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사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미분 권사님이셨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사님 혼자만 있는데 어찌 들어가요.” 그때만 해도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사택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불문율과 같은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치마를 들치고 허리춤에서 보따리를 꺼내신 뒤 나에게 주는 게 아닌가?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보자기를 펼쳐봤다. 만 원권 한다발이었다. 100만 원이다.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으시면서 한 마디 하시곤 유유히 사라지셨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믿음 생활도 오래한 사람인데 내가 본이 되어야 교인들에게 덕이 될 듯해서 오늘 아침 일찍 면에 있는 농협을 다녀왔네요. 교회에 차가 없어 목사님이 불편하시다는 데 제가 작은 정성을 당연히 보태드려야지요. 이 할망구가 달리 할 게 있어야지요...”

면소재지 농협까지는 2.5km 떨어져 있다. 그러니 어르신의 발걸음으론 왕복 1시간이 족히 걸린다. 아침 9시에 농협에 문을 여니 그 시간에 맞춰 노구를 이끄시고 그곳까지 직접 걸어갔다 오셨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재정부장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후 각자 형편에 따라 2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 헌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일 개월이 못 되어 자그마치 81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모였다. 8월에 보험처리까지 해서 중고차 그레이스를 구입했다.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고마움은 당연한 것이고 부끄러움이 찾아왔던 건 시골교회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없기에 200만

원이면 많이 걷히겠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나의 오류 때문이었다. 인근 9개 교회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

작년 12월까지 13년간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교인들과 마을 분들뿐 아니라, 교회 재정자립을 위한 콩농사, 감자농사, 벼농사를 위한 짐차로도 활용되었다. 더이상 사용하기 힘들어 올해 1월 18일 이젠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번 두 번째 구입한 새 차가 생기는 과정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인들에게 현금 강요 한 번도 하지 않고 3,3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으니...



이번 1월에 새 차를 구입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민주식 권사님 사건 하나만 이곳에 정리해 둔다. 권사님이 서울의 요양원에 계시다가 새 차 구입 예정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 그때까지 400만 원이 모자랐다. 나는 하관예배를 인도했고, 3일 뒤 삼오제의 의미로 가족들이 주일을 맞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에 말씀을 유족들을 중심으로 전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 부족했던 400만 원을 온전히 채워주신 게 아닌가?

민주식 권사님은 경남 산청이 고향이다. 명성황후의 후손이다. 집안의 첫째다. 하지만 동생들은 모두가 배다른 동생들이다. 어머니를 일찍 사별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셨다. 체구는 작지만 주일 대표기도 할 때면 감동을 많이 받는다. 지금도 주일 예배 대표기도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의 대표기도가 왜 그리도 은혜가 되는지. 원고 없는 진실한 삶의 고백이기 때문일 듯하다. 민 권사님의 기도는 웅혼하다.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많은 부분 교회 공동체나 사회를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룬다. 연세가 드셨음에도 늘 국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으셨다.

민주식 권사님은 살아생전 늘 교회 화분을 담당하셨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교사직을 은퇴한 뒤 82세까지 15년 정도 교회 재정부장을 하셨다. 그러니 누구보다 교회 재정상황을 아시는 분이다.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함을 아시기에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 교회 안에 꽃이 시들면 언제나 말없이 화분을 사오셨다. 그 노구를 이끌고 십 리 길인 인월장까지 가서...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언제나 직접 농사지은 쌀로 본인 재정으로 떡도 해 오셨다. 구역예배를 드릴 때면 직접 키운 닭을 잡아 닭백숙도 종종 해 주셨다. 늦가을이

면 밭두렁에 심어둔 감을 추수해서 곶감을 만들어 설명절 전후로 하얀 분이 난 곶감 100개를 이쁘게 엮어서 나에게 주시기도 하셨다. 갈계는 옛날부터 곶감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산에 있는 감도 추수하지 않고 까치밥이 되는 모습이 아쉽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교회 차량을 새것으로 구입하는 데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는 모습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콩 농사

갈계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려면 우선되는 게 경제자립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골 정서가 담긴 것을 생각하다가 청국장을 하기로 했다. 시골이고 젊은 사람이 없는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 목사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 그리 반기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니 2006년 콩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다. 2006년 여름 지금은 권사가 된 집사님이 기계도 들어가지 않는 본인의 땅 300평을 한 해 콩농사를 위해 제공해 주셨다. 소쟁기로 밭을 갈고 전교인들이 동참해 콩을 심었다. 하지만 풀 뽑기랑 관리는 세 분의 권사님들과 나랑 아내가 감당했다. 한평생 농사를 지은 분들이니 풀 뽑는 시기도 다 알고 있다. 난 전혀 모르지만... 풀을 뽑을 때가 되면 세 분이 미리 말씀을 하신다. 추수랑 타작도 함께했다. 손으로 도리깨로. 도리깨도 처음 사용해 봤다.

추수한 콩을 이복남 권사님 덕에 있는 가마솥에 삶았다. 권사님이 생활하시는 방 아랫목을 허락해 주셨다. 옛날 방식으로 청국장을 만들었다. 5일간 발효를 마치고 돌절구에 방아를 뺨아 청국장을 만들

었다. 이후 알음알음 판매했다. 6년간 그 돈을 모았더니 4,400만 원 정도되었다. 2011년에 8,000만 원 들여 교회를 리모델링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다. 입소문을 타고 이곳저곳에서 2,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시멘트 벽돌로 지은 건물이라 겨울엔 외풍이 심해 외벽을 덧대고, 식당 겸 게스트룸과 화장실도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교회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푸세식 화장실뿐이었다. 지나고 나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자신의 생활방인 아랫목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는 일임에도 이복남 권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권사님 남편되시는 집사님은 한평생 교회 종지기를 하셨다. 집사님이 85년에 돌아가신 뒤부터 권사님께서 남편의 뒤를 이어 교회 종지기를 하셨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땐 새벽기도 시간에도 종을 치셨다. 권사님도 그러셨다.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새벽 교회종은 사라지고 주일 낮예배와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예배 시간엔 변함없이 교회 종을 치셨다.

갈계는 우리의 희망

우리 마을 맞은편은 인월면이다. 그곳을 옛날엔 용동이라 불렀다. 지역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용동에 있는 저수지 옆 정자에 모여 글짓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그 정자 안엔 “용동팔경”이란 글이 지금도 남아 있다. 지역 팔경 중에 “갈계효종(葛溪曉鐘)”이 들어갈 정도로 갈계교회의 새벽 종소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민들에게

도 영향을 미쳤다.

내가 갈계교회에 부임할 때 연세가 많이 드셨기에 나와 실제로 함께했던 시간은 7-8년 정도다. 그럼에도 세 분의 노 권사님들이 교회 봉사를 하시고,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해 가셨던 모습이 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세 분의 노 권사님들을 보면서 더욱 깨닫고 새기게 된다. 이젠 비록 11명뿐인 교회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을 신뢰하며 더욱 감사함과 진실됨으로 91년째를 맞는 갈계교회와 마을과 지역을 잘 일궈가고 싶다. 아내와 중1, 초등 4학년인 예빛과 수빛과 내 자식이 노 권사님들처럼 살아가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에 마을 입구에 내가 쓴 시 한 편을 올리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그해 갈계교회로 목회실습을 왔던 5명이 마을 입구에 벽화를 그려줬다. 벽화로 인해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팀장으로 왔던 후배는 최근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산에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잘하고 있다. 벽화를 마무리하며 팀장인 후배가 짧은 글을 부탁했다. 남의 글을 쓰기보다 내가 갈계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쓴 시다.



“갈계는 우리의 희망”

지리에서 백두까지
우뚝 솟은 백두대간
시루봉자락에 터 잡은 갈계마을.

동으로는 청룡과 솔비요,
남으로는 마갑과 덕두라.

고려 숙종시절로 한두 사람이 모여들고
동서가 어우러지니 참꽃이 피어난다.

참고로 지역 팔경도 이곳에 기록해 둔다. 정자엔 한문으로만 되어 있다. 지역 어르신에게 물어 뜻풀이도 함께 남긴다.

“龍洞八景”(용동팔경)

- 용복동(유곡 저수지 주변)에서 보는 여덟 가지 경관

龍洞瀑布(용동폭포) - 용복동의 폭포(유곡 저수지 위쪽)

鳶山晴嵐(연산청람) - 연비산의 비가 개인 뒤 물안개(아지랑이)

象山落照(상산낙조) - 닭실 뒷산에서 보는 해지는 모습

熊峙歸雲(웅치귀운) - 곰실재의 돌아가는 구름

芝山暮煙(지산모연) - 지산마을에 저녁이 되어 밥을 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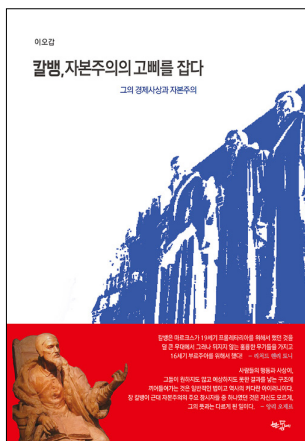
葛溪曉鐘(갈계효종) - 갈계마을 교회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東谷澤艇(동곡택정) - 유곡 저수지에서 뱃놀이하는 모습

西亭夜月(서정야월) - 서정리에 뜬 밤의 달

2019년 5월 17일, 금 02시 03분. 아버님 팔순이라 토요일 모든 가족들이 고향인 안동에서 모이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오늘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내려갈 생각이다. 이번 주엔 2,200평 네 다람이 모를 심었다. 오늘은 아내랑 물장화를 신고 모떼우기를 했다. 사과밭에 꽃도 따고 제초작업도 하느라 바쁜 시기다.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_ 그의 경제사상과 자본주의



저자 | 이오갑, 도서출판 한동네, 608쪽.

이 책은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뱅의 경제사상을 돈과 재화, 노동, 직업, 임금, 대부업 등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 사상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2008년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국제적인 경제위기 이후에 Time지는 “바로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열 가지 사상” 중 하나로 신칼뱅주의(New Calvinism)를 제시했다.

그만치 칼뱅과 칼뱅주의는 오늘날의 경제 문제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칼뱅의 사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칼뱅의 사상이 오늘 우리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칼뱅은 16세기 근대 자본주의가 한창 일어나던 시대에, 제네바라는 구체적인 한 도시에서 경제문제들에 대해 사유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네바 사회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칼뱅의 경제사상의 핵심은 경제가 부자나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 가난한 자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당시 탐욕적이고 약탈적인 부자들만의 자본주의에 ‘꼬삐를 잡고’ 그 자본주의가 보다 인간적이고 형제애적인 성격을 갖도록 했다.

특히 칼뱅은 경제를 단지 기술이나 방법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인류의 평화와 일치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파악했고, 그로써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이웃사랑과 정의, 나눔의 실천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경제나 돈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사람들의 평화와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 사상은 자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깝다. 실제로 이후 칼뱅주의 전통인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등의 종교사회주의자들, 가령 초기 바르트나 라가츠 등은 그런 칼뱅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그의 노동관이나 직업관, 대부-은행업에 대한 사상들은 그가 자본주의적임도 보여준다. 그런 식으로 저자는 칼뱅이 자본주의적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사상을 가진다고

파악했다.

그런 칼뱅이 자본주의 정신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서양 학문사에서 길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1905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사회학자, 경제학자, 신학자, 역사학자들이 대거 가담했으며, 그들의 국적만 봐도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인 논쟁이었다.

이 주제에 관해서도 이 책은 최근까지 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논쟁의 주요한 흐름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칼뱅의 경제사상이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게 해준다. 그동안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특히 신학만이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에서 칼뱅을 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흥미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저자인 케이씨대학교 이오갑 교수는 프랑스에서 칼뱅 연구로써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뒤 줄곧 칼뱅과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을 연구해온 학자이다. 그의 칼뱅관련 저서나 논문들은 원전을 바탕으로 하는 충실하고 치밀한 해석, 그 결과들을 현 시대와 연관시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는 현실성과 시사성을 가진 연구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사업(2015-2018)에 선정되어 이뤄진 연구로서 전체 4부 16장으로 구성된 600쪽이 넘는 비교적 방대한 책이다. 그만치 주제들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다룸으로써 이 분야의 중요한 거의 모든 점들을 밝혀내고, 마지막 16장에서 전개되는 저자 자신

의 결론적인 해석과 평가도 새롭고 흥미롭다. 학술적인 책이지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성도 가지고 있다.

칼뱅의 사상적이고 교회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개혁-장로교회 전통의 목회자들과 신학자, 신학생, 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 등 제직들, 평신도, 청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말씀과 교회」 편집실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교회생활



저자 | 강경신, 목회와신학연구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작 교회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은 성도님들의 교회생활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교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기도, 헌금, 직분,

봉사, 친교, 교육, 전도, 선교, 교회성장의 10가지 항목을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필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신학적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교회생활 들어가면서 일부)

교회에서 재직훈련이나 성도들을 위한 신앙교육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10가지 항목을 핸드북 형식으로 제작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교회생활은 목회자를 비롯한 일반 성도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실려 있다.

또 교회생활을 수요기도회나 주일오후 신앙교육 교재로 활용할 교역자들에게, 또한 저 주제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설서가 편집을 마치고 곧 출간된다(교회생활2, 해설서). 이 해설서는 각각의 주제를 개혁교회 신학적 관점에서 한편의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두 권의 책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도한다.

「말씀과 교회」 편집실

연구소 후원회원

2019년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접수분입니다.

일반회원

김지선

찬조후원

강건수(동월), 전상건(서광), 양목교회

유지후원

권의구(군산한일), 김남호(광주동원),
이순태(전주신광), 이종철(빛과생명),
이주형(마동), 이해길(전주생명)

교회생활후원

김광호, 김명곤, 이옥기, 칠성교회,
동남교회, 대청교회, 양곡교회,
순천중부교회, 한신교회, 가리봉교회,
발음교회, 동부교회, 디케이세미콘,
능동교회, 청주제일교회, 예닮교회,
군산한일교회, 송추교회, 양목교회,
전공교회, 신광교회, 능곡교회, 한교회,
수원소망교회, 전주시천교회, 신암교회,
진주제일교회, 목포동원교회, 임피교회,
서귀포중앙교회

특별후원

강경신(동부), 강연홍(제주성내),
곽선근(동부선린), 김상현(동수원),
김영봉(해남읍), 김종희(동남),
성양권(사랑의), 손성호(초동),
양신(안성제일), 유호승(중원),
이건희(청주제일), 이남기(완도시온),
이승구(한일), 임광영(시온성)
정교화(목포벤틀), 최병수(대구중부),
최홍규(가리봉)

광고협찬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부교회, 청주제일교회,
대구중부교회, 괴산제일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후원회원을 모집 합니다

- 일반회원: 월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개인이나 단체
- 찬조회원: 월 3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개인이나 단체
- 유지회원: 월 5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개인이나 단체
- 특별회원: 월 10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개인이나 단체
- 평생회원: 일시불로 1천만원 이상을 후원금으로 내는 개인이나 단체
- 기념회원: 5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개인이나 단체

말씀과 교회 정기구독을 환영 합니다

「말씀과 교회」는 현실을 성서의 눈과 복음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탐구함으로써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신앙과 신학전문 연구지입니다. 본 연구지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료는 권당 10,000원 입니다. 아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010033-01-002445, 국민은행 011-01-0377-852,

신한은행 140-002-197484 (예금주: 기장신학연구소)

농협 207816-51-014139(예금주: 이재천)

국민은행 011201-04-160132(예금주: 강승구ITS)

- E-mail: kisinyon@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theology.or.kr>
- Tel 02-365-6194-5, Fax 02-365-6196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장 강경신

소 장 최 영

편집후기

3.1운동 100주년,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 민족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의미있는 한해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榮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가을이 되길 소망한다. (편집실)